

碩士學位論文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烘 鏡 子

2002年 7月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研究

指導教授 安 在 哲

洪 鏡 子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7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洪鏡子の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 查 委 員 長

審 查 委 員

審 查 委 員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2年 7月

目 次

I. 緒 論

1. 研究目的
2. 研究範圍 및 方法

II.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概說

1. 構成
2. 作者 및 校刊者
3. 編纂年代
4. 體例

III. 聲 母

1. 雙脣塞·鼻音 및 脣齒擦音
 - 1) 幫母 2) 滂母 3) 明母 4) 非母
2. 舌尖塞·鼻音 및 邊音
 - 1) 端母 2) 透母 3) 泥母 4) 來母
3. 舌尖面塞擦·擦音
 - 1) 照母 2) 穿母 3) 禪母 4) 審母
4. 舌尖塞擦·擦音
 - 1) 精母 2) 清母 3) 心母
5.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 1) 見母 2) 溪母 3) 影母 4) 曉母

IV. 韻 母

1. 陽聲音
 - 1) 通攝 2) 臻攝 3) 山攝 4) 宕攝
2. 陰聲音
 - 1) 止攝 2) 祝攝 3) 蟹攝 4) 壘攝 5) 効攝
 - 6) 果攝 7) 假攝 8) 拙攝 9) 流攝

V. 聲 調

- 1) 平聲 2) 上聲 3) 去聲 4) 如聲

VI. 結 論

I. 緒 論

1. 연구목적

漢語音韻學 중 近代語音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다. 과거 等韻學에 대한 연구는 《韻鏡》, 《七音略》, 《四聲等子》, 《切韻指掌圖》, 《切韻指南》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近代語音史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중시되기 시작하긴 했으나,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宋元시기의 韻圖와 《中原音韻》음계의 범위 내에 관심이 치중되어 있다. 사실, 중국 音韻學 자체를 “玄學” 혹은 “絕學”이니 하는 일부의 시각도 이 방면의 연구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等韻學이란 영역 내에서, 近代 等韻學의 주체를 이루는 明清等韻學은 그 어떤 시기와의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의 等韻學家는 수적으로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신분도 가지각색이어서 문인학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외에도 僧徒들이나 외국인, 부녀자들도 等韻學의 연구와 보급에 참여하였다. 또한 等韻 저작의 수량도 풍부하고, 내용이 광범위하며, 형식 또한 다양하여 前代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수량에 비해 현재 보존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이 또한 분산되어 있어서 일반 독자들이 原本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 시기 等韻圖는 양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볼 때, 당연히 중시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계에서 그럴만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近代等韻學에 대해 진지하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인은 近代等韻學을 대표하는 明清시기의 韻圖인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¹⁾을 연구하고자 하며, 이 韻圖의 대표성은 王力의 《漢語語音史》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王力은 明清시대의 실제어음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徐孝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과 무명씨의 《字母切韻要法》을 들고 있다.²⁾

다음은 현재까지의 이 韻圖에 대한 연구현황이다.

《圖經》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³⁾, 陸志韋의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⁴⁾, 薛鳳生(美)의 〈徐孝의《重訂韻

1) 이하 《圖經》이라 簡稱한다

2) 王 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6쪽

3) 劉英璉,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 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7年

4) 陸志韋,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은 燕京學報 第32期에 실리기도 했으며 《陸志韋近代漢語音韻論集》의 일부이기도 하다.

圖》> 5)가 있다. 이 중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은 분량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그 분석이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는 논문으로, 이 방면의 논문들을 총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단, 聲母와 韻母篇에서 근거로 하는 反切에 차이가 있는 등, 부분적으로 反切의 선택에 의심이 가는 것이 있다. 陸志韋의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은 작자도 밝히고 있듯이, 《圖經》의 原文을 보기가 어려운 관계로 논문에 原文을 실고 있으며 논문의 대부분은 이 原文이 차지하고 있어, 작자의 독창적인 재구음 말고는 개괄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원문을 충실히 실고 있어 薛鳳生(美)의 〈徐孝의《重訂韻圖》〉도 이것을 기초자료로 쓰여진 논문이다. 薛鳳生(美)의 〈徐孝의《重訂韻圖》〉은 《圖經》의 체례와 음운상의 특징을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분량도 4~5쪽에 불과하다.

다음은 다른 논문의 일부분으로서 《圖經》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林平和의 〈明代等韻之研究〉⁶⁾, 유영기의 〈「合併字學集韻」研究〉⁷⁾가 있다. 이 중 林平和의 〈明代等韻之研究〉는 明代等韻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圖經》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圖經》의 체례를 中古音과 蘭茂의 《韻略易通》, 楊萬有的 《字說》과 비교설명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유영기의 〈「合併字學集韻」研究〉는 《圖經》과 짝을 이루는 韻書 《合併字學集韻》을 연구한 논문으로 《合併字學集韻》과 《圖經》은 글자의 출입이 부분적으로 발견되기는 하나, 기본적인 音韻현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韻書부분을 다룬 것이라 모든 글자를 나열하여 분석할 수 없는 관계로 대표자만을 선택 분석하고 있어 너무 함축적인 면이 있으며 표면상 《圖經》의 字와도 차이가 있다.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圖經》에 대한 연구는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두 개괄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어 현재까지 연구가 거의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인은 《圖經》의 체례를 中古音과 《中原音韻》과 비교해 봄으로써 《中原音韻》이후 近代音韻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5) 薛鳳生(美), 〈徐孝의《重訂韻圖》〉, 第十四屆 國際漢藏語言學會論文, 俞貞 譯

6) 林平和, 〈明代等韻之研究〉,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民國 64年, 196쪽-214쪽

7) 유영기, 〈「合併字學集韻」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6

8) 이외에도 李在敦, 〈中國 近世官話의 音韻 演變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이 있다.

기타자료로 《圖經》을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언급하고 있는 저서로는,

李新魁, 《漢語等韻學》, 北京, 中華書局, 1983. 334쪽-337쪽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 北京, 語文出版社, 1992, 174쪽-176쪽

趙憇之, 《等韻源流》,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74년, 214쪽-218쪽

王 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6쪽, 389쪽

趙振鐸, 《中國語音學史》, 河北, 河北教育出版社, 1998, 323쪽

唐作藩, 《音韻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73쪽, 212쪽 등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고는 앞에서 밝혔듯이, 明代 等韻圖 중의 하나인 《圖經》의 聲母와 韻母, 聲調의 체계를 그 연구범위로 하되, 中古音 및 《中原音韻》 등과 비교하여 그 音韻 체계를 밝히고 이 시기의 音韻의 변화를 알아본다. 中古音은 《廣韻》과 《集韻》의 反切을 위주로 하였으며,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字나, 혹은 이 두 책에서의 反切字 선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中文大辭典》⁹⁾을 이용하여 《廣韻》과 《集韻》이외의 反切을 선택하되 이 경우 그 출처를 밝혔다. 反切을 토대로 한 中古音에 대한 분류는 李葆嘉 編著 《廣韻反切今音手冊》¹⁰⁾을 참고하였으며, 中古音과 現代 漢語¹¹⁾ 재구음은 董同龢의 《漢語音韻學》¹²⁾을 따르고, 《中原音韻》의 재구음은 劉德智 注音의 《音注中原音韻》을 참고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제2장에서 《圖經》의 구성과 작자, 편찬연대와 간략한 체제 및 특징을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圖經》의 聲母 체계를 그 발음의 부위 및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서 기술하되 《圖經》의 字母배열 순서를 따랐다. 여기서는 《圖經》의 字를 聲調에 따라 나열한 뒤 攝名과 呼를 적고 中古시기의 音의 분류, 反切을 밝힌 다음, 中古音·《中原音韻》·現代漢語의 순서로 재구음을 적었다.¹³⁾ 이 결과를 토대로 각각 그 아래에 해석을 붙여놓았다. 제4장에서는 《圖經》의 韻母의 체계를 圖에 따라 차례로 기술했는데, 각 글자마다 해당하는 中古音과 《中原音韻》의 音價는 제3장 聲母의 체계를 분석할 때 사실상 이루어진 셈이므로 여기서는 각 攝별로 그 결과만을 적었으며, 뒷부분에서 陸志韋가 재구한 音價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 제5장에서는 聲調를, 그리고 제6장에서는 본고의 결론을 실었다.

9)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 74年

10) 李葆嘉, 《廣韻反切今音手冊》, 上海辭書出版社, 1997

11) 現代漢語라 하면 원칙적으로 標準語 이외에도 여러 지역의 方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現代漢語라 하면 현재 中國의 普通話를 가리킨다.

12) 董同龢, 《漢語音韻學》,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9

13) 본고에서 字의 분석방식은,

<平>兵 : 通, 齊齒 ; 梗開三平庚幫, 甫明切 piəŋ piəŋ piŋ

이라 적는 것인데, 이것은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의 ‘兵’이라는 字가 韻圖에서 平聲이며, 通攝 齊齒呼이고, 中古시기에는 梗攝 三等 平聲 庚韻 幫母에 속하며 甫明切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국제음표로 쓰인 부분은 각각 차례로 中古音, 《中原音韻》, 現代漢語의 재구음을 나타낸다.

II.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概說

1. 구성

《圖經》은 《合併字學集韻》에 딸린 韻圖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合併字學集韻》은 총 13권으로 되어 있으며, 《合併篇韻字學便覽引證》 1권, 《圖經》 1권, 《四聲領率譜》 1권, 《合併字學集韻》 10권이 그것이다.

《圖經》은 그 이름에 “司馬溫公”이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切韻指掌圖》와 아무 관계가 없다.¹⁴⁾ 그 체례와 내용도 《切韻指南》, 《切韻指掌圖》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合併字學集韻》은 明朝 萬曆년간에 만들어졌으며, 다른 곳의 書目에는 보이지 않으며 淸初時 「內府藏本」으로 있다가 지금은 臺北의 고궁 박물관에 그 全文이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四庫全書總目》 권43에,

合併字學集篇集韻二十三卷(內府藏本)

明徐孝編, 張元善校……是書凡集篇十卷, 分二百部, 附拾遺一卷……又集韻十卷, 分一百部, 附四聲類¹⁵⁾率譜一卷, 等韻一卷.

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남아 있는 《合併字學集韻》은 그 중의 일부분이며 「集篇十卷」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책을 간행할 초기에는 전체 23권이었는데, 「集篇」과 「集韻」의 구별을 위해서 두 개의 합으로 나누어 보관하고,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책의 원래 이름을 책함에 새기지 않고 두 개를 각각 내용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여 두었는데, 하나는 분실하고 남아있는 函의 겉면에 「合併字學集韻」字가 표기되어 있어 그것을 책 전체의 이름으로 삼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¹⁶⁾ 그리고, 세 명의 序文이 있는데 당시의 大學士

14) 耿振生の 《明清等韻學通論》(北京, 語文出版社, 1992, 36쪽)을 보면 “明清代의 많은 등운학가들도 中古의 韻圖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은 《切韻指南》이 司馬光이 지었다는 《切韻指掌圖》라 여기고 예를 들어 徐孝도 자신의 운도에 실제로는 《切韻指南》을 合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切韻指掌圖》의 작자인 司馬溫公의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張元善의 〈合併字學篇韻便覽序〉를 보더라도 이 韻圖는 《切韻指南》을 합병한 것이라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切韻指掌圖》란 韻圖도 지금은 司馬溫公이 지은 것도 아닌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15) 현존하는 책 가운데 《四聲領率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類’字라는 것은 ‘領’字의 誤記라 보아짐

16) 劉英璉,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 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7年

인 沈一貫, 兵部尙書인 蕭大亨, 校訂者인 張元善의 序文이다. 이 세 사람의 序文에는 한결같이 「合併字學篇韻便覽序」란 것을 명시하고 있어 책의 원래 이름이 「合併字學篇韻便覽」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해볼 수도 있다. 凡例에,

舊《篇海》原設偏旁四百四十四部, 今刪其二百四十四部外, 增連身數畫一部, 逋共二百零一部

(舊《篇海》에는 원래 偏旁444部를 세웠는데, 지금은 244部를 없애고 畫 1部를 더하면, 모두 도합 201部이다.)

라 했고,

張元善은 〈合併字學篇韻便覽序〉에서

刪昔一十六攝爲十三攝, 改三十六母爲二十二母. 今母必統於攝, 聲必屬於母, 分攝宜而子母¹⁷⁾定. 又刪昔之四百四十四部, 改爲二百一部. 形之相類者總歸一部, 聲之相協者總歸一音.

(과거의 16攝을 13攝으로 하고 36字母를 22母로 줄였다. 母를 攝에 모으고 분류하되, 聲을 母에 속하게 하고 攝을 나누기를 알맞게 하여 字母가 정해진다. 또, 옛날의 444部를 버리고 201部로 고쳤는데, 形이 같은 것은 하나의 部로 귀납하고 聲이 서로 어울리는 것은 하나의 音으로 귀납한다.)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四庫全書總目》에서 集篇을 200部라 밝힌 점으로 보아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集篇에 대한 설명이며, 集篇의 성질이 字書에 속하고 그 귀납된 字의 부수도 《五音篇海》를 조정하여 만들어졌으며 그것과 《合併字學集韻》과의 관계는 아마도 하나는 字書, 하나는 韻書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¹⁸⁾

2. 作者 및 校刊者

《等韻圖經》은 작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단 그 페이지의 앞에 「特進榮

17) 원문에는 '子母'라 되어 있는데, 字母를 가리키는 것이다.

18) 陸志韋의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燕京學報 第32期)에서는 《合併字學篇韻便覽》을 字書와 韻譜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字書라는 것은 《合併字學集韻》을 가리키고, 韻譜는 《重訂四馬溫公等韻圖經》을 가리키고 있다.

祿大夫柱國惠安伯永城張元善校刊」, 「金臺布衣居士徐孝合併」이라 밝히 놓았을 따름이다. 《合併篇韻字學便覽引證》의 끝에 역시 「金臺布衣徐孝謹呈」, 「特進榮祿大夫柱國惠安伯永城張元善校刊」이란 文이 있으며 또, 《合併字學集韻》 卷4의 앞에는 참여한 인원의 姓氏가 나열되어 있고, 張元善은 「總校重刊」, 「合併篇韻」은 徐孝가 쓴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張元善序에서도 「於是博訪韻軒徐字暨諸名士之工於篇韻者。」라고 되어 있어 《合併字學集韻》의 작자는 文字와 聲韻에 일가견이 있는 徐孝이며 張元善은 단지 교정하는 것을 도와서 간행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徐孝에 대한 生平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단지, 《合併篇韻字學便覽引證》으로부터 그가 「金臺布衣」라는 것과 韻軒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四庫全書總目》에는 그가 「順天布衣」라고 되어 있으며 작자가 明의 神宗 萬曆年間的 사람이라는 것과 일생동안 登科하지 않고 布衣로 일생을 마친 것은 믿어도 좋을 듯 싶다.¹⁹⁾

張元善은 明史에서 보면, 彭城伯 張麒의 후예로 惠安伯 張鍊의 조카라고 되어 있다.²⁰⁾ 明 世宗 嘉靖 34年(1555年) 2월에 작위를 이었고, 明의 神宗 萬曆 37年(1609年) 6월 己未日에 세상을 떠났다. 家門은 외척 쪽에 나라에 공이 있어 역대로 작위를 세습했다. 永城은 옛날 明의 「河南歸德府」(지금은 옛날 河南省 開封市 부근의 永城縣)에 속하는 곳이다. 《合併篇韻字學便覽引證》의 끝에 「謹呈」이란 두 글자를 사용한 것으로, 徐孝가 아마도 貴族이었던 張元善의 門客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또 《合併篇韻字學便覽引證》의 마지막 張元善 考證 부분에서는 「余閒居無事, 輒留心字學與稽《洪武正韻》, 《韻學集成》」이라 되어 있는 것과 張元善의 〈合併字學篇韻便覽序〉에서

余暇時涉獵諸書, 日與通曉字義者互相關發, 稍知篇韻.

(나는 한가할 때마다 여러 책들을 섭렵하였는데, 날로 字義에 통하고 밝아서 분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篇韻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張元善은 본래 小學에 대해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合併篇韻字學便覽引證》과 〈合併字學篇韻便覽序〉의 내용으로부터 이 책을 편찬하게 된 동기와 배경, 과정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이미 전통의 字書와 韻書가 이미 실용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있어 찾기가 어려워지자, 門客이 서로 참여해서 연구하고 토론하여 개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19) 趙憇之, 《等韻源流》,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74年, 215쪽

陸志韋,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燕京學報 第32期

20) 이것은 明史卷百八의 外戚恩澤侯表에 근거한 것으로, 卷三百 外戚傳에는 단지 子라고만 되어 있고 조카를 나타내는 「從」字가 빠져 있다고 되어 있다.(國立政治大學 國語文學研究所 博士論文 《明代等韻學之研究》, 林平和 著, 196쪽)

21) 趙憇之, 《等韻源流》,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74年, 215쪽

3. 편찬년대

《圖經》의 편찬년대에 대해서는 陸志韋가 明 神宗 萬曆 34년(1606년)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張元善의 序文 뒤에 「萬曆 丙午 孟夏의 吉」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에 근거한다. 趙蔭棠은 「韻表가 重訂된 것은 萬曆 30년 1월 3일에 시작하여 2월 25일에 마쳤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圖經》의 凡例에 의거한다.

《合併字學篇韻便覽》 蕭大亨의 序文에 「惠安 張公鏞《合併字學篇韻便覽》一書, 凡三易梓矣」라 한 바가 있고, 그 序文의 뒤에는 그 때가 「萬曆 戊申(즉, 明 神宗 萬曆 36年, 서기 1608年)」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萬曆 36년에는 이 책이 이미 3차에 걸쳐 간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張元善序에서는,

是書之作, 長肫甫離抱, 迄於二十載而成, 間嘗置兒膝前相爲授受, 適承御史余公, 孔公訪余林下, 出是書折衷之, 二公輒爲嘉與, 欲鍍諸梓以廣其傳, 第恐管窺蠡測, 徒爲木災, 不敢付之剞劂, 乃辱二公過爲誇許, 又不敢不付之剞劂.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은 오래도록 끌어오다가 품에서 떠나 지금 20년이 되어 서야 겨우 완성이 되었다. 항간에서 일찍이 어린 아이를 무릎 위에 놓고서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고 하여오던 것이 마침 侍御를 받들어 余公과 孔公이 내가 있는 시골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절충하여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두 공은 빈번하게 즐거이 교체해 오다가 여러 판목에 새기어 그것들을 널리 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식견이 좁아 공연히 나무가 타버리는 재난이라도 당할까봐 감히 그것들을 새겨 넣기를 청하지 못하고 이에 두 공을 욕보이고 허물이 될까봐 또 그것들을 새겨 넣기를 청하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있다.

이것으로 이 책은 萬曆 14年(1586年) 전후에는 이미 교편에 들어가서 歷20년에 완성이 되고 萬曆 30년에는 작자 徐孝가 重訂을 더하였으며, 萬曆 34년에 처음 간행이 되었고, 萬曆 34年에서 36年의 3년 간에 걸쳐 이 책은 연속 3차의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체례

《圖經》의 全文은 25개의 圖로 되어 있으며, 그 체례의 편배상, 각각의 圖 첫 행에는 모두 攝名을 먼저 표시하고, 아래에는 開合 혹은 獨韻이라 명기하였다. 그 同攝의 開合을 합하면 모두 13攝이 된다.(그 중 祝攝은 獨韻) 각 圖는 옆으로 22字母가

15행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 非, 敷, 微, 照, 穿, 稔, 審의 일곱 母는 幫, 滂, 明, 精, 淸, 心의 일곱 母 아래에 두어 두 행으로 나누었다.

세로로는 三等으로 분류하여, 각 等마다 平, 上, 去, 如의 四聲을 두었다.²²⁾ 각각의 圖 끝에는 각각 그 四聲에 의거하여 圖 중에서 귀납해 낸 글자를 들어 네 개의 字가 韻目이 되도록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全文이 25개의 圖이므로 모두 100개의 韻目이 있게 되는 것이다.

圖 중 有音有字는 거기에 해당하는 글자를 써넣었고, 有音無字는 '○'의 표시로 그것을 대신하고, 無音無字는 그 자리를 그대로 비워놓았다. 또 각 圖 중에는 陰刻字가 있는데 총 151개이다.

<특징>

(一) 字母

舊韻圖의 36字母는 22개의 字母로 줄어들었으며, 그 중 心, 稔 두 母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1) 敷, 微의 假設


《圖經》의 輕唇音 非·敷·微 세 母는 모두 合口篇 第3等に 귀납되어 있다.²³⁾ 그리고 圖 중 非母는 실제 그 해당하는 字가 있지만, 敷·微 두 母는 字母만 설정이 되어 있고 有音有字를 나타내는 陽刻字는 없다. 《圖經》의 앞 「字母總括」에서 「非母正唇獨佔一, 敷微輕唇不立形」이라 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敷母 중의 非, 擘와 微母 중의 尾, 絞 등은 陰刻字 형태로 되어있어 有音有字를 나타내는 陽刻字는 없으며 자리만 빌린 형태이다. 이것은 《圖經》 역시 敷母가 이미 非母로 합류되었으며, 微母도 이미 소실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단, 작자가 韻圖에서 輕唇音 字母를 그대로 둔 것은 韻圖에 대칭성을 주기 위해서이다. 즉, 重唇音 「幫·滂·明」과 輕唇音 「非·敷·微」가 평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은 《圖經》이 舊韻圖에서 幫非·精照 두 組의 字母가 나란히 배열되던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2) 여기서 '三等'이란 세 개의 等を 말하며, '四聲'이란 네 개의 聲調를 말한다. 즉, 본고에서 한자로 숫자를 나타낸 것은 그것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며, 만약 그것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었다면 해당하는 等이나 聲 자체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3等은 第3等を 나타낼 뿐이다. 단, 等과 呼, 聲調의 표현에 한한다.


23) 《圖經》에는 각 攝마다 開合口圖가 있는데 開口圖는 '開口篇'이라 하고, 合口圖는 '合口篇'이라 표시되어 있다.

(2) 心母의 설정

韻圖의 22개 字母 중 心母는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유일하게 《圖經》에서만 설정된 字母이다. 陰刻字로 되어 있으며 ‘’ 形 안에 글자가 있는 형태이다. 《圖經》의 凡例에서,

復考音義以別剛柔，惟心母脫一柔音，見居吳·楚之方，予以字添心在內，……
以上借立之形，皆用字以別之。

(또, 音義의 剛柔로 分別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단지 心母와 조금 다른 柔音으로, 吳楚라는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形을 첨가하고 心字가 안에 있도록 하여 ……이상 빌려서 세운 形들은 모두 字로써 그것을 分別하고 있다.)

이라 하여 心母는 有音無字의 吳楚지방의 音이며, 당시 北方에는 이런 音이 없었으나, 작자는 韻圖의 字母 精계를 照계 네 字인 「照·穿·稔·審」과 대칭이 되도록 하고자 心의 바깥에 形을 더해서 心母字가 되게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輕唇音에 敷, 微 두 母를 더 설정해서 韻圖의 大칭성과 조화를 구하고자 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稔母의 설정

《圖經》중 稔母에 귀납된 字는 대부분 36字母 중 日母에 속하는 것이다. 趙憇之와 陸志韋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당시에 捲舌音 /tʂ-/ /tʂ-/ /ʂ-/ /ʒ-/가 《圖經》에 이미 생겨났다.²⁴⁾ 日母는 中古의 소리값이 /nz-/로 아직 권설화가 되지 않았으며, 발음 방법도 照계 字와는 다르므로 《切韻指南》과 《切韻指掌圖》는 그것을 照계와 분리하여 字母 중 가장 나중에 배열하였다. 그러나, 近代에 와서 知·莊·照계가 합류되고 권설화가 되었으며, 日母도 /nz-/에서 권설의 /ʒ-/로 변하였기 때문에 발음방법이 비슷한 照계와 나란하게 한 것은 당시 語音의 실제 모습과 매우 합치되는 면이다. 이렇게 권설화된 日母의 성질은 이전의 日과 다르며, 舊 日母 중 「爾·二·而」의 세 字가 이미 影母에 귀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되던 日母라는 舊명칭은 쉽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다시 「稔」母를 설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圖經》의 聲母 중 敷, 微,  세 母는 虛類

24) 趙憇之, 《等韻源流》,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74年, 216쪽
陸志韋,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燕京學報 第32期

이지만 이 세 母를 더 설정함으로써 韻圖의 22母를 15행으로 나누어 대칭이 되도록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음은 있지만 字形이 없는 글자로 하여금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稔母를 새로 설정하여 舊 日母와의 혼돈을 막고 있다. 그러므로 《圖經》의 字母는 이전의 字母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22字母에서 虛類를 제하고 나면 19母만 있게 된다.

(二) 韻攝

中古에서 近代에까지 語音은 簡化的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그래서 韻目的 數도 《指南》이 160韻, 《切韻指掌圖》가 153韻인데 《圖經》은 100韻이 되었으며, 韻攝도 《切韻指南》의 16攝에서 더 簡化되어 《圖經》은 13攝이 되었다.

그 중 10개의 攝은 攝名으로 사용한 글자가 이전의 명칭 그대로인데, 그것은 주요 원음이 이 攝과 매우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며, 祝·壘·拙 세 攝은 새로 세운 것으로 《指南》의 攝名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攝 중의 주요원음이 이미 달라져서 舊 명칭을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본 攝字 중에서 한 글자를 찾아 攝名으로 하게 된 것이다.

(三) 開合·等呼



이전의 韻圖는 「二呼四等」으로 字音을 병합하였다. 「二呼」는 開口呼와 撮口呼이며, 四等은 介音의 차이에 따라 洪細 네 개의 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그러나, 明代에 와서 語音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결과 당시 等韻의 체계에 변화가 부득이하게 되었다.

徐孝는 비록 「四呼」나 「二等」이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圖를 開合으로 나누고 각 圖를 세 개의 等으로 다시 나누었다. 이는 표면상의 開·齊·撮·撮 四呼의 형식은 아니지만, 내용상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圖經》의 三等은 실제적으로 「二等」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等에는 照系에 속하는 글자만이 귀납되기 때문이다. 照系字는 《圖經》에서 권설음으로 변화였으며, 권설음의 특성은 洪音하고만 결합하고 細音하고는 결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照系字는 開口呼나 撮口呼하고만 결합하고 齊齒呼나 撮口呼하고는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第2等 照系字는 洪音인 第1等으로 귀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圖는 두 개의 等으로 충분하며 세 개의 等を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²⁵⁾

圖의 귀납된 字로 보았을 때 開合二圖의 第1等은 모두 洪音이고, 第3等은 모두 細

25) 陸志韋,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燕京學報 第32期

음이다. 즉, 《圖經》에서 開口圖 第1·2等は 開口呼가 되며, 第3等は 齊齒呼가 되고, 合口圖의 第1·2等は 合口呼가 되며, 第3等は 撮口呼가 된다. 그런데도 작자가 照系에 속하는 字를 第2等に 다시 설정한 것은 아마도 傳統韻圖에서 精·照系에 귀납되는 字가 항상 병행하는 배열방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아진다.

이외에 幫系字는 開口 第1·3等과 合口 第1等に 있는데, 非系字는 合口 第3等に만 있다. 이 배열법은 당시 語音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아마 傳統韻圖에서 輕唇音이 3等に 배열되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四) 入聲의 분배와 四聲의 배열

傳統韻圖는 모두 平上去入 四聲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中古後期에 와서 入聲의 韻尾는 약화되어 喉塞音 [-ʔ]이 되었으며, 元代의 《中原音韻》은 이것을 平·上·去의 세 聲으로 귀납하고 「入聲作平聲」·「入聲作上聲」·「入聲作去聲」이라 밝히면서 정식으로 入聲의 소실을 설명하고 있다.²⁶⁾

《圖經》의 入聲字 소실은 더욱 현저하며 이미 완전히 平·上·去·如의 四聲으로 귀납되었다.²⁷⁾ 또한 平聲字는 이미 陰平과 陽平으로 분화되어 《圖經》의 四聲은 平·上·去·如이며 새로 설정된 如聲은 지금의 陽平聲이다. 圖의 「平·上·去·如」의 성조 배열순서는 舊韻圖의 「平·上·去·入」四聲의 순서에 의거하고 있는데 入聲이 이미 소실되었기 때문에 如·入의 두 音이 어울리는 것에 착안하여 쉽게 入聲을 如聲으로 대치한 것이다. 그래서 이 平·上·去·如의 순서도 平·如·上·去가 되지 않은 것이다.

다음은 陸志韋의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에서 如聲에 귀납된 字의 내원을 분석해 놓은 것이다.

- (1) 中古의 次濁音 平聲字로, 明微來日娘泥疑(官話의 鼻聲字에는 陽調만 있는 것이 아니라, 陰調가 되는 것도 소수가 아니다. 徐圖는 陰調의 鼻聲字에 모두 ○를 더하였으며, 이것은 새롭게 늘어난 것을 나타낸다. 단지 第19攝의 “懣”字에만 ○을 더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누락된 것이라 보아진다. 왜냐하면 舊 等韻圖의 次濁音斷은 陰陽調로 나눌 수 없으며, 《中原音韻》에 이르기까지 鼻聲字에는 陰調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 방언의 陰調 鼻聲字에는 어떤 내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본인은 옛부터 陰陽의 분별이 있

26) 竺家寧, 《近代音論集》, 臺灣學生書局, 民國 83年, 197쪽 〈宋代入聲의 喉塞音韻尾〉 부분

27) 入聲의 派入에 대해서 李新魁의 《漢語等韻學》(北京, 中華書局, 1983)는 平(陰平)聲으로는 派入이 안되고 如(陽平)·上·去로만 派入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圖經》의 平聲에는 中古의 入聲에서 온 글자가 다소 보인다.

- 었는데 韻書가 이 점을 소홀히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이다.
- (2) 喻母의 平聲字는 影의 “如聲”으로 변하고, 匣母의 平聲字는 曉의 “如聲”으로 변하였다.
- (3) 기타 全濁 平聲字는 送氣의 “如聲”으로 변하고, 全濁 入聲字는 不送氣의 “如聲”으로 변하였다.

(五) 陰刻字

《圖經》에서 그 해당하는音を 나타내는 방식에 다른 韻圖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陰刻字가 그것이다. 이 陰刻字는 다음의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叶韻의 편리를 위하여 새로 만든 글자

이것은 주로 字形의 바깥에 □形이 있는 陰刻字에 대한 것으로, 敷·微·心 세 母와 透母 撮口에 있는 陰刻字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圖經》의 凡例를 보면,

合口音端透二母下，韻圖中原無字形，節年查錄，端母已有權·隸二形，惟透母無形，難以叶韻，予立通·二形，以爲五十二音之領率；及查敷·微二母，分別輕重，亦係無形，復立菲·糸·紋·尾四形以爲一伯零四音之領率；復考音義以別剛柔，惟心母脫一柔音，見居吳楚之方，予以口形添心字在內，爲母以領開合一四之音，……於是又立思，腮，洗，性，松，蘇，宣，須八形，以爲一百九十六音之領率。已上借立之形，皆用白字以別之。²⁸⁾

(合口音 端, 透 두 母의 아래에는 韻圖 중에 원래는 字形이 없었다. 해마다 기록을 찾아보니, 端母에는 이미 權·隸 두 形이 있는데 단지 透母 아래에만 아무 形이 없어 叶韻을 하기가 어렵다. 이에 通·二 形을 세워 52개 音의 대표자로 삼게 했다. 또, 敷·微 두 母를 살펴보면, 輕重의 分別이 있는데, 역시 이 계통도 形이 없다. 이에, 다시 菲·糸·紋·尾 네 形을 세우고 104개 音의 대표자로 삼게 했다. 또, 音義의 剛柔로 分別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28) 臻攝 開口篇 心母에 귀납된 ‘心’字와 宕攝 合口篇 見母에 귀납된 ‘狂’字에 대한 설명이 凡例에 누락이 되어 있다. 그리고 心母에 귀납된 字는 모두 心母에 귀납된 字와 짝을 이루어 단지 □形의 有無만이 형태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나, 臻攝 開口篇 心母에 귀납된 ‘心’字와 짝을 이루는 心母의 字는 ‘辛’이다. 어떤 語音상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데, 단지 心母와 조금 다른 柔音으로, 吳楚라는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形을 첨가하고 心字가 안에 있도록 하여 開合 14개의 음의 대표자로 삼게 되었다. ……이에 또 思, 腮, 洗, 性, 松, 蘇, 宣, 須 8개의 形을 더 세워, 196개 음의 대표자로 삼았다. 이상 빌려서 세운 形들은 모두 글자를 회계 함으로써 그것을 분별하고 있다.)

라고 하여, 敷·微·心 세 母와 透母 撮口 부분은 실제적으로 有音無字이나 叶韻을 하기 위해서 음이 비슷한 字에 □形을 더하고 陰刻字 형태가 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며 나머지 다른 글자들은 음이 비슷한 글자를 취할 만한 것이 없어서 “○” 형태로 두었다.

나. 다른 지역의 음을 차용한 글자

이것은 泥·明·來·稔 네 개의 母 아래에 있는 陰刻字에 대한 설명이다. 泥·明·來·稔母는 次濁이므로 그 平聲도 濁平聲이 된다. 이것은 당시 北音으로 볼 때, 濁平聲은 陽平聲이 되어야 하므로 《圖經》의 平聲(陰平)의 자리는 당연히 無音無字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圖經》은 이 네 母의 平聲의 자리에도 글자를 배치하여 陰刻字로 나타내었다. 凡例에서,

平聲舊有陰陽清濁之分, 混於檢討, 今刪去同·農·模·盧²⁹⁾之濁平, 外增泥·明·來·稔冀趙之音, 以成純清一貫.

(平聲은 옛날에 陰陽 清濁의 구분이 있었는데, 섞여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同·農·模·盧와 같은 濁平聲을 제외하고, 외부의 泥·明·來·稔母에 해당하는 冀趙의 음을 첨가하여, (이 韻圖의 平聲의 자리는) 清平聲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冀·趙 지역에서는 이 네 母의 字를 平聲으로 읽었으며, 그래서 《圖經》은 그것을 차용하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그 음을 파악 하도록 하였던 것 같다.

다. 異讀의 표현

여기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 글자가 하나는 陽刻字로 다

29) 同·農·模·盧 네 字를 濁平의 예로 들었는데, 이 字들은 각각 透·泥·明·來母 아래에 있는 字로 透母의 '同' 대신에 稔母 아래에 있는 濁平의 字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른 하나는 陰刻字로 된 글자로, 아마도 文과 白을 구별하기 위해서 白話音을 陰刻字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切語의 내원이 《圖經》의 다른 하나의 陽刻字와 같은 것으로, 이 陰刻字는 나중에 讀音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³⁰⁾

▶ 陰刻字와 切語의 來源이 같은 陽刻字³¹⁾

- 「 」(通溪撮上)-----犬穎切-----頃(通溪齊上)
 「 」(通透開上)-----他登切-----騰(通透開上)
 * 「 」(蟹泥合去)-----奴對切-----內(壘泥開去)
 「催」(蟹清合平)-----倉回切-----崔(壘清合平)
 「櫛」(蟹心合如)-----仕懷切-----臙(蟹合穿如)
 * 「揆」(蟹稔合上)-----儒佳切-----麩(壘稔合如)
 「得」(壘端開上)-----多則切-----德(拙端開去)
 * 「賊」(壘精開如)-----昨則切-----蟹(拙精開如)
 「嶼」(効溪開如)-----古勞切-----高(効見開平)
 「缶」(効幫合上)-----方久切-----否(流非撮上)
 「鑿」(効精開如)-----在各切-----昨(果精合如)
 「 」(効心開如)-----蘇遭切-----騷(効心開平)
 「焯」(効照開如)-----之若切-----灼(果照開如)
 「儺」(果泥開如)-----諾何切-----那(果泥合如)
 * 「 」(果心開如)-----亡沼切-----眇(効明齊上) ※ 「 」는 眇와 같은 字³²⁾
 * 「 」(果心開如)-----彌笑切-----妙(効明齊去) ※ 眇의 또다른 切語
 「黻」(果穿合上)-----直角切-----濁(果照合如)
 * 「劓」(假溪開平)-----苦洽切-----招(假溪齊平)
 「劓」(假溪開平)-----若洽切-----恰(假溪齊去)
 「 」(假非撮上)-----方乏切-----法(假非撮去)
 「納」(假泥合去)-----奴荅切-----納(假泥開去)
 「籬」(假精開上)-----七盍切-----雜(假精開如)
 「磔」(假清開平)-----七曷切-----擦(假清開去)
 「薩」(假心開平)-----桑葛切-----殺(假審開去)

30) 劉英璉,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 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7年

31) ‘ 「 」 ’안의 字는 《圖經》에서 陰刻字로 되어 있는 것이며, 가운데 부분은 反切을, 우측의 字는 《圖經》에서 陽刻字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의 字는 해당자의 《圖經》에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3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 74年 참조

- 「撒」(假心開上)-----桑葛切-----殺(假審開去)
「斜」(假心齊如)-----徐嗟切-----邪(拙心齊如)
「擱」(假稔合如)-----奴禾切-----掇(拙稔合如)
* 「蛇」(假審開如)-----託何切-----拖(果透合平), 他(假透開平)
「呵」(假曉開平)-----虎何切-----訶(果曉開平)
「擱」(拙見齊上)-----佳買切-----解(解見齊上)
「擱」(拙見撮平)-----其月切-----掘(拙見撮如)
「貼」(拙透齊平)-----他協切-----帖(拙透齊去)
「帖」(拙透齊上)-----他協切-----帖(拙透齊去)
「批」(拙幫齊上)-----匹迷切-----批(止滂齊平)
「瞥」(拙滂齊平)-----普蔑切-----撇(拙滂齊去)
* 「拈」(拙滂齊上)-----薄侯切-----裒(流滂合如) ※ 「拈」는 拈의 譌字
「陷」(臻透開平)-----吐根切-----吞(臻透合平)
「洒」(臻心開上)-----先禮切-----洗(止心齊上)
「斲」(臻穿合去)-----徒渾切-----屯(臻透合如)
「咎」(山精開如)-----子感切-----咎(山精開上)
「抗」(宕溪開如)-----古郎切-----岡(宕見開平)
* 「蹇」(宕端齊上)-----多朗切-----蹇(宕端開上) ※ 「蹇」는 蹇과 音同 :
《字彙補》
「擱」(流精齊如)-----卽由切-----摯(流精齊平)
「抽」(流照開如)-----丑鳩切-----抽(流穿開平)

※ ‘*’ 표시는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에서 《廣韻》과 《集韻》에 수록되지도 않고, 陽刻字와 中古切語도 다른 陰刻字로서 俗音처리를 하고 있는 字 중에서 切語의 내원을 찾을 수 있었던 字를 나타낸다.

▶ 한 글자가 陽刻과 陰刻 두 형태를 보이는 字

「嚼」 「卓」 「阿」 「搭」 「白」 「黑」 「勒」 「些」 「寫」 「啜」 「雪」

▶ 기타

다른 몇몇 陰刻字는 위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字이며, 아래는 그 字의 反切이다.

- 「鱣」 : 《廣韻》《正韻》《集韻》《韻會》書容切----- 冬, 平聲
「腫」 : 《廣韻》之隴切----- 腫, 上聲
「種」 : 《集韻》儲用切----- 宋, 平聲
《集韻》常容切----- 冬, 平聲

《廣韻》直容切《集韻》傳容切-----冬，平聲
 《廣韻》尺容切-----冬，平聲
 「柀」：《廣韻》似慈切《唐韻》《集韻》《韻會》《正韻》詳茲切-----支，平聲
 「𩇛」：《篇海類編》在余切-----魚，平聲
 「俗」：《廣韻》似足切《集韻》《韻會》《正韻》松玉切-----沃，入聲
 「噏」：《廣韻》《集韻》古祿切-----屋，入聲
 「攸」：《集韻》式竹切-----屋，入聲
 「育」：《廣韻》《正韻》余六切-----屋，入聲
 「謦」：《廣韻》《集韻》九輦切《集韻》《韻會》九件切-----銑，上聲
 《集韻》《韻會》紀偃切-----院，上聲
 「扮」：《廣韻》《正韻》房吻切《集韻》《韻會》父吻切-----吻，上聲
 《廣韻》府文切《集韻》方文切-----文，平聲
 《廣韻》方吻切《集韻》府吻切-----粉，上聲
 《集韻》敷文切-----文，平聲
 《廣韻》哺幻切《集韻》傅幻切-----諫，去聲
 《廣韻》花夥切《集韻》虎買切-----蟹，上聲
 「擗」：《五音類聚》山律切
 《字彙》朔律切-----質，入聲
 「給」：《廣韻》《正韻》居立切《集韻》《韻會》訖立切-----緝，入聲
 《集韻》極業切-----葉，入聲
 《集韻》於業切-----葉，入聲
 《集韻》轄夾切-----洽，入聲
 「副」：《集韻》紕延切-----先，平聲
 「眚」：《廣韻》許規切《集韻》翺規切-----支，平聲
 《集韻》玄圭切-----齊，平聲
 《廣韻》許維切《集韻》呼維切-----支，平聲
 《廣韻》息爲切《集韻》宣爲切-----髓，平聲
 《集韻》涓惠切-----霽，去聲
 《集韻》於避切-----寘，去聲
 「鏹」：《廣韻》居縛切《集韻》《韻會》《正韻》厥縛切-----樂，入聲
 「霫」：《廣韻》蒲角切《集韻》《韻會》《正韻》弼角切-----覺，入聲
 《集韻》蒲沃切-----沃，入聲
 「斲」：《廣韻》陟玉切《集韻》《韻會》株玉切-----玉，入聲
 《五音集韻》之角切-----覺，入聲
 「縛」：《廣韻》符鏹切《集韻》《韻會》伏約切-----藥，入聲
 《廣韻》《集韻》《韻會》《正韻》符臥切-----箇，去聲

	《集韻》符遇切-----	遇, 去聲
「剗」:	《廣韻》虛郭切《集韻》忽郭切-----	藥, 入聲
	《集韻》黃郭切-----	藥, 入聲
	《集韻》胡麥切-----	陌, 入聲
「蛤」:	《廣韻》《正韻》古沓切《集韻》葛合切-----	合, 入聲
	※ 같은 陰刻字인 「合」도 같은 古沓切, 葛合切	
「嘔」:	《篇海》子答切-----	合, 入聲
「𠵼」:	《五音集韻》烏郎切《篇海》烏剛切-----	陽, 平聲
「瞰」:	《字彙》敕列切-----	屑, 入聲
「合」:	《廣韻》侯閤切《集韻》《韻會》曷閤切《正韻》胡閤切-----	合, 入聲
	《廣韻》《正韻》古沓切《集韻》《韻會》葛合切-----	合, 入聲
「𠵼」:	《廣韻》良涉切《集韻》力涉切-----	盍, 入聲
「𠵼」:	《廣韻》《集韻》《韻會》胡化切-----	, 去聲
「發」:	《廣韻》《集韻》《韻會》《正韻》方伐切-----	月, 入聲
	《集韻》《正韻》北末切-----	曷, 入聲
「佞」:	《廣韻》《集韻》《韻會》直立切-----	緝, 入聲
	《莊子釋文》於十切-----	緝, 入聲
「斃」:	《廣韻》《集韻》毗祭切-----	霽, 去聲
「噎」:	《廣韻》烏結切《集韻》《韻會》一結切-----	屑, 入聲
	《集韻》益悉切-----	質, 入聲
	《集韻》壹計切-----	霽, 上聲
	《類篇》乙界切-----	卦, 去聲
「噎」:	《廣韻》《集韻》《韻會》於月切-----	月, 入聲
	《廣韻》《集韻》《韻會》乙劣切-----	屑, 入聲
	《廣韻》呼會切《集韻》《韻會》呼外切-----	泰, 去聲
	《集韻》《韻會》呼惠切-----	霽, 去聲
	《集韻》《韻會》許穢切-----	遂, 去聲
「拈」:	《集韻》佗恨切-----	願, 去聲
「𠵼」:	《廣韻》毗養切-----	養, 上聲
「濃」:	《集韻》匿講切-----	講, 上聲
「饑」:	《廣韻》女江切《集韻》濃江切-----	江, 平聲
「𠵼」:	《搜眞玉鏡》彌久切	
「𠵼」:	《集韻》下介切-----	卦, 去聲

※ 「𠵼」, 「𠵼」, 「𠵼」, 「𠵼」, 「𠵼」, 「𠵼」, 「𠵼」, 「𠵼」 : 《廣韻》·
《集韻》·《中文大辭典》에 수록되지 않은 字

Ⅲ. 聲 母³³⁾

1. 雙脣塞·鼻音 및 脣齒擦音

1) 幫母

《圖經》의 幫母字는 中古의 幫母와 全濁並母 仄聲字가 合류된 것이며, 並母 仄聲字는 《圖經》에서 幫母 如·去聲에 배열되었는데, 이것은 濁音清化 때문이다. 《中原音韻》에서는 /p-/이다.

(一) 中古의 幫母에서 온 것

<平>兵	: 通, 齊齒; 梗開三平庚幫, 甫明切	pjæŋ	piəŋ	piŋ
崩	: 通, 合口; 曾開一平登幫, 北勝切	pəŋ	pəŋ	pəŋ
逋	: 祝, 合口; 遇合一平模幫, 博孤切	puo	pu	pu
擘	: 蟹, 合口; 梗開二入麥幫, 傅厄切(●) ³⁴⁾	puæk	pai	pai/puo
盃	: 壘, 開口; 蟹合一平灰幫, 布回切	puAi		pei
標	: 効, 齊齒; 効開三平宵幫, 甫遙切	pjæu	piəu	piəu
包	: 効, 合口; 効開二平肴幫, 布交切	pau	pau	pau
波	: 果, 合口; 果合一平戈幫, 博禾切	puɑ	puo	puo
巴	: 假, 合口; 假開二平麻幫, 伯加切	pa	pa	pa
賓	: 臻, 齊齒; 臻開三平眞幫, 必鄰切	pjen	piən	pin
奔	: 臻, 合口; 臻合一平魂幫, 博昆切	puən	pən	pən
邊	: 山, 齊齒; 山開四平先幫, 布玄切	piɛn	pien	pian
班	: 山, 合口; 山開二平刪幫, 布還切	pan	pan	pan
邦	: 宕, 合口; 江開二平江幫, 博江切	pɔŋ	paŋ	paŋ
彪	: 流, 齊齒; 流開三平幽幫, 甫然切	pjəu	piou	piəu/piou
<上>丙	: 通, 齊齒; 梗開三上梗幫, 補永切	pjæŋ	piəŋ	piŋ
	: 通, 合口; 通合一上董幫, 補孔切	puŋ		pəŋ

33) 《圖經》의 字를 中古音, 《中原音韻》과 먼저 비교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각각 그 아래에 해석을 붙여놓았다. 中古音, 《中原音韻》과의 비교방식은 본고의 제1장 2. 연구범위 및 방법에서 밝혔다.

34) (●)의 부호는 韻母 예외자를 나타낸 것이다.

比	：止，齊齒；止開三上旨幫，卑履切	pjei	pi	pi/pei
補	：祝，合口；遇合一上姥幫，博古切	puo	pu	pu
擺	：蟹，合口；蟹開二上蟹幫，北買切	pæi	pai	pai
北	：壘，開口；曾開一入德幫，博黑切(●)	pəŋ	pei	pei/puo
表	：効，齊齒；効開三上小幫，陂矯切	pjæu	piau	piau
保	：効，合口；効開二上皓幫，博抱切	pau	pau	pau
跛	：果，合口；果合一上果幫，布火切	puɑ	puo	puo
把	：假，合口；假開二上馬幫，博下切	pa	pa	pa
膈	：臻，齊齒；臻開三上軫幫，逋忍切	pjen		pin
本	：臻，合口；臻合一上混幫，布忖切	puən	pən	pən
扁	：山，齊齒；山開四上銑幫，方典切	piɛn	pien	pian
板	：山，合口；山開二上澆幫，布縮切	pan	pan	pan
榜	：宕，合口；宕開一上蕩幫，北朗切	paŋ	paŋ	paŋ
搯	：流，合口；流開一上厚幫，方垢切	pu		pou/pu/pau

<去>迸	：通，合口；梗開二去諍幫，北諍切	pæŋ	puəŋ	pəŋ
必	：止，齊齒；臻開三入質幫，卑吉切	pjet	pi	pi
布	：祝，合口；遇合一去暮幫，博故切	puo	pu	pu
拜	：蟹，合口；蟹合二去怪幫，博怪切	pɛi	pai	pai
貝	：壘，開口；蟹開一去泰幫，博蓋切(●)	pai	pei	pei
俵	：効，齊齒；効開三去笑幫，方廟切	pjæu	piau	piau
報	：効，合口；効開一去号幫，博耗切	pau	pau	pau
博	：果，合口；宕開一入鐸幫，補各切	paɤ		puo/pau
霸	：假，合口；假開二去禡幫，必駕切	pa	pa	pa
鰲	：拙，齊齒；山開三入薛幫，並列切	pjæt		pie
百	：拙，合口；梗開二入陌幫，博陌切(●)	pɛk	pai	pai/puo
擯	：臻，齊齒；臻開三去震幫，必刃切	pjen		pin
變	：山，齊齒；山開三去線幫，彼眷切	pjæn	pien	pian
半	：山，合口；山合一去換幫，博幔切	puan	pon	pan
謗	：宕，合口；宕開一去宕幫，補曠切	paŋ	paŋ	paŋ

(二) 中古의 並母 仄聲에서 온 것

<去>並	：通，齊齒；梗開四上迥並，蒲迥切	b'ieŋ	piəŋ	piŋ
仝	：臻，合口；臻合一去恩並，蒲悶切	b'uən		pən
35) 流	：流，合口；流開一去候並，蒲候切	b'u		pou

<如>鼻	：止，齊齒；止開三去至並，毗至切	b'jei	pi	pi/pei
𪔐	：祝，合口；臻合一入沒並，蒲沒切	b'uət		pu/puo
箔	：壘，合口；宕開一入鐸並，傍各切	b'ak	po	puo/pau
拔	：假，合口；山開二入黠並，蒲八切	b'æt	pa	pa
別	：拙，齊齒；山開三入薛並，皮列切	b'jæt	pie	pie
白	：拙，合口；梗開二入陌並，傍陌切(●)	b'æk	pai	pai/puo

▶ 中古의 幫母字는 《圖經》에서도 幫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必·擘·北·博·鰲·百」이 있는데, 그 중 「必·博·鰲·百」은 《圖經》에서 去聲에, 「擘」은 平聲에, 「北」은 上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並母 仄聲字는 《圖經》에서 幫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上聲字 「並」은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去聲字는 「盆·鼻」가 있는데, 「盆」은 《圖經》에서 去聲에, 「鼻」는 如聲에 배열되었다.
3. 中古의 入聲字는 「𪔐·箔·拔·別·白」이 있으며,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滂母

《圖經》의 滂母字는 中古의 滂母와 全濁並母 平聲字가 합류된 것이며, 並母 平聲字는 滂母 如聲에 배열되었는데 이것은 濁音清化때문이다. 《中原音韻》에서는 /p'-/이다.

(一) 中古의 滂母에서 온 것

<平>砵：通，齊齒；梗開二平耕滂，普耕切 p'æŋ p'əŋ

35) 이 字는 劉英璉,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7年)에서 中古에 蒲口切, 流開一上厚並이라 분석하고 있는데,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으며 의미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流開一去候並, 蒲候切을 따른다.

烹	: 通, 合口 ; 梗開二平庚滂, 撫庚切	p'ɛŋ	p'əŋ	p'əŋ
批	: 止, 齊齒 ; 蟹開四平齊滂, 匹迷切	p'ɛi	p'i	p'i
鋪	: 祝, 合口 ; 遇合一平模滂, 普胡切	p'uo	p'u	p'u
	: 蟹, 合口 ; 蟹開二平皆滂, 匹埋切	p'ɛi		p'ai
丕	: 壘, 開口 ; 止開三平脂滂, 敷悲切(●)	p'jei	p'ei	p'i/pei
漂	: 効, 齊齒 ; 効開三平宵滂, 撫招切	p'jæu	p'iau	p'iau
胞	: 効, 合口 ; 効開二平肴滂, 匹交切	p'au	p'au	p'au
坡	: 果, 合口 ; 果合一平戈滂, 滂禾切	p'ua	p'uo	p'uo
葩	: 假, 合口 ; 假開二平麻滂, 普巴切	p'a	p'a	p'a
別	: 臻, 齊齒 ; 臻開三平眞滂, 披巾切	p'jen		p'in
噴	: 臻, 合口 ; 臻合一平魂滂, 普魂切	p'uət	p'an	p'an
偏	: 山, 齊齒 ; 山開三平仙滂, 芳連切	p'jæn	p'ien	p'ian
潘	: 山, 合口 ; 山合一平桓滂, 普官切	p'uɑn	p'on	p'an
	: 宕, 合口 ; 江開二平江滂, 匹江切	p'ɔŋ		p'aŋ
桴	: 流, 合口 ; 流開一平侯滂, 普溝切	b'u		p'ou

<上>頰	: 通, 齊齒 ; 梗開四上迥滂, 匹迥切	p'ien		p'ijŋ
普	: 祝, 合口 ; 遇合一上姥滂, 滂古切	p'uo		p'u
?	: 蟹, 合口 ;			
啡	: 壘, 開口 ; 蟹開一上海滂, 匹愷切(●)	p'ʌi		p'ei
瞍	: 効, 齊齒 ; 効開三上小滂, 敷沼切	p'jæu		p'iau
翻	: 効, 合口 ; 効開一上皓滂, 滂保切	p'au		p'au
頗	: 果, 合口 ; 果合一上戈滂, 普火切	p'ua	p'uo	p'uo
𩑦 ³⁶⁾	: 假, 合口 ; 假開二上馬滂, 匹馬切	p'a		p'a
品	: 臻, 齊齒 ; 深開三上寢滂, 丕飲切	p'jem	p'ien	p'in
栩	: 臻, 合口 ; 臻合一上混滂, 普本切	p'uən		p'an
販	: 山, 合口 ; 山合二上澆滂, 普板切	p'uɑn		p'an
剖	: 流, 合口 ; 流開一上厚滂, 普后切	p'u	p'ou	p'ou

<去>砵	: 通, 齊齒 ; 曾開三平蒸滂, 披冰切(▲) ³⁷⁾	p'jɛŋ		p'ijŋ
磬	: 通, 合口 ; 梗開二去映滂, 普孟切	p'ɛŋ		p'əŋ
譬	: 止, 齊齒 ; 止開三去寘滂, 匹賜切	p'je		p'i/pei
撲	: 祝, 合口 ; 通合一入屋滂, 普木切	p'uk	p'u	p'u

36) 《玉篇》의 反切

37) (▲)의 부호는 聲母예외자를 나타낸다.

派	: 蟹, 合口 ; 蟹合二去卦滂, 匹卦切	p'æi	p'ai	p'ai
配	: 壘, 開口 ; 蟹合一去遂滂, 滂佩切	p'uAi	p'ei	p'ei
泡	: 効, 合口 ; 効開二平肴滂, 匹交切(▲)(●)	p'au	p'au	p'au
破	: 果, 合口 ; 果合一去過滂, 普過切	p'ua	p'uo	p'uo
怕	: 假, 合口 ; 假開二去禡滂, 普駕切	p'a	pa	p'a
	: 拙, 齊齒 ; 山開四入屑滂, 普蔑切	p'iet	p'ie	p'ie
拍	: 拙, 合口 ; 梗開二入陌滂, 普伯切(●)	p'ek	p'ai	p'ai/puo
聘	: 臻, 齊齒 ; 梗開三去勁滂, 匹正切(●)	p'jɛŋ	p'iɛŋ	p'iŋ
吩	: 臻, 合口 ; 臻合一去恩滂, 普悶切	p'uən		p'ən
片	: 山, 齊齒 ; 山開四去霰滂, 普麵切	p'ien	p'ien	p'ian
判	: 山, 合口 ; 山合一去換滂, 普半切	p'uan	p'on	p'an
胖	: 宕, 合口 ; 山合一去換滂, 普半切(●)	p'uan	p'on	p'an
	: 流, 合口 ; 流開一去候滂, 匹候切	p'u		p'ou

(二) 中古의 並母 平聲에서 온 것

<上>諱³⁸⁾: 山, 齊齒 ; 山開三平仙並, 房連切(▲) b'jæn p'ien p'ie
 𠵽 : 宕, 合口 ; 宕開一平唐並, 步光切(▲) b'aŋ p'uo/pau

<如>平	: 通, 齊齒 ; 梗開三平庚並, 符兵切	b'jɛŋ	p'iɛŋ	p'iŋ
朋	: 通, 合口 ; 曾開一平登並, 步崩切	b'aŋ	p'aŋ	p'aŋ
皮	: 止, 齊齒 ; 止開三平支並, 符羈切	b'je	p'ei	p'i/pei
蒲	: 祝, 合口 ; 遇合一平模並, 薄胡切	b'uo	p'u	p'u
牌	: 蟹, 合口 ; 蟹開二平佳並, 薄佳切	b'æi	p'ai	p'ai
陪	: 壘, 開口 ; 蟹合一平灰並, 薄回切	b'uAi	p'ei	p'ei
瓢	: 効, 齊齒 ; 効開三平宵並, 符霄切	b'jæu	p'iau	p'iau
袍	: 効, 合口 ; 効開一平豪並, 薄褒切	b'au	p'au	p'au
婆	: 果, 合口 ; 果合一平戈並, 薄波切	b'ua	puo	p'uo
杷	: 假, 合口 ; 假開二平麻並, 蒲巴切	b'a	p'a	p'a
貧	: 臻, 齊齒 ; 臻開三平眞並, 符巾切	b'jen	p'iɛn	p'in
盆	: 臻, 合口 ; 臻合一平魂並, 蒲奔切	b'uən	pən	p'ən
胼	: 山, 齊齒 ; 山開四平先並, 部田切	b'ien	p'ien	p'ian

38) 《廣韻》에 「房連切」 「符蹇切」 「符善切」, 《集韻》에 「婢善切」 「蒲眠切」 「平免切」 등이 있는데, 「房連切」만 並母 平聲이고 나머지는 모두 並母 上聲이다.

盤	: 山, 合口 ; 山合一平桓並, 薄官切	b'uan	p'on	p'an
龐	: 宕, 合口 ; 江開二平江並, 薄江切	b'ɔŋ	p'aŋ	p'aŋ
滂	: 流, 齊齒 ; 流開三平幽並, 皮彪切	b'jæu		p'iau/p'iou
裒	: 流, 合口 ; 流開一平侯並, 薄侯切	b'u	p'ou	p'ou

(기타)

<上>龠 ³⁹⁾	: 通, 合口 ; 江開二入覺娘, 女角切(▲)	nɔk		nuo/nau
痞 ⁴⁰⁾	: 止, 齊齒 ; 止開三上旨並, 符鄙切(▲)	b'jei	pi	pi/pei
<去>票	: 効, 齊齒 ; 効開三去笑並, 毗召切(▲)	b'jæu		piau

▶ 中古의 滂母字는 《圖經》에서도 滂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단, 通攝 開口篇 「砵」字와 効攝 合口篇 「泡」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撲·撇·拍」이 있으며,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並母 平聲字는 《圖經》에서 滂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諱·踴」字는 《圖經》에서 上聲에 배열되었다.
그리고, 기타 「龠·痞·票」예외자가 있다.

3) 明母

《圖經》의 明母字는 中古의 次濁明母字에서 왔으며, 《中原音韻》에서는 /m-/이다.

<平>漣 ⁴¹⁾	: 臻, 合口 ; 臻合一去恩明, 莫困切(▲)(●)	muən	mən(去)	mon(上)	mən
---------------------	-----------------------------	------	--------	--------	-----

39) 《漢語大字典》(총8권,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88)에 보면, 《江併四聲篇海·手部》引《搜眞玉鏡》: “龠, 音擗”이라 되어 있다. 「擗」은 江開二入覺娘, 女角切이다. 또한, 《合併字學集韻》에는 “兩手持物”이라 한 것으로 보아 ‘拿’와 의미가 비슷하다.

40) 《廣韻》에 「止開三上旨並, 符鄙切」, 「止開三上旨幫, 方美切」, 《集韻》에 「止開三上紙旨幫, 補美切」 등이 있으나 「止開三上旨並, 符鄙切」을 따른다.

<上>茗	: 通, 齊齒 ; 梗開四上迥明, 莫迥切	mien	miəŋ	miŋ
猛	: 通, 合口 ; 梗開二上梗明, 莫杏切	mɛŋ	muŋ	məŋ
米	: 止, 齊齒 ; 蟹開四上齊明, 莫禮切	miɛi	mi	mi
母	: 祝, 合口 ; 流開一上厚明, 莫厚切	mu	mu	mu
買	: 蟹, 合口 ; 蟹開二上蟹明, 莫蟹切	mæi	mai	mai
每	: 壘, 開口 ; 蟹合一上賄明, 武罪切	muAi		mei
眇	: 効, 齊齒 ; 効開三上小明, 亡沼切	mjæu	miau	miau
卯	: 効, 合口 ; 効開二上巧明, 莫飽切	mau		mau
抹	: 果, 合口 ; 山合一入末明, 莫撥切	muət	muo	muo
馬	: 假, 合口 ; 假開二上馬明, 莫下切	ma	ma	ma
乜	: 拙, 齊齒 ; 假開三上馬明, 彌也切	mja		mie
敏	: 臻, 齊齒 ; 臻開三上軫明, 眉殞切	mjen	miən	min
愧	: 臻, 合口 ; 臻合一上混明, 母本切	muən		mən
免	: 山, 齊齒 ; 山開三上彌明, 亡辨切	mjæn	mien	mian
滿	: 山, 合口 ; 山合一上緩明, 莫旱切	muən	mon	man
莽	: 宕, 合口 ; 宕開一上蕩明, 模朗切	maŋ	maŋ	maŋ
慄	: 流, 合口 ; 遇合一上姥明, 莫補切	muo		mu

<去>命	: 通, 齊齒 ; 梗開三去映明, 眉病切	mjɛŋ	miəŋ	miŋ
孟	: 通, 合口 ; 梗開二去映明, 莫更切	mɛŋ	muŋ	məŋ
密	: 止, 齊齒 ; 臻開三入質明, 美筆切	mjet	mi	mi
暮	: 祝, 合口 ; 遇合一去暮明, 莫故切	muo	mu	mu
賣	: 蟹, 合口 ; 蟹開二去卦明, 莫懈切	mæi	mai	mai
昧	: 壘, 開口 ; 蟹合一去遂明, 莫佩切	muAi	mei	mei
妙	: 効, 齊齒 ; 効開三去笑明, 彌笑切	mjæu	miau	miau
貌	: 効, 合口 ; 効開二去效明, 莫教切	mau	mau	mau
莫	: 果, 合口 ; 宕開一入鐸明, 慕各切	mək	mo	muo/mau
罵	: 假, 合口 ; 假開二去禡明, 莫駕切	ma	ma	ma
滅	: 拙, 齊齒 ; 山開三入薛明, 亡列切	mjæt	mie	mie
墨	: 拙, 合口 ; 曾開一入德明, 莫北切	mək	mei	mei/muo

41) 「懣」은 中古에 모두 明母 上聲과 去聲이었는데, 《圖經》에서 平聲인 것은 「冀趙의 音」에서 취한 것이며 작자가 이것을 次濁 平聲字의 陰刻字 형식으로 나타내지 않은 것은 작자의 실수로 보여진다(劉英璉,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 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7年 / 陸志韋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愍	： 臻，齊齒； 臻開三去震明， 忙覲切	mjen	miən	min
悶	： 臻，合口； 臻合一去慁明， 莫困切	muən	mən	mən
面	： 山，齊齒； 山開三去線明， 彌箭切	mjæn	mien	mian
慢	： 山，合口； 山開二去諫明， 謨晏切	mɑn	man	man
滂	： 宕，合口； 宕開一去宕明， 莫浪切	mɑŋ	maŋ	maŋ
謬	： 流，齊齒； 流開三去幼明， 靡幼切	mjəu	miou	miau/miou
冪	： 流，合口； 流開一去候明， 莫候切	mu		məŋ
<如>名	： 通，齊齒； 梗開三平清明， 武并切	mjeŋ	miəŋ	miŋ
蒙	： 通，合口； 通合一平東明， 莫紅切	muŋ	muŋ	məŋ
迷	： 止，齊齒； 蟹開四平齊明， 莫兮切	miɛi	mi	mi
模	： 祝，合口； 遇合一平模明， 莫胡切	muo	mu	mu
埋	： 蟹，合口； 蟹開二平皆明， 莫皆切	mei	mai	mai
梅	： 壘，開口； 蟹合一平灰明， 莫杯切	muAi	mei	mei
苗	： 効，齊齒； 効開三平宵明， 武濼切	mjəu	miau	miau
毛	： 効，合口； 効開一平豪明， 莫袍切	mɑu	mɑu	mau
魔	： 果，合口； 果合一平戈明， 莫婆切	muɑ	muo	muo
麻	： 假，合口； 假開二平麻明， 莫霞切	ma	ma	ma
眊	： 拙，齊齒；			
民	： 臻，齊齒； 臻開三平眞明， 彌鄰切	mjen	miən	min
門	： 臻，合口； 臻合一平魂明， 莫奔切	muən	mən	mən
綿	： 山，齊齒； 山開三平仙明， 武延切	mjæn	mien	mian
蠻	： 山，合口； 山開二平刪明， 莫還切	mɑn	man	man
忙	： 宕，合口； 宕開一平唐明， 莫郎切	mɑŋ	maŋ	maŋ
繆	： 流，齊齒； 流開三平尤明， 莫浮切	mju		miau/miou
謀	： 流，合口； 流開三平尤明， 莫浮切(●)	mju	mu	miau/miou

- ▶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明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臻攝 合口篇 「愍」은 《圖經》에서 平聲에 배열되었다.
- ▶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 ▶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 ▶ 中古의 入聲字는 「抹·密·莫·滅·墨」등이 있는데, 「密, 莫, 滅, 墨」은 《圖經》에서 去聲, 「抹」은 上聲에 배열되었다.

4) 非母

《圖經》의 非母字는 中古의 非·奉·敷母가 합류한 것으로 《中原音韻》에서는 /f-/ 이다.

(一) 中古의 非母에서 온 것

<平>封	: 通, 合口 ; 通合三平鍾非, 府容切	fjuoŋ	fuŋ	fəŋ
夫	: 祝, 合口 ; 遇合三平虞非, 甫無切	fjuo	fu	fu
飛	: 壘, 合口 ; 止合三平微非, 甫微切	fjuəi	fei	fei/fuei
分	: 臻, 合口 ; 臻合三平文非, 府文切	fjuən	fən	fan/fuan
方	: 宕, 合口 ; 宕合三平陽非, 府良切	fjuaŋ	faŋ	faŋ/fuaŋ

<上>府	: 祝, 合口 ; 遇合三上麌非, 方矩切	fjuo	fu	fu
匪	: 壘, 合口 ; 止合三上微非, 府尾切	fjuəi		fei/fuei
粉	: 臻, 合口 ; 臻合三上吻非, 方吻切	fjuən	fən	fan/fuan
反	: 山, 合口 ; 山合三上阮非, 府遠切	fjuen	fan	fan/fuan
否	: 流, 合口 ; 流開三上有非, 方久切	fju	fou	fou/fu

<去>福	: 祝, 合口 ; 通合三入屋非, 方六切	fjuk	fu	fu
沸	: 壘, 合口 ; 止合三去未非, 方味切	fjuəi	fei	fei/fuei
鞞 ⁴²⁾	: 果, 撮口 ; 宕合三入樂非, 方縛切	fjuak		fu
法	: 假, 合口 ; 咸合三入乏非, 方乏切	fjuəp	fa	fa
放	: 宕, 合口 ; 宕合三去漾非, 甫妄切	fjuaŋ	faŋ	faŋ/fuaŋ

(二) 中古의 奉母에서 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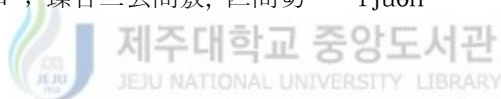
<去>鳳	: 通, 合口 ; 通合三去送奉, 馮貢切	vjuŋ	fuŋ	fəŋ
范	: 山, 合口 ; 咸合三上范奉, 防鏗切	vjuəm	fan	fan/fuan
阜	: 流, 合口 ; 流開三上有奉, 扶缶切	vju		fiau/fiou

42) 《廣韻》에 流開一去候並, 蒲候切과 宕開一入鐸幫, 補各切이 있고, 《集韻》에 宕合三入樂非, 方縛切과 流開三去有奉, 扶富切이 있는데 여기서는 扶富切을 따르는 것이 《圖經》의 聲調 배열의도에 부합한다.

<如>馮	: 通, 合口 ; 通合三平東奉, 房戎切	vjuŋ	fuŋ	fəŋ
扶	: 祝, 合口 ; 遇合三平虞奉, 防無切	vjuo	fu	fu
肥	: 壘, 合口 ; 止合三平微奉, 符非切	vjuəi	fei	fei/fuei
佛	: 果, 撮口 ; 臻合三入物奉, 符弗切	vjuət	fu	fu
乏	: 假, 合口 ; 咸合三入乏奉, 房法切	vjuəp	fa	fa
汾	: 臻, 合口 ; 臻合三平文奉, 符分切	vjuən	fən	fan/fuan
凡	: 山, 合口 ; 咸合三平凡奉, 符 切	vjuəm	fan	fan/fuan
房	: 宕, 合口 ; 宕合三平陽奉, 符方切	vjuɑŋ	faŋ	faŋ/fuaŋ
桴	: 流, 合口 ; 流開三平尤奉, 縛謀切	vju	fu	fiau/fiou

(三) 中古의 數母에서 온 것

<平>番	: 山, 合口 ; 山合三平元敷, 孚袁切	f'juen	fan	fan
秭 ⁴³⁾	: 流, 合口 ; 流開三平尤敷, 匹尤切	f'ju		fiau/fiou
<上>捧	: 通, 合口 ; 通合三上腫敷, 敷奉切	f'juoŋ	puŋ	fəŋ
訪	: 宕, 合口 ; 宕合三去漾敷, 敷亮切	f'juɑŋ	faŋ	faŋ/fuaŋ
<去>忿 ⁴⁴⁾	: 臻, 合口 ; 臻合三去問敷, 匹問切	f'juən		fən/fuən



▶ 中古의 非母字는 《圖經》에서도 非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으로 귀납되었다.

▶ 中古의 奉母字는 《圖經》에서 非母 如·去聲에 배열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 「佛·乏」은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數母字는 近代에 非와 數가 합류되었기 때문에 《圖經》에서 非母로

43) 《廣韻》에 「芳婦切」「匹尤切」「敷悲切」「匹鄙切」, 《集韻》에 「普鄙切」 등이 있다.

44) 《廣韻》에는 「臻合三去問敷, 匹問切」, 「臻合三上吻敷, 敷粉切」이라 되어 있고, 《集韻》에는 「臻合三上吻奉, 父吻切」이라 되어 있다. 《國音中古音對照表》(臺北, 廣文編譯所, 廣文書局, 民國 71年)에는 《集韻》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方言과 부합하지 않고 있어 「憤」과 同音인 이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은 「臻合三去問敷, 匹問切」이 《圖經》의 聲調 배열의도에 부합하므로 이것을 따른다.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忿·訪」이 있는데, 「忿」은 《圖經》에서도 去聲에, 「訪」字는 《圖經》에서 上聲에 배열되었다.

2. 舌尖塞·鼻音 및 邊音

1) 端母

《圖經》의 端母字는 中古의 端母와 全濁定母 仄聲字가 합류된 것으로, 中古의 定母 仄聲字는 《圖經》에서 端母 如聲과 去聲에 배열되었는데 이것은 濁音清化로 생긴 것이다. 《中原音韻》에서는 /t-/에 해당한다.

(一) 中古의 端母에서 온 것

<平>登	: 通, 開口 ; 曾開一平登端, 都滕切	təŋ	təŋ	təŋ
丁	: 通, 齊齒 ; 梗開四平青端, 當經切	tiəŋ	tiəŋ	tiŋ
東	: 通, 合口 ; 通合一平東端, 德紅切	tuŋ	tuŋ	tuŋ
低	: 止, 齊齒 ; 蟹開四平齊端, 都奚切	tiɛi	ti	ti
都	: 祝, 合口 ; 遇合一平模端, 當孤切	tuo	tu	tu
堆	: 壘, 合口 ; 蟹合一平灰端, 都回切	tuAi	tuei	tuei
刀	: 効, 開口 ; 効開一平豪端, 都牢切	tau	tau	tau
貂	: 効, 齊齒 ; 効開四平蕭端, 都聊切	tiəu	tiau	tiau
多	: 果, 合口 ; 果開一平歌端, 得何切	tua	tuo	tuo
爹 ⁴⁵⁾	: 拙, 齊齒 ; 假開三平麻端, 丁邪切	tja		tie
敦	: 臻, 合口 ; 臻合一平魂端, 都昆切	tuən	tuən	tuan
丹	: 山, 開口 ; 山開一平寒端, 都寒切	tan	tan	tan
掂	: 山, 齊齒 ; 咸開四平添端, 丁兼切	tiəm	tiem	tian
耑	: 山, 合口 ; 山合一平桓端, 多官切	tuan	ton	tuan
權	: 山, 撮口 ; 山合三平仙端, 丁全切	tjuæn		tan/tuan
當	: 宕, 開口 ; 宕開一平宕端, 丁浪切	taŋ	taŋ	taŋ
兜	: 流, 開口 ; 流開一平侯端, 當侯切	tu	tou	tou

45) 《洪武正韻》의 反切

丟	: 流, 齊齒; 流開三平尤端, 丁羞切	tju		tiou/tiau
<上>等	: 通, 開口; 曾開一上等端, 都肯切	təŋ	təŋ	təŋ
頂	: 通, 齊齒; 梗開四上迥端, 都挺切	tiəŋ	tiəŋ	tiŋ
董	: 通, 合口; 通合一上董端, 多動切	tuŋ	tuŋ	tuŋ
獠	: 通, 撮口; 通合三上腫端, 都勇切	tjuoŋ		tuŋ
底	: 止, 齊齒; 蟹開四上齊端, 都禮切	tiɛi	ti	ti
覩	: 祝, 合口; 遇合一上姥端, 當古切	tuo	tu	tu
歹 ⁴⁶⁾	: 蟹, 開口; 蟹開一上海端, 等在切	tAi		tai
	: 壘, 合口; 蟹合一上賄端, 都罪切	tuAi		tuei
島	: 効, 開口; 効開一上皓端, 都皓切	tau	tau	tau
	⁴⁷⁾ : 効, 齊齒; 効開四上篠端, 都了切	tiɛu		tiau
羶	: 果, 開口; 果開一上哿端, 丁可切	ta	tan	tuo
朶	: 果, 合口; 果合一上果端, 丁果切	tua	tuo	tuo
打	: 假, 開口; 梗開二上梗端, 德冷切(●)	təŋ	ta	ta
哆	: 拙, 齊齒; 果開一上哿端, 丁加切	ta	tʃ'ie	tuo
枕	: 山, 開口; 咸開一上感端, 都感切	tAm		tan
典	: 山, 齊齒; 山開四上銑端, 多珍切	tiɛm	tiɛm	tian
短	: 山, 合口; 山合一上緩端, 都管切	tuan	ton	tuan
党	: 宕, 開口; 宕開一上蕩端, 多朗切	taŋ	taŋ	taŋ
斗	: 流, 開口; 流開一上厚端, 當口切	tu	tou	tou
<去>的	: 止, 齊齒; 梗開四入錫端, 都歷切	tiek	ti	ti
帶	: 蟹, 開口; 蟹開一去泰端, 當蓋切	tai	tai	tai
對	: 壘, 合口; 蟹合一去隊端, 徒對切	tuAi	tuei	tuei
到	: 効, 開口; 効開一去号端, 都導切	tau	tau	tau
吊	: 効, 齊齒; 効開四去嘯端, 多嘯切	tiɛu	tiau	tiau
驪	: 果, 開口; 果開一去箇端, 丁賀切	ta		tuo
荅	: 假, 開口; 咸開一入合端, 都合切	tAp		ta
德	: 拙, 開口; 曾開一入德端, 多則切	tək	tei	ty/tei
喋	: 拙, 齊齒; 咸開四入帖端, 丁愜切	tiɛp	tie	tie
店	: 山, 齊齒; 咸開四去忝端, 都念切	tiɛm	tiɛm	tian
斷	: 山, 合口; 山合一去換端, 徒管切	tuan	ton	tuan

46) 《說文長箋》의 反切字이다. 《廣韻》《五音集韻》에서는 「五割切」, 《集韻》에는 「牙葛切」로 山開一入曷疑 字가 된다.

47) 《五音集韻》의 反切

(二) 中古의 定母에서 온 것

<去>鄧	: 通, 開口 ; 曾開一去嶝定, 唐亘切	d'əŋ	təŋ	təŋ
定	: 通, 齊齒 ; 梗開四去徑定, 徒徑切	d'ieŋ	tiəŋ	tiŋ
動	: 通, 合口 ; 通合一上董定, 徒摠切	d'uŋ	tuŋ	tuŋ
杜	: 祝, 合口 ; 遇合一上姥定, 徒古切	d'uo	tu	tu
惰	: 果, 合口 ; 果合一去過定, 徒臥切	d'ua	tuo	tuo
困	: 臻, 合口 ; 臻合一上混定, 徒損切	d'uən	tən	tuan
但	: 山, 開口 ; 山開一上旱定, 徒旱切	d'an	tan	tan
宕	: 宕, 開口 ; 宕開一去宕定, 徒浪切	d'aŋ	taŋ	taŋ
豆	: 流, 開口 ; 流開一去候定, 徒候切	d'u	tou	tou

<如>狄	: 止, 齊齒 ; 梗開四入錫定, 徒歷切	d'iek	ti	ti
獨	: 祝, 合口 ; 通合一入屋定, 徒谷切	d'uk	tu	tu
奪	: 果, 合口 ; 山合一入末定, 徒活切	d'uat	tuo	tuo
達	: 假, 開口 ; 山開一入曷定, 唐割切	d'at	ta	ta
特	: 拙, 開口 ; 曾開一入德定, 徒得切	d'əŋ		tv/tei
牒	: 拙, 齊齒 ; 咸開四入帖定, 徒協切	d'iep	tie	tie

(기타)

<平>黠	: 蟹, 開口 ; 蟹開一平哈疑, 五來切(▲)	ŋAi		ai
黠	: 臻, 合口 ; 臻合三去稭章, 之閏切(▲)	təjuen		tʂuən

▶ 中古의 端母字는 《圖經》에서도 端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的·荅·德·喋」이 있는데 《圖經》에서 모두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定母 仄聲字는 《圖經》에서 端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上聲字는 「動·杜·困·但」이 있으며, 이것은 中古의 全濁定母 上聲字가 《圖經》에서는 端母 去聲에 배열되어 定母 上聲의 변화 규율에 부합하고 있다.

2. 中古의 去聲字는 「定·鄧·惰·宕·豆」가 있는데 모두 濁音清化하여 《圖經》에서 端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3. 中古의 入聲字는 「狄·獨·奪·達·特·牒」이 있는데, 《圖經》에서 모두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默, 盹」字는 예외이다.
1. 「默」字는 中古의 疑母 平聲字이나, 《圖經》에서는 端母 平聲에 배열되었다.
2. 「盹」字는 中古의 照三(章)母 去聲字이나, 《圖經》에서는 端母 上聲에 배열되었다.

2) 透母

《圖經》의 透母字는 中古의 透母와 全濁定母 平聲字가 合류된 것이며, 中古의 全濁定母 平聲字는 《圖經》에서 透母 如聲에 배열되었는데 이것은 濁音清化로 생긴 것이다. 《中原音韻》에서는 /t-/ 이다.

(一) 中古의 透母에서 온 것

<平> 膾	: 通, 開口 ; 曾開一平登透, 他登切	t'æŋ	t'æŋ	t'æŋ
廳	: 通, 齊齒 ; 梗開四平青透, 他丁切	t'ieŋ	t'ieŋ	t'ieŋ
通	: 通, 合口 ; 通合一平東透, 他紅切	t'uŋ	t'uŋ	t'uŋ
梯	: 止, 齊齒 ; 蟹開四平齊透, 土雞切	t'iei	t'i	t'i
禿	: 祝, 合口 ; 通合一入屋透, 他谷切	t'uk	t'u	t'u
胎	: 蟹, 開口 ; 蟹開一平哈透, 土來切	t'ai	t'ai	t'ai
推	: 壘, 合口 ; 蟹合一平灰透, 他回切	t'uAi	t'uei	t'uei
滔	: 効, 開口 ; 効開一平豪透, 討刀切	t'au	t'au	t'au
剌	: 効, 齊齒 ; 効開四平蕭透, 他雕切	t'ieu		t'iau
拖	: 果, 合口 ; 果開一平歌透, 託何切	t'a	t'uo	t'uo
他	: 假, 開口 ; 果開一平歌透, 託何切(●)	t'a	t'uo	t'uo
磻	: 臻, 齊齒 ; 咸開四平添透, 他兼切(●)	t'iem		t'ian
吞	: 臻, 合口 ; 山開四平先透, 他前切(●)	t'ien		t'ian
貪	: 山, 開口 ; 咸開一平覃透, 他含切	t'am	t'am	t'an
天	: 山, 齊齒 ; 山開四平先透, 他前切	t'ien	t'ien	t'ian
湍	: 山, 合口 ; 山合一平桓透, 他端切	t'uən	t'on	t'uan
湯	: 宕, 開口 ; 宕開一平唐透, 吐郎切	t'aŋ	t'aŋ	t'aŋ

儃	：流，開口；流開一平侯透，託侯切	t'u	t'ou	t'ou
<上>統 ⁴⁸⁾	：通，合口；通合一上董透，他總切	t'uon	t'un	t'un
躰	：止，齊齒；蟹開四上齊透，他禮切	t'iei		t'i
土	：祝，合口；遇合一上姥透，他魯切	t'uo	t'u	t'u
嚏	：蟹，開口；蟹開一上海透，他亥切	t'ai		t'ai
腿	：壘，合口；蟹合一上賄透，吐猥切	t'uAi	t'uei	t'uei
討	：効，開口；効開一上皓透，他浩切	t'au	t'au	t'au
挑 ⁴⁹⁾	：効，齊齒；効開四上篠透，土了切	t'ieu		t'iau
妥	：果，合口；果合一上果透，他果切	t'ua	t'uo	t'uo
搭	：假，開口；咸開一入盍透，吐盍切	t'ap	ta	t'a
恬 ⁵⁰⁾	：臻，開口；臻開一上很透，通懇切	t'an		t'uən
⁵¹⁾	：臻，合口；臻合一上混透，他兗切	t'uən		t'uən
毯	：山，開口；咸開一上敢透，吐敢切	t'am	t'am	t'an
忝	：山，齊齒；咸開四上忝透，他玷切	t'iem	t'iam	t'ian
疇	：山，合口；山合一上綏透，吐綏切	t'uən	t'on	t'uan
倘	：宕，開口；宕開一上蕩透，坦朗切	t'aŋ	t'aŋ	t'aŋ
黠	：流，開口；流開一上厚透，天口切	t'u		t'ou
<去>輦	：通，開口；曾開一去嶝透，台鄧切	t'aŋ		t'aŋ
聽	：通，齊齒；梗開四去徑透，他定切	t'ieŋ	t'ieŋ	t'ieŋ
痛	：通，合口；通合一去送透，他貢切	t'uŋ	t'uŋ	t'uŋ
替	：止，齊齒；蟹開四去齊透，他計切	t'iei	t'i	t'i
兎	：祝，合口；遇合一去暮透，湯故切	t'uo	t'u	t'u
泰	：蟹，開口；蟹開一去泰透，他蓋切	t'ai	t'ai	t'ai
退	：壘，合口；蟹合一去隊透，他內切	t'uAi	t'uei	t'uei
套	：効，開口；効開一去号透，叨号切	t'au		t'au
棗	：効，齊齒；効開四去嘯透，他弔切	t'ieu		t'iau
脫	：果，合口；山合一入末透，他括切	t'uat	t'uo	t'uo
榻	：假，開口；咸開一入盍透，吐盍切	t'Ap	t'a	t'a
忒	：拙，開口；曾開一入德透，他德切	t'ək		t'ei/ɣ
帖	：拙，齊齒；咸開四入帖透，他協切	t'iep	t'ie	t'ie

48) 《洪武正韻》의 反切

49) 《洪武正韻》의 反切

50) 《字彙》의 反切

51) 《篇海》의 反切

褪 ⁵²): 臻, 合口 ; 臻合一去恩透, 土困切	t'uən		t'uən
炭 : 山, 開口 ; 山開一去翰透, 他旦切	t'an	t'an	t'an
栎 : 山, 齊齒 ; 咸開四去栎透, 他念切	t'iem		t'ian
象 : 山, 合口 ; 山合一去換透, 通貫切	t'uən	t'on	t'uan
揚 : 宕, 開口 ; 宕開一去宕透, 他浪切	t'ɑŋ		t'uo/t'au
透 : 流, 開口 ; 流開一去候透, 他候切	t'u	t'ou	t'ou

(二) 中古의 定母에서 온 것

<上>挺 : 通, 齊齒 ; 梗開四上迥定, 他鼎切(▲)	d'ien	t'ien	tin
<如>滕 : 通, 開口 ; 曾開一平登定, 徒登切	d'əŋ	t'əŋ	t'əŋ
亭 : 通, 齊齒 ; 梗開四平青定, 特丁切	d'ien	t'ien	t'in
同 : 通, 合口 ; 通合一平東定, 徒紅切	d'uŋ	t'uŋ	t'uŋ
提 : 止, 齊齒 ; 蟹開四平齊定, 杜奚切	d'iei	t'i	t'i
徒 : 祝, 合口 ; 遇合一平模定, 同都切	d'uo	t'u	t'u
臺 : 蟹, 開口 ; 蟹開一平哈定, 徒哀切	d'ai	t'ai	t'ai
頽 : 壘, 合口 ; 蟹合一平灰定, 杜回切	d'uAi	t'uei	t'uei
陶 : 効, 開口 ; 効開一平豪定, 徒刀切	d'au	t'au	t'au
條 : 効, 齊齒 ; 効開四平蕭定, 徒聊切	d'ieu	t'iau	t'iau
陀 : 果, 合口 ; 果開一平歌定, 徒河切	d'a	t'uo	t'uo
屯 : 臻, 合口 ; 臻合一平魂定, 徒渾切	d'uən	tuən	t'uən
談 : 山, 開口 ; 咸開一平談定, 徒甘切	d'am	t'am	t'an
田 : 山, 齊齒 ; 山開四平先定, 徒年切	d'ien	t'ien	t'ian
團 : 山, 合口 ; 山合一平桓定, 度官切	d'uən	t'on	t'uan
唐 : 宕, 開口 ; 宕開一平唐定, 徒郎切	d'ɑŋ	t'ɑŋ	t'ɑŋ
頭 : 流, 開口 ; 流開一平侯定, 度侯切	d'u	t'ou	t'ou

▶ 中古의 透母字는 《圖經》에서도 透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禿·脫·搭·榻·忒·帖」 등이 있는데, 「脫·榻·忒·帖」은 《圖經》에서 去聲, 「禿」은 平聲, 「搭」은 上聲에 배열되었다.

52) 《古今韻會學要》의 反切

▶ 中古의 全濁 定母 平聲字는 《圖經》에서 透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挺」은 예외인데, 이 字는 《廣韻》, 《五音集韻》, 《集韻》, 《洪武定韻》에서 모두 定母 上聲字에 속한다. 定母 上聲字는 近代에 端母 去聲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圖經》에서는 透母 上聲에 배열되어 全濁定母 上聲의 변화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다.

3) 泥母

《圖經》의 泥母字는 中古의 泥·娘 두 母가 합류된 것이며, 中古의 疑母는 완전히 소실되어 零聲母化하였는데 齊齒呼의 字 중 일부가 《圖經》에서 泥母에 귀납되었다. 《中原音韻》에서는 /n-/이다.

(一) 中古의 泥母에서 온 것

<上>ㄤ	：通，開口；曾開一上等泥，奴等切	nəŋ		nəŋ
𪔐	：通，齊齒；梗開四上迥泥，乃挺切	niəŋ		niŋ
𪔑	：通，合口；通合一上董泥，奴動切	nuŋ		nuŋ
你	：止，齊齒；止開三上止泥，乃里切	ni	ni	ni
努	：祝，合口；遇合一上姥泥，奴古切	nuo	nu	nu
乃	：蟹，開口；蟹開一上海泥，奴亥切	nAi	nai	nai
餒	：壘，開口；蟹合一上賄泥，奴罪切	nuAi	nuei	nei
瑙	：効，開口；効開一上皓泥，奴皓切	nau		nau
娜	：果，合口；果開一上哿泥，奴可切	na		nuo
炳	：臻，合口；臻合一上混泥，乃本切	nuən		nuən
𪔒 ⁵³⁾	：山，開口；咸開一上感泥，奴感切	nAm		nan
暖	：山，合口；山合一上緩泥，乃管切	nuan	non	nuan
𪔓 ⁵⁴⁾	：宕，開口；			
𪔔	：宕，齊齒；宕開三上養泥，乃馴切	njaŋ		niaŋ
吼	：流，開口；流開一上厚泥，乃后切	nu		nou

53) 《國語詞典》에 音牖이라 되어 있다.- 《中文大辭典》(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 74年) 인용

54) 《中文大辭典》(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 74年)에 “讀如囊”이라 되어 있으며, 「囊」은 「奴當切」泥母 陽韻 平聲이다.

<去>甯 ⁵⁵⁾	通, 開口 ; 曾開一入德泥, 奴勒切	nək		nŷ/nei
甯	: 通, 齊齒 ; 梗開四去青泥, 奴丁切	nieŋ	niəŋ	niŋ
	: 通, 合口 ; 通合一去送泥, 奴凍切	nuŋ		nuŋ
怒	: 祝, 合口 ; 遇合一去暮泥, 乃故切	nuo	nu	nu
柰	: 蟹, 開口 ; 蟹開一去泰泥, 奴帶切	nai	nai	nai
內	: 壘, 開口 ; 蟹合一去遂泥, 奴對切	nuAi	nuei	nei
鬧	: 効, 開口 ; 效開二去效泥, 奴教切	nau	nau	nau
尿	: 効, 齊齒 ; 效開四去嘯泥, 奴弔切	niɛu	suei	niau
諾	: 果, 開口 ; 宕開一入鐸泥, 奴各切	nək	no	nuo/nau
懦	: 果, 合口 ; 果合一去過泥, 乃臥切	nuɑ	nuo	nuo
納	: 假, 開口 ; 咸開一入合泥, 奴答切	nAp	na	na
	: 拙, 開口 ; 曾開一入德泥, 奴勒切	nək		nŷ/nei
捏	: 拙, 齊齒 ; 山開四入屑泥, 奴結切	niɛt	nie	nie
賃	: 臻, 齊齒 ; 深開三去沁泥, 乃禁切	njem	niəm	nin
嫩	: 臻, 合口 ; 臻合一去慁泥, 奴困切	nuən	nuən	nuən
念	: 山, 齊齒 ; 咸開四去忝泥, 奴店切	niɛm	niem	nian
僂	: 山, 合口 ; 山合一去換泥, 奴亂切	nuan		nuan
驪	: 宕, 開口 ;			

<如>能	: 通, 開口 ; 曾開一平登泥, 奴登切	nəŋ	nəŋ	nəŋ
寧	: 通, 齊齒 ; 梗開四平青泥, 奴丁切	nieŋ	niəŋ	niŋ
農	: 通, 合口 ; 通合一平冬泥, 奴冬切	nuoŋ	nuŋ	nuŋ
泥	: 止, 齊齒 ; 蟹開四平齊泥, 奴低切	niɛi	ni	ni
奴	: 祝, 合口 ; 遇合一平模泥, 乃都切	nuo	nu	nu
蟹	: 蟹, 開口 ; 蟹開一平哈泥, 奴來切	nAi		nai
	: 壘, 合口 ; 蟹合一平灰泥, 奴回切(●)	nuAi		nei
嬈	: 効, 齊齒 ; 効開四平蕭泥, 裏聊切	niɛu		niau
那	: 果, 合口 ; 果開一平歌泥, 諾何切	na	nuo	nuo
湏	: 臻, 合口 ; 臻合一平魂泥, 奴昆切	nuən		nuən
南	: 山, 開口 ; 咸開一平覃泥, 那含切	nAm	nam	nan

55) 《中文大辭典》(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 74年)에 「⁵⁵⁾」과 같은 것이라 되어 있다. 「⁵⁵⁾」은 《廣韻》에 「奴勒切(入聲)」-蟲名과 《集韻》에 「匿德切(入聲)」-蟲名, 「奴等切(上聲)」-蜂類, 《玉篇》에 「乃代切(去聲)」-蜂類이다.

《合併字學集韻》을 보면, 「⁵⁵⁾」은 “飛騰貌”라 되어 있어 위의 어느 것과도 의미는 통하지 않는다.

年	：山，齊齒；山開四平先泥，奴顛切	niɛn	nien	nian
囊	：宕，開口；宕開一平唐泥，奴當切	naŋ	naŋ	naŋ
諛	：流，開口；流開一平侯泥，奴鈎切	nu		nou

(二) 中古의 娘母에서 온 것

<上>女	：止，撮口；遇開三上語娘，尼呂切	njo	niu	ny
鳥 ⁵⁶⁾	：効，齊齒；效開四上篠娘，尼了切	niɛu	niau	niau
	：假，開口；假開二上麻娘，女下切	na		na
您	：臻，齊齒；深開三上寢娘，尼錦切	njem		ni
碾	：山，齊齒；山開三上獮娘，尼展切	njæn	nien	nian
賧	：山，撮口；山合三上獮娘，女軟切	njuæn		nan/nuan
扭	：流，齊齒；流開三上有娘，女久切	nju	niou	niou
<去>匿	：止，齊齒；曾開三入職娘，女力切	njək	ni	ni
	：止，撮口；遇開三去御娘，尼據切	njo		ny
𠵼	：祝，撮口；通合三入屋娘，女六切(●)	njuk		nu/ny
諉	：壘，合口；止合三去寘娘，女恚切(●)	njue		nei
造	：果，齊齒；宕開三入藥娘，女略切	njak		nye/niau
誦	：山，開口；咸開二去陷娘，尼賺切	nɛm	nam	nian
釀	：宕，齊齒；宕開三去養娘，女亮切	njaŋ		niaŋ
耨	：流，開口；流開一去候娘，奴豆切	nu	nou	nou
耨	：流，齊齒；流開三去宥娘，女救切	nju		niou
<如>枷	：止，撮口；遇開三平魚娘，女余切	njo		ny
撓	：効，開口；效開二平效娘，尼交切	nau	nau	nau
拿	：假，開口；假開二平麻娘，女加切	na		na
紉	：臻，齊齒；臻開三平眞娘，女鄰切	njen	niən	nin
媯	：山，合口；山合二平刪娘，女還切	nuan		nuan
孃	：宕，齊齒；宕開三平陽娘，女良切	njaŋ		niaŋ
猥	：宕，合口；江開二平江娘，女江切	noŋ		nuəŋ

(三) 기타

<如>呆 ⁵⁷⁾	：拙，齊齒；蟹開一平哈疑，五來切	ŋAi		nai
---------------------	------------------	-----	--	-----

56) 《篇海類編》의 反切

牛 : 流, 齊齒 ; 流開三平尤疑, 語求切 ŋju iou niou

▶ 中古의 泥母字는 《圖經》에서도 泥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ㄱ·諾·納·ㄱ·捏」이 있는데, 《圖經》에서는 모두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娘母字는 《圖經》에서 泥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ㄱ·ㄱ·ㄱ·ㄱ」이 있는데, 《圖經》에서는 모두 去聲에 배열되었다.
단, 「ㄱ·牛」는 예외자로, 中古의 疑母 平聲字이다.



4) 來母

《圖經》의 來母字는 中古의 來母에서 왔으며, 《中原音韻》에서는 /l-/ 이다.

<上>冷	: 通, 開口 ; 梗開二上梗來, 魯打切	ləŋ	ləŋ	liŋ
領	: 通, 齊齒 ; 梗開三上靜來, 良郢切	ljɛŋ	liəŋ	liŋ
攏	: 通, 合口 ; 通合一上董來, 力董切	luŋ	luŋ	luŋ
隴	: 通, 撮口 ; 通合三上腫來, 力鍾切	ljuoŋ	liuŋ	luŋ
李	: 止, 齊齒 ; 止開三上止來, 良士切	li	li	li
呂	: 止, 撮口 ; 遇開三上語來, 力舉切	ljo	liu	ly
魯	: 祝, 合口 ; 遇合一上姥來, 郎古切	luo	lu	lu
擷	: 蟹, 開口 ; 山開一入曷來, 盧達切	lat		la
壘	: 壘, 開口 ; 止合三上旨來, 力軌切	ljuei	luei	lei

57) 《辭海》(《中文大辭典》引)에 「呆同𪔐」이라 되어 있고, 「𪔐」는 「五來切」이다. 《集韻》의 「補抱切」은 의미가 保와 같으므로 《合併字學集韻》의 의미와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五來切」을 따르기로 한다.

老	：効，開口；效開一上皓來，盧皓切	lau	lau	lau
了	：効，齊齒；效開四上篠來，盧鳥切	liəu	liəu	liəu
樞	：果，開口；果開一上哿來，來可切	la		luo
裸	：果，合口；果合一上果來，郎果切	lua	luo	luo
喇	：假，開口；山開一入曷來，郎達切	lat		la
藟	：假，齊齒；假開二上馬來，盧下切(●)	la		la
𦉳	：拙，齊齒；假開三上馬來，力者切	lja		lia
凜	：臻，齊齒；深開三上寢來，力稔切	ljem	liəm	lin
輪	：臻，合口；臻合一上混來，魯本切	luən		luən
論	：臻，撮口；臻合三上準來，縷尹切	ljuen		luən
覽	：山，開口；咸開一上敢來，盧敢切	lam	lam	lan
斂	：山，齊齒；咸開三上琰來，力冉切	ljæm(ɐm)	liem	lian
卵	：山，合口；山合一上緩來，盧管切	luan	lon	luan
禿	：山，撮口；山合三上獮來，力兗切	ljæn	lyen	lan/luan
朗	：宕，開口；宕開一上蕩來，盧黨切	laŋ	laŋ	laŋ
兩	：宕，齊齒；宕開三上漾來，良獎切	ljaŋ	liaŋ	liaŋ
篋	：流，開口；流開一上厚來，郎斗切	lu	lou	lou
柳	：流，齊齒；流開三上宥來，力久切	lju	liou	liou

<去>	：通，開口；曾開一去嶮來，魯鄧切	ləŋ		ləŋ
令	：通，齊齒；梗開三去勁來，力政切	ljeŋ	liəŋ	liŋ
弄	：通，合口；通合一去送來，盧貢切	luŋ	luŋ	luŋ
	：通，撮口；通合三去宋來，良用切	ljuoŋ	liuŋ	luŋ
利	：止，齊齒；止開三去至來，力至切	ljei	li	li
律	：止，撮口；臻合三入術來，劣戌切	ljuet	liu	ly
祿	：祝，合口；通合一入屋來，盧谷切	luk	lu	lu
頰	：蟹，開口；蟹開一去泰來，落蓋切	lai		lai
類	：壘，開口；止合三去至來，力遂切	ljuei	luei	lei
潦	：効，開口；効開一去号來，郎到切	lau		lau
料	：効，齊齒；効開四去嘯來，力弔切	liəu	liəu	liəu
絡	：果，開口；宕開一入鐸來，盧各切	lak	lau	luo/lau
畧	：果，齊齒；宕開三入藥來，離灼切	ljak	liəu	lye/liəu
摺	：果，合口；果合一去過來，魯過切	lua	luo	luo
辣	：假，開口；山開一入曷來，盧達切	lat	la	la
粒	：假，齊齒；咸開二入洽來，力洽切(●)	lep		la
勒	：拙，開口；曾開一入德來，盧則切	lək	lie	ly/lei

列	：拙，齊齒；山開三入薛來，良薛切	ljæt	lie	lie
劣	：拙，撮口；山合三入薛來，力輟切	ljuæt	lye	lye
吝	：臻，齊齒；臻開三去震來，良刃切	ljen	liən	lin
論 ⁵⁸⁾	：臻，合口；臻合三平諄來，龍春切(▲)	ljuen		lin
論	：臻，撮口；臻合一去恩來，盧困切(●)	luən	luən	luən
濫	：山，開口；咸開一去闕來，盧瞰切	lɑm	lam	lan
煉	：山，齊齒；山開四去霰來，郎甸切	liən	lien	lian
亂	：山，合口；山合一去換來，郎殷切	luan	lon	luan
戀	：山，撮口；山合三去線來，力卷切	ljuæn	lyen	lan/luan
浪	：宕，開口；宕開一去宕來，來宕切	lɑŋ	laŋ	laŋ
亮	：宕，齊齒；宕開三去養來，力讓切	ljɑŋ	liaŋ	liaŋ
陋	：流，開口；流開一去候來，盧候切	lu	lou	lou
留	：流，齊齒；流開三去宥來，力救切	lju	liou	liou
<如>楞	：通，開口；曾開一平登來，魯登切	ləŋ	ləŋ	ləŋ
伶	：通，齊齒；梗開四平青來，郎丁切	liəŋ	liəŋ	liŋ
籠	：通，合口；通合一平東來，盧紅切	luŋ	luŋ	luŋ
龍	：通，撮口；通合三平鍾來，力鍾切	ljuoŋ	liuŋ	luŋ
梨	：止，齊齒；止開三平脂來，力脂切	ljei	li	li
閻	：止，撮口；遇開三平魚來，力居切	ljo	liu	ly
盧	：祝，合口；遇合一平模來，落胡切	luo	lu	lu
來	：蟹，開口；蟹開一平哈來，落哀切	lAi	lai	lai
牒	：蟹，合口；蟹合二平皆來，力懷切	luəi		luai
雷	：壘，開口；蟹合一平灰來，魯回切	luAi	luei	lei
勞	：効，開口；效開一平豪來，魯刀切	lɑu	lau	lau
僚	：効，齊齒；效開四平蕭來，落蕭切	liəu	liau	liau
羅	：果，合口；果開一平歌來，魯何切	lɑ	luo	luo
羅	：拙，齊齒；假開三平麻來，利遮切	lja		lie
臚	：拙，撮口；果合三平戈來，縷訖切	ljua		lye
林	：臻，齊齒；深開三平侵來，力尋切	ljem	liəm	lin
崙	：臻，合口；臻合一平魂來，盧昆切	luən		luən
倫	：臻，撮口；臻合三平諄來，力迺切	ljuen	lyən	luən
藍	：山，開口；咸開一平談來，魯甘切	lɑm	lam	lan

58) 《字彙》의 反切, 또 《漢語大字典》(총8권,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88)一篇 721쪽에 보면 “音倫”이라 했으며 倫은 「力逆切」이다.

連	：山，齊齒；山開三平仙來，力延切	ljæn	lien	lian
爨	：山，合口；山合一平桓來，落官切	luan	lon	luan
攣	：山，撮口；山合三平仙來，呂員切	ljuæn		lan/luan
郎	：宕，開口；宕開一平唐來，魯當切	laŋ	laŋ	laŋ
良	：宕，齊齒；宕開三平陽來，呂張切	ljaŋ	liaŋ	liaŋ
瀧	：宕，撮口；江開二平江來，呂江切(●)	loŋ		luŋ
樓	：流，開口；流開一平侯來，落侯切	lu	lou	lou
流	：流，齊齒；流開三平尤來，力求切	lju	liou	liou

▶ 中古의 來母字는 《圖經》에서도 來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圖」은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단, 蟹攝 開口篇 「擷」字와 假攝 開口篇 「喇」字는 《圖經》에서 上聲에 배열되었다.



3. 舌尖面塞擦 · 擦音

1) 照母

《圖經》의 照母字는 中古의 照二(莊)·照三(章)·知母字와 全濁 澄·牀二(崇) 仄聲字가 合류된 것이다. 中古의 知母가 《圖經》에서 照母로 귀납되는 것은 近代에 知·照가 合류되었기 때문이며, 中古의 牀二(崇)母와 澄母가 《圖經》에서 照母로 귀납되는 것은 近代의 濁音清化 때문이다. 《中原音韻》에서는 /tʃ-/ 이다.

(一) 中古의 照二(莊)母에서 온 것

<平>菹	：祝，合口；遇開三平魚莊，側魚切	tʃjo		tʃu
齋	：蟹，開口；蟹開二平皆莊，側皆切	tʃei	tʃai	tʃai
莊	：宕，合口；宕開三平陽莊，側羊切	tʃjaŋ	tʃuaŋ	tʃuo/tʃau
鄒	：流，開口；流開三平尤莊，側鳩切	tʃju	tʃou	tʃou

<上>阻	: 祝, 合口 ; 遇開三上語莊, 側呂切	tʃjo	tʃu	tʃu
窄	: 蟹, 開口 ; 梗開二入陌莊, 側伯切	tʃɛk	tʃai	tsɿ/ʈsai
鮓	: 假, 開口 ; 假開二上馬莊, 側下切	tʃa	tʃa	tʃa
俎	: 假, 合口 ; 假合二上馬莊, 鮓瓦切	tʃua		tʃua
<去>債	: 蟹, 開口 ; 蟹開二去卦莊, 側賣切	tʃæi	tʃai	tʃai
苗	: 假, 合口 ; 山合二入黠莊, 鄒滑切	tʃuæt		tʃua

(二) 中古의 照三(章)母에서 온 것

<平>征	: 通, 開口 ; 梗開三平清章, 諸盈切	tɕɛŋ	tʃiŋ	tɕəŋ
支	: 止, 開口 ; 止開三平支章, 章移切	tɕje	tʃi	tɕi
珠	: 止, 合口 ; 遇合三平虞章, 章俱切	tɕjuo	tʃiu	tɕu
昭	: 効, 開口 ; 効開三平宵章, 止遙切	tɕjæu	tʃiau	tɕau
遮	: 拙, 開口 ; 假開三平麻章, 正奢切	tɕua	tʃie	tɕɿ
眞	: 臻, 開口 ; 臻開三平眞章, 職鄰切	tɕjen	tʃiən	tɕən
占	: 山, 開口 ; 咸開三平鹽章, 職廉切	tɕjəm(tɕjəm)	tʃiəm	tɕən
專	: 山, 合口 ; 山合三平仙章, 職緣切	tɕjəm	tʃyən	tɕuan
章	: 宕, 開口 ; 宕開三平陽章, 諸良切	tɕjaŋ	tʃiaŋ	tɕaŋ
<上>整	: 通, 開口 ; 梗開三上靜章, 之郢切	tɕɛŋ	tʃiŋ	tɕəŋ
止	: 止, 開口 ; 止開三上止章, 諸市切	tɕi	tʃi	tɕi
主	: 止, 合口 ; 遇合三上麌章, 之庾切	tɕjuo	tʃiu	tɕu
摺	: 蟹, 合口 ; 止開三上紙章, 諸氏切(●)	tɕje		tɕi
捶	: 壘, 合口 ; 止合三上紙章, 之累切	tɕjue	tʃuei	tɕuei
沼	: 効, 開口 ; 効開三上小章, 之少切	tɕjæu	tʃiau	tɕau
者	: 拙, 開口 ; 假開三上馬章, 章也切	tɕja	tʃie	tɕɿ
軫	: 臻, 開口 ; 臻開三上軫章, 章忍切	tɕjen	tʃiən	tɕən
準	: 臻, 合口 ; 臻合三上準章, 之尹切	tɕjuen	tʃyən	tɕuən
掌	: 宕, 開口 ; 宕開三上養章, 諸兩切	tɕjaŋ	tʃiaŋ	tɕaŋ
<去>正	: 通, 開口 ; 梗開三去勁章, 之盛切	tɕɛŋ	tʃiŋ	tɕəŋ
衆	: 通, 合口 ; 通合三去送章, 之仲切	tɕjuŋ	tʃiuŋ	tɕuŋ
至	: 止, 開口 ; 止開三去至章, 脂利切	tɕjei	tʃi	tɕi
祝	: 祝, 合口 ; 通合三入屋章, 之六切	tɕjuk		tɕu/ʈsou
酌	: 果, 開口 ; 宕開三入藥章, 之若切	tɕjak		tɕuo/ʈsau
拙	: 拙, 合口 ; 山合三入薛章, 職悅切	tɕjæt	tʃye	tɕuo

振	: 臻, 開口 ; 臻開三去震章, 章刃切	tɕien	tʃiən	tʃən
稔	: 臻, 合口 ; 臻合三去稔章, 之閏切	tɕjuen		tʃuən

<如>灼	: 果, 開口 ; 宕開三入藥章, 之若切	tɕjak		tʃuo/tʃau
------	-----------------------	-------	--	-----------

(三) 中古의 知母에서 온 것

<平>中	: 通, 合口 ; 通合三平東知, 陟弓切	tʃuŋ	tʃiuŋ	tʃuŋ
追	: 壘, 合口 ; 止合三平脂知, 陟佳切	tʃuei	tʃuei	tʃuei
搥	: 假, 合口 ; 假合二平麻知, 張瓜切	tʃua		tʃua
述	: 臻, 合口 ; 臻合三平諄知, 陟綸切	tʃuen	tʃuən	tʃuən

<上>冢	: 通, 合口 ; 通合三上腫知, 知隴切	tʃuoŋ	tʃiuŋ	tʃuŋ
展	: 山, 開口 ; 山開三上獮知, 知演切	tʃæn	tʃien	tʃən
轉	: 山, 合口 ; 山合三上獮知, 陟兗切	tʃuæn	tʃyen	tʃuan
肘	: 流, 開口 ; 流開三上有知, 陟柳切	tʃu	tʃiou	tʃou

<去>卓	: 果, 合口 ; 江開二入覺知, 竹角切	tɕok	tʃau	tʃuo
哲	: 拙, 開口 ; 山開三入薛知, 陟列切	tʃæt	tʃie	tʃv

(四) 中古의 澄母 仄聲에서 온 것

<去>住	: 止, 合口 ; 遇合三去遇澄, 持遇切	dʃuo	tʃiu	tʃu
	: 蟹, 合口 ; 蟹合二上蟹澄, 丈夥切	dʃuæi		tʃuai
隆	: 壘, 合口 ; 止合三去至澄, 直類切	dʃuei	tʃuei	tʃuei
兆	: 効, 開口 ; 効開三上小澄, 治小切	dʃæu	tʃiau	tʃau
湛	: 山, 開口 ; 咸開二上賺澄, 丈減切	dʃəm	tʃiəm	tʃən
丈	: 宕, 開口 ; 宕開三上養澄, 職兩切	dʃɑŋ	tʃiaŋ	tʃaŋ
撞	: 宕, 合口 ; 江開二去絳澄, 直絳切	dʃɔŋ	tʃuaŋ	tʃuaŋ
紂	: 流, 開口 ; 流開三上有澄, 除柳切	dʃu	tʃiou	tʃou

<如>直	: 止, 開口 ; 曾開三入職澄, 除力切	dʃək	tʃi	tʃi
逐	: 止, 合口 ; 通合三入屋澄, 直六切	dʃuk	tʃiu	tʃu/tʃou
軸	: 祝, 合口 ; 通合三入屋澄, 直六切	dʃuk	tʃiu	tʃu/tʃou
翟	: 蟹, 開口 ; 梗開二入陌澄, 璋伯切	dʃək		tʃv/tai
濁	: 果, 合口 ; 江開二入覺澄, 直角切	dʃɔk	tʃau	tʃuo

宅 : 拙, 開口 ; 梗開二入陌澄, 璋伯切 dʒək tʃai tʃv/ʃ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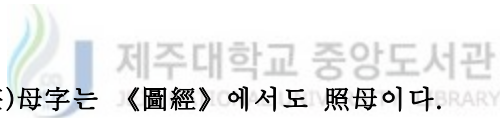
(五) 中古의 崇母 仄聲에서 온 것

<去>乍 : 假, 開口 ; 假開二去禡崇, 鋤駕切 dʒ'a tʃa tʃa
 撰 : 山, 合口 ; 山合三上獮崇, 士免切 dʒ'juæn tʃuan

<如>赫 : 拙, 合口 ; 梗合二入麥崇, 查獲切 dʒ'uək tsuo

(기타)

<平>𪗇 : 蟹, 合口 ; 止合三上紙初, 初委切(▲) tʃ'jue tʃ'uai
 <平>植 : 假, 開口 ; 假開二平麻崇, 鉏加切(▲) dʒ'a tʃa tʃ'a
 <上>奘 : 宕, 合口 ; 宕開一上蕩從, 徂朗切(▲) dʒ'aŋ tsaŋ
 <如>𪗇⁵⁹⁾: 假, 開口 ; 咸開一入合見, 古盍切(▲) kAp kv
 咸開二入狎影, 烏甲切 ʔap ia



▶ 中古의 照二(莊)母字는 《圖經》에서도 照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窄·茁」이 있는데, 《圖經》에서 「窄」은 上聲, 「茁」은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照三(章)母字는 《圖經》에서도 照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祝·酌·拙·灼」이 있는데, 그 중 「祝·酌·拙」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灼」字는 如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知母字는 《圖經》에서 照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59) 《國音中古音對照表》(廣文編譯所, 廣文書局)에는 𪗇(插), 咸開二入洽崇, 士洽切이라 되어 있다.

3. 中古의 入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澄母 仄聲字는 《圖經》에서 照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3. 中古의 入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牀二(崇) 仄聲字는 《圖經》에서 照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上聲字 「撰」은 《圖經》에서 濁上變去로 인해 照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去聲字 「乍」는 《圖經》에서 清化로 인해 照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3. 中古의 入聲字 「赫」은 《圖經》에서 清化로 인해 照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闌·楂·奘·敲」세 字는 예외이다.
1. 假攝 開口篇 「闌」字는 中古의 見·影母 入聲字에 속한다. 中古의 見·影母字는 《圖經》에서도 見·影母에 배열되는데, 이 字는 《圖經》에서 照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2. 假攝 開口篇 「楂」字는 中古의 牀二(崇)母 平聲字에 속한다. 中古의 全濁 牀二字는 《圖經》에서 穿母 如聲에 배열되는데, 이 字는 《圖經》에서 照母 平聲에 배열되었다.
3. 宕攝 合口篇 「奘」字는 中古의 從母 上聲字에 속한다. 中古의 從母 上聲字는 近代에 精母 去聲에 배열되는데, 이 字는 《圖經》에서 照母 上聲에 배열되었다.
4. 蟹攝 合口篇 「敲」字는 中古의 初母 上聲字에 속한다. 中古의 初母 上聲字는 《圖經》에서 穿母 上聲에 배열되는데 이 字는 照母 平聲에 배열되었다.

2) 穿母

《圖經》의 穿母字는 中古의 穿二(初)·穿三(昌)·徹母字와 牀二(崇)·牀三(船)의 平聲字, 그리고 全濁 澄母가 함유한 것이다. 《中原音韻》에서는 /tʃ-/ 이다.

(一) 中古의 初母에서 온 것

<平>初	: 祝, 合口 ; 遇開三平魚初, 楚居切	tʃʝo	tʃʊ	tʃʊ
釵	: 蟹, 開口 ; 蟹開二平佳初, 楚佳切	tʃʰæi	tʃʰai	tʃʰai
磑	: 蟹, 合口 ; 蟹合二平皆初, 楚懷切	tʃʰuei		tʃʰuai
抄	: 効, 開口 ; 効開二平肴初, 楚交切	tʃʰau	tʃʰau	tʃʰau
叉	: 假, 開口 ; 假開二平麻初, 初牙切	tʃʰa	tʃʰa	tʃʰa
牕	: 宕, 合口 ; 江開二平江初, 楚江切	tʃʰɔŋ	tʃʰuaŋ	tʃʰuaŋ

<上>楚 : 祝, 合口 ; 遇開三上語初, 創舉切 ʃʃjo ʃʃu tʃʃu
 揣 : 蟹, 合口 ; 止合三上紙初, 初委切(●) ʃʃjue ʃʃuai tʃʃuai
 炒 : 効, 開口 ; 効開二上巧初, 初爪切 ʃʃau ʃʃau tʃʃau
 躡⁶⁰: 假, 開口 ;
 : 假, 合口 ;
 磳 : 臻, 開口 ; 深開三上寢初, 初朕切 ʃʃjem ʃʃəm tʃʃən
 產 : 山, 開口 ; 山開二上產初, 楚簡切 ʃʃæn ʃan tʃʃan

<去>瘥 : 蟹, 開口 ; 蟹開二去卦初, 楚懈切 ʃʃæi tʃʃai
 鈔 : 効, 開口 ; 効開二去効初, 初敎切 ʃʃau ʃʃau tʃʃau
 察 : 假, 開口 ; 山開二入黠初, 初八切 ʃʃæt tʃʃa
 : 假, 合口 ; 山合二入鎋初, 初刮切 ʃʃuat tʃʃuan
 冊 : 拙, 開口 ; 梗開二入麥初, 初革切 ʃʃæk ʃʃai tʃʃv/tsai
 懺 : 山, 開口 ; 咸開二去鑑初, 楚鑿切 ʃʃam ʃʃam tʃʃan
 創 : 宕, 合口 ; 宕開三去漾初, 初亮切 ʃʃɔŋ ʃʃuaŋ tʃʃuaŋ

<如> : 假, 合口 ; 假合二上馬初, 楚瓦切(●) ʃʃua tʃʃua



(二) 中古의 昌母에서 온 것

<平>稱 : 通, 開口 ; 曾開三平蒸昌, 處陵切 tʃʃjəŋ ʃʃiəŋ tʃʃəŋ
 充 : 通, 合口 ; 通合三平東昌, 昌終切 tʃʃjuŋ ʃʃiuŋ tʃʃuŋ
 蚩 : 止, 開口 ; 止開三平之昌, 赤之切 tʃʃi ʃʃi tʃʃi
 吹 : 壘, 合口 ; 止合三平支昌, 昌垂切 tʃʃjue ʃʃuei tʃʃuei
 車 : 拙, 開口 ; 假開三平麻昌, 尺遮切 tʃʃja kiu tʃʃv
 噴 : 臻, 開口 ; 臻開三平眞昌, 昌眞切 tʃʃjen ʃʃiən tʃʃən
 春 : 臻, 合口 ; 臻合三平諄昌, 昌脣切 tʃʃjuen tʃʃuən
 詒⁶¹: 山, 開口 ; 咸開三平鹽昌, 處占切 tʃʃjæm tʃʃan
 川 : 山, 合口 ; 山合三平仙昌, 昌緣切 tʃʃjuæn ʃʃyen tʃʃuan

60) “《國語辭典》音又上聲” - 《中文大辭典》(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 74年) 인용

61) 《合併字學集韻》의 “多言”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廣韻》의 「竹咸切, 咸開二平咸知」이 또 있으나, 이것은 知母이므로 「處占切」을 따른다.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 (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7年)에서 「詒」을 入聲으로 분류하고 《圖經》의 如聲에 배열되고 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昌	: 宕, 開口 ; 宕開三平陽昌, 尺良切	tɕʰaŋ	tɕʰiaŋ	tɕʰaŋ
<上>齒	: 止, 開口 ; 止開三上止昌, 昌里切	tɕʰi	tɕʰi	tɕʰi
扯	: 拙, 開口 ; 假開三上馬昌, 昌者切	tɕʰja		tɕʰɤ
蠢	: 臻, 合口 ; 臻合三上準昌, 尺尹切	tɕʰjuen	tɕʰuən	tɕʰuən
喘	: 山, 合口 ; 山合三上彌昌, 昌兗切	tɕʰjuæn	tɕʰyen	tɕʰuan
廠	: 宕, 開口 ; 宕開三上養昌, 昌兩切	tɕʰaŋ		tɕʰaŋ
<去>秤	: 通, 開口 ; 曾開三去證昌, 昌孕切	tɕʰjəŋ	tɕʰiəŋ	tɕʰəŋ
銃	: 通, 合口 ; 通合三去送昌, 充仲切	tɕʰjuŋ	tɕʰiuŋ	tɕʰuŋ
尺	: 止, 開口 ; 梗開三入昔昌, 昌石切	tɕʰjek	tɕʰi	tɕʰi
出	: 止, 合口 ; 臻合三入術昌, 赤律切	tɕʰjuei	tɕʰi	tɕʰuei
膾	: 蟹, 合口 ; 山合三上彌昌, 尺兗切(●)	tɕʰjuæn		tɕʰuan
炊	: 壘, 合口 ; 止合三去寘昌, 尺僞切	tɕʰjue	tɕʰuei	tɕʰuei
綽	: 果, 開口 ; 宕開三入藥昌, 昌約切	tɕʰjak	tɕʰiau	tɕʰuo/tɕʰau
啜	: 拙, 合口 ; 山合三入薛昌, 昌悅切	tɕʰjæt	tɕʰye	tɕʰuo
釧	: 山, 合口 ; 山合三去線昌, 尺絹切	tɕʰjuæn	tɕʰyen	tɕʰuan
唱	: 宕, 開口 ; 宕開三去漾昌, 尺亮切	tɕʰjaŋ	tɕʰiaŋ	tɕʰaŋ
臭	: 流, 開口 ; 流開三去宥昌, 尺救切	tɕʰju	tɕʰiou	tɕʰou

(三) 中古의 徹母에서 온 것

<平>擣	: 止, 合口 ; 遇開三平魚徹, 丑居切	tɕʰjo		tɕʰu
抽	: 流, 開口 ; 流開三平尤徹, 丑鳩切	tɕʰju	tɕʰiou	tɕʰou
<上>逞	: 通, 開口 ; 梗開三上靜徹, 丑郢切	tɕʰjɛŋ	tɕʰiəŋ	tɕʰəŋ
寵	: 通, 合口 ; 通合三上腫徹, 丑隴切	tɕʰjuoŋ	tɕʰiuŋ	tɕʰuŋ
褚	: 止, 合口 ; 遇開三上語徹, 丑呂切	tɕʰjo		tɕʰu
𤑔 ⁶²⁾	: 壘, 合口 ; 止合三上旨徹, 丑水切	tɕʰjuei		tɕʰuei
闖	: 宕, 合口 ; 深開三去沁徹, 丑楚切(●)	tɕʰjem		tɕʰən
丑	: 流, 開口 ; 流開三上有徹, 敕九切	tɕʰju	tɕʰiou	tɕʰou
<去>畜	: 祝, 合口 ; 通合三入屋徹, 丑六切	tɕʰjuk	tɕʰiu	tɕʰu
戳	: 果, 合口 ; 江開二入覺徹, 敕角切	tɕʰɔk	tɕʰau	tɕʰau

62) 《玉篇》의 反切

趁 : 臻, 開口 ; 臻開三去震徹, 丑刃切 tʃjen tʃʷiən tʃʷən

(四) 崇母에서 온 것

<如> 鉏 : 祝, 合口 ; 遇開三平魚崇, 士魚切 tʃjo tʃʷu
 柴 : 蟹, 開口 ; 蟹開二平佳崇, 土佳切 tʃʷæi tʃʷai tʃʷai
 臠 : 蟹, 合口 ; 蟹合二平皆崇, 仕懷切 tʃʷei tʃʷuai
 床 : 宕, 合口 ; 宕開三平陽崇, 土莊切 tʃʷjaŋ tʃʷuaŋ tʃʷuaŋ

(五) 中古의 船母에서 온 것

<如> 唇 : 臻, 合口 ; 臻合三平諄船, 食倫切 tʃjuen tʃʷyən tʃʷuən/suən
 船 : 山, 合口 ; 山合三平仙船, 食川切 tʃʷuæn tʃʷyen tʃʷan/suan

(六) 中古의 澄母에서 온 것

<如> 呈 : 通, 開口 ; 梗開三平清澄, 直貞切 dʃɛŋ tʃʷiəŋ tʃʷəŋ
 蟲 : 通, 合口 ; 通合三平東澄, 直弓切 dʃjuŋ tʃʷiuŋ tʃʷuŋ
 池 : 止, 開口 ; 止開三平支澄, 直離切 dʃje tʃʷi tʃʷi
 除 : 止, 合口 ; 遇開三平魚澄, 直魚切 dʃjo tʃʷiu tʃʷu
 晁 : 効, 開口 ; 効開三平宵澄, 直遙切 dʃau tʃʷau
 茶 : 假, 開口 ; 假開二平麻澄, 宅加切 dʃa tʃʷa tʃʷa
 陳 : 臻, 開口 ; 臻開三平眞澄, 直珍切 dʃjen tʃʷiən tʃʷən
 腸 : 宕, 開口 ; 宕開三平陽澄, 直良切 dʃjaŋ tʃʷiaŋ tʃʷaŋ
 紬 : 流, 開口 ; 流開三平尤澄, 直由切 dʃju tʃʷiou tʃʷou

(七) 中古의 禪母에서 온 것

<如> 垂 : 壘, 合口 ; 止合三平支禪, 是爲切 zjue tʃʷuei/suei
 蟬 : 山, 開口 ; 山開三平仙禪, 市連切 zjen tʃʷan/san

(기타)

<上> 躡 : 蟹, 開口 ; 蟹開二上蟹生, 所蟹切(▲) ʃæi ʃai

▶ 中古의 穿二(初)字는 《圖經》에서도 穿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단, 「」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察·冊」이 있는데,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 穿三(昌)字는 《圖經》에서도 穿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단, 蟹攝 合口篇 「臙」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尺·緙·啜·出」이 있는데,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徹母字는 《圖經》에서 穿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擣·抽」가 있는데,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臻攝 開口篇 「趁」字와 宕攝 合口篇 「闕」字가 있는데, 「趁」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闕」字는 上聲에 배열되었다.
4. 中古의 入聲字는 「畜·戳」이 있는데,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牀二(崇)母 平聲字는 《圖經》에서 穿母로 귀납되었다.

「鉏·柴·隴·床」이 있으며, 모두 淸化되어 穿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牀三(船)母 平聲字는 《圖經》에서 穿母로 귀납되었다.

「唇·船」이 있으며, 모두 淸化되어 穿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澄母 平聲字는 《圖經》에서 穿母로 귀납되었다.

「呈·蟲·池·除·晁·茶·陳·腸·紬」가 있으며, 모두 淸化되어 穿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禪母 平聲字는 《圖經》에서 穿母로 귀납되었다.⁶³⁾

「垂·蟬」이 있는데, 모두 淸化되어 穿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蟹攝 開口篇 「躡」字는 예외인데, 이는 中古의 審二母 上聲字로, 《圖經》에서 審二母字는 審母에 배열되는데 이 字는 穿母 上聲에 배열되었다.

3) 稔母

63) 中古의 禪母 平聲字는 《圖經》에서 穿 혹은 審母로 귀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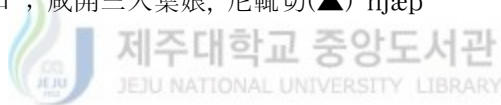
《圖經》의 稔母字는 中古의 次濁日母字에서 왔으며, 日母는 近代에 聲母가 捲舌化 되었으므로 《圖經》에서 「稔」이라 새로 명명하였다. 《中原音韻》에서는 /ʒ-/에 해당된다.

<上> 冗	: 通, 合口 ; 通合三上腫日, 而隴切	njuoŋ	ʒiuŋ	zu/zou
	: 止, 開口 ; 蟹開一上海日, 如亥切(●)	ŋAi		zai
乳	: 止, 合口 ; 遇合三上麋日, 而主切	njuo	ʒiu	zu
藥	: 壘, 合口 ; 止合三上紙日, 如累切	njue		zuei
擾	: 効, 開口 ; 効開三上小日, 而沼切	njæu	ʒiau	zau
惹	: 拙, 開口 ; 假開三上馬日, 人者切	nja	ʒie	zɤ
忍	: 臻, 開口 ; 臻開三上軫日, 而軫切	njen	ʒiən	zən
慳	: 臻, 合口 ; 山合三上彌日, 而兗切	njuæn	ʒyən	zuan
冉	: 山, 開口 ; 咸開三上琰日, 而琰切	njæm(ŋjəm)	ʒiem	zan
軟	: 山, 合口 ; 山合三上彌日, 而兗切	njuæn	ʒyən	zuan
壤	: 宕, 開口 ;			
肉	: 流, 開口 ; 流開三上有日, 人九切	nju		zou
<去> 扔	: 通, 開口 ; 曾開三去證日, 而證切	njəŋ		zəŋ
掇	: 通, 合口 ; 通合三去用日, 穠用切	njuŋ		zuŋ
日	: 止, 開口 ; 臻開三入質日, 人質切	njet	ʒi	zɿ
褥	: 止, 合口 ; 通合三入燭日, 而蜀切	njuok	ʒiu	zu
辱	: 祝, 合口 ; 通合三入燭日, 而蜀切	njuok	ʒiu	zu
芮	: 壘, 合口 ; 蟹合三去祭日, 而銳切	njuæi	ʒuei	zuei
穉	: 効, 開口 ; 効開三去笑日, 人要切	njæu		zau
若	: 果, 開口 ; 宕開三入藥日, 而灼切	njak	ʒio	zuo/zau
髻	: 假, 開口 ; 山開二入鎋日, 而鎋切	ŋat		za
熱	: 拙, 開口 ; 山開三入薛日, 如列切	njæt	ʒie	zɤ
蕪	: 拙, 合口 ; 山合三入薛日, 如劣切	njuæt		zuo
刃	: 臻, 開口 ; 臻開三去震日, 而振切	njen	ʒiən	zən
閏	: 臻, 合口 ; 臻合三去稭日, 如順切	njuen	ʒiyn	zuən
誦	: 山, 開口 ; 咸開三平鹽日, 汝鹽切(▲)	njæm		zan
嬾	: 山, 合口 ; 山合三上彌日, 乳兗切(▲)	njuæn		zuan
讓	: 宕, 開口 ; 宕開三去漾日, 人樣切	njaŋ	ʒiaŋ	zaŋ
肉	: 流, 開口 ; 通合三入屋日, 如六切(●)	njuk	ʒiou	zu/zou

<如>仍	: 通, 開口 ; 曾開三平蒸日, 如乘切	njəŋ	ziəŋ	zəŋ
戎	: 通, 合口 ; 通合三平東日, 如融切	njuŋ	ziuŋ	zuŋ
莆	: 止, 開口 ; 止開三平之日, 女之切	nɿ		i
如	: 止, 合口 ; 遇開三平魚日, 人諸切	njo	ziu	zu
麩	: 壘, 合口 ; 止合三平脂日, 儒佳切	njei	zuei	zuei
饒	: 効, 開口 ; 効開三平宵日, 如招切	njæu	ziau	zau
佸	: 拙, 開口 ; 假開三去禡日, 人夜切(▲)	nja		zɿ
掇	: 拙, 合口 ; 假開三平麻日, 儒邪切(●)	nja		zɿ
人	: 臻, 開口 ; 臻開三平眞日, 如鄰切	njen	ziən	zən
惇	: 臻, 合口 ; 臻合三平諄日, 如勻切	njuen		zuən
然	: 山, 開口 ; 山開三平仙日, 如延切	njæn	zien	zan
堦	: 山, 合口 ; 山合三平仙日, 而緣切	njuæn		zuan
穰	: 宕, 開口 ; 宕開三平陽日, 汝陽切	njaŋ	ziaŋ	zaŋ
柔	: 流, 開口 ; 流開三平尤日, 耳由切	nju	ziou	zou

(기타)

<上>扞⁶⁴: 通, 開口 ; 咸開三入葉娘, 尼輒切(▲) njæp zɿ



▶ 中古의 日母는 《圖經》에서 稔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山攝 開口篇 「訥」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단, 山攝 合口篇 「媿」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단, 拙攝 開口篇 「佸」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圖經》에서 모두 去聲에 배열되었다.
단, 「扞」字는 中古에 娘母이며 《圖經》에서 上聲에 배열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中古의 日母字는 《圖經》에서 稔母 如·上·去聲으로 귀납되었다. 稔母 平聲은 대부분 ‘○’로 나타내었으며 단, 流攝 開口篇 平聲에 「扞」이라는 陰刻字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中古의 次濁 平聲字가 近代에 모두 陽平이 되었기 때문이다.

64) 《字彙補》의 反切

4) 審母

《圖經》의 審母字는 中古의 審二(生), 審三(書)과 全濁 牀三(船), 禪母字가 합류된 것이다. 《中原音韻》에서는 /ʃ-/ 이다.

(一) 中古의 生(審二)母에서 온 것

<平>生	: 通, 開口 ; 梗開二平庚生, 所庚切	ʃeŋ	ʃəŋ	ʃəŋ
篩	: 蟹, 開口 ; 止開三平脂生, 疏夷切(●)	ʃjei	ʃai	ʃi
衰	: 蟹, 合口 ; 止合三平脂生, 所追切(●)	ʃjuei	ʃuai	ʃuai
稍	: 効, 開口 ; 效開二平肴生, 師交切	ʃau	ʃau	ʃau
沙	: 假, 開口 ; 假開二平麻生, 所加切	ʃa	ʃa	ʃa
山	: 山, 開口 ; 山開二平山生, 所間切	ʃæn	ʃan	ʃan
拴	: 山, 合口 ; 山合二平刪生, 數還切	ʃuan	ʃuan	ʃuan
雙	: 宕, 合口 ; 江開二平江生, 所江切	ʃɔŋ	ʃuaŋ	ʃuaŋ

<上>省	: 通, 開口 ; 梗開二上梗生, 所景切	ʃeŋ	ʃəŋ	ʃəŋ
史	: 止, 開口 ; 止開三上止生, 疎士切	ʃi	ʃi	ʃi
嗽	: 祝, 合口 ; 遇合三去遇生, 雙遇切	ʃjuo		ʃu
汎	: 蟹, 開口 ; 蟹開二去卦生, 所賣切	ʃæi		ʃai
所	: 果, 合口 ; 遇開三上語生, 疎舉切(●)	ʃjo	ʃu	ʃu
耍	: 假, 合口 ; 假合二上馬生, 沙雅切	ʃua	ʃa	ʃua
爽	: 宕, 合口 ; 宕開三上養生, 疏兩切	ʃjaŋ	ʃuaŋ	ʃuaŋ

<去>疏	: 祝, 合口 ; 遇開三去御生, 所去切	ʃjo	ʃu	ʃu
曬	: 蟹, 開口 ; 蟹開二去卦生, 所賣切	ʃæi	ʃai	ʃai
帥	: 蟹, 合口 ; 止合三去至生, 所類切(●)	ʃjuei	ʃuai	ʃuai
朔	: 果, 合口 ; 江開二入覺生, 所覺切	ʃɔk	ʃau	ʃuo
殺	: 假, 開口 ; 山開二入黠生, 所八切	ʃæt	ʃa	ʃa
刷	: 假, 合口 ; 山合二入鑿生, 數刮切	ʃuat	ʃua	ʃua
色	: 拙, 開口 ; 曾開三入職生, 所力切	ʃjək	ʃai	sv/sai
涮	: 山, 合口 ; 山合二去諫生, 生患切	ʃuan		ʃuan
孿	: 宕, 合口 ; 山合二去諫生, 生患切(●)	ʃuan		ʃuan

(二) 中古의 審三(書)母에서 온 것

<平>詩	: 止, 開口 ; 止開三平之書, 書之切	ɕi	fi	si
書	: 止, 合口 ; 遇開三平魚書, 傷魚切	ɕjo	fju	ʃu
梳	: 祝, 合口 ; 遇開三平魚書, 所菹切	ɕjo	fu	ʃu
奢	: 拙, 開口 ; 假開三平麻書, 式車切	ɕja	fje	ʃv
申	: 臻, 開口 ; 臻開三平眞書, 失入切	ɕjen	fjæn	ʃæn
商	: 宕, 開口 ; 宕開三平陽書, 式羊切	ɕjaŋ	fjaŋ	ʃaŋ
收	: 流, 開口 ; 流開三平尤書, 式州切	ɕju		ʃou

<上>暑	: 止, 合口 ; 遇合三上語書, 舒呂切	ɕjo	fju	ʃu
水	: 壘, 合口 ; 止合三上旨書, 式軌切	ɕjuei	fuei	ʃuei
少	: 効, 開口 ; 效開三上小書, 書沼切	ɕjæu	fiau	ʃau
捨	: 拙, 開口 ; 假開三上馬書, 書冶切	ɕja	fje	ʃv
矧	: 臻, 開口 ; 臻開三上軫書, 式忍切	ɕjen		ʃæn
閃	: 山, 開口 ; 咸開三上琰書, 失冉切	ɕjæm(ɐm)fjem		ʃan
賞	: 宕, 開口 ; 宕開三上養書, 書兩切	ɕjaŋ	fjaŋ	ʃaŋ
手	: 流, 開口 ; 流開三上有書, 書九切	ɕju	fjou	ʃou

<去>勝	: 通, 開口 ; 曾開三去證書, 詩證切	ɕjəŋ	fjəŋ	ʃəŋ
世	: 止, 開口 ; 蟹開三去祭書, 舒制切	ɕjæi	fi	ʃi
庶	: 止, 合口 ; 遇開三去御書, 商署切	ɕjo	fju	ʃu
爍	: 果, 開口 ; 宕開三入藥書, 書藥切	ɕjak	fiau	ʃuo/ʃau
說	: 拙, 合口 ; 山合三入薛書, 失藝切	ɕjuæt	fye	ʃuo
扇	: 山, 開口 ; 山開三去線書, 式戰切	ɕjæn	fjien	ʃan

(三) 中古의 牀三(船)母에서 온 것

<去>順	: 臻, 合口 ; 臻合三去稇船, 食閏切	ɕʃuen	fjyæn	ʃuæn
<如>繩	: 通, 開口 ; 曾開三平蒸船, 食陵切	ɕʃəŋ	fjəŋ	tʃʻəŋ/ʃəŋ
術	: 止, 合口 ; 臻合三入術船, 食聿切	ɕʃuət	fju	ʃu
舌	: 拙, 開口 ; 山開三入薛船, 食列切	ɕʃjæt	fje	ʃv
神	: 臻, 開口 ; 臻開三平眞船, 食鄰切	ɕʃjen	fjæn	tʃʻən/ʃən

(四) 中古의 禪母에서 온 것

<去>瑞	: 壘, 合口 ; 止合三去寘禪, 是僞切	zjue	fuei	ʃuei
邵	: 効, 開口 ; 效開三去笑禪, 實照切	zjæu	fiau	ʃau
慎	: 臻, 開口 ; 臻開三去震禪, 時刃切	zjen	fjæn	ʃən
上	: 宕, 開口 ; 宕開三上養禪, 時掌切	zjaŋ	fjaŋ	ʃaŋ
受	: 流, 開口 ; 流開三上有禪, 殖酉切	zju	fiou	ʃou
<如>時	: 止, 開口 ; 止開三平之禪, 市之切	ʒi	ʃi	tʃʻ-/ʃi
蜀	: 祝, 合口 ; 通合三入燭禪, 市玉切	zjuok	ʃu	ʃu/ʃou
誰	: 壘, 合口 ; 止合三平脂禪, 視佳切	zjuei	fuei	ʃuei
韶	: 効, 開口 ; 效開三平宵禪, 市昭切	zjæu	tʃʻiau	tʃʻ-/ʃau
杓	: 果, 開口 ; 宕開三入藥禪, 市若切	zjak	fiau	ʃuo/ʃau
純	: 臻, 合口 ; 臻合三平諄禪, 常倫切	zjuen	tʃʻyæn	tʃʻæn/ʃuæn
	: 山, 開口 ; 咸開三平鹽禪, 時占切	zjæm		tʃʻan/ʃan
諱	: 山, 合口 ; 山合三平獮禪, 市綠切	zjuæn		tʃʻuan/ʃuan
裳	: 宕, 開口 ; 宕開三平陽禪, 市羊切	zjaŋ	tʃʻiaŋ	tʃʻaŋ/ʃaŋ
熟	: 流, 開口 ; 通合三入屋禪, 殊六切(●)	zjuk	fiou	ʃu/ʃou

(기타)

<上>廈	: 假, 開口 ; 假開二上馬匣, 胡雅切	y(f)ia	xa	xia
窰	: 臻, 合口 ; 臻合三平諄知, 陟倫切	tjuen		tʃuæn

▶ 中古의 審二(生)母字는 《圖經》에서도 審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 단, 「𪛗·汎」字는 《圖經》에서 上聲에 배열되었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審三(書)母字는 《圖經》에서도 審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牀三(船)母字는 近代에 聲母 권설화로 인하여 일부분은 捲舌擦音 /ʃ-/가 되었으며 《圖經》에서 審母로 귀납되었다.

牀三(船)母 平聲字는 近代 聲母 변화 과정에 의한다면, 《圖經》에서 穿母 如聲에

배열되어야 하고 仄聲字는 《圖經》에서 照母 如·去聲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圖經》의 審母에 귀납된 牀三(船)母字는 送氣 濁塞擦音 /tʂ-/이 捲舌擦音 /ʃ-/이 되어 《圖經》의 審母로 귀납된 것이다.

1. 「繩·神」은 中古의 牀三 平聲字에 속했는데, 《圖經》에서 穿母 如聲에 배열되지 않고, 審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2. 「順」은 中古의 牀三 去聲字에 속했는데, 《圖經》에서 照母 去聲에 배열되지 않고 審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3. 止攝 合口篇 「術」字는 中古의 牀三 入聲字에 속했는데, 《圖經》에서 照母 如聲에 배열되지 않고 審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4. 拙攝 開口篇 「舌」字는 中古의 牀三 入聲字에 속했는데, 《圖經》에서 照母 如聲에 배열되지 않고 審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禪母는 《圖經》에서 審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廈·窰」字는 예외이다.

1. 假攝 開口篇 「廈」字는 中古의 匣母 上聲字에 속한다. 中古의 匣母字는 《圖經》에서 대부분 曉母에 배열되었는데, 이 字는 《圖經》에서 審母 上聲에 배열되었다.
2. 臻攝 合口篇 「窰」字는 中古의 知母 平聲字에 속했는데, 《圖經》에서 審母 上聲에 귀납되었다.

4. 舌尖塞擦·擦音

1) 精母

《圖經》의 精母字는 中古의 精母와 全濁從母 仄聲字가 합류된 것이며, 中古의 從母 仄聲字는 《圖經》에서 精母 如·去聲字로 귀납되었으며, 이것은 濁音清化 때문이다. 《中原音韻》에서는 /ts-/ 이다.

(一) 中古의 精母에서 비롯되는 것

<平>增	: 通, 開口; 曾開一平登精, 作勝切	tsəŋ	tsəŋ	tsəŋ
旌	: 通, 齊齒; 梗開三平清精, 子盈切	tsjɛŋ	tsiɛŋ	tɕiŋ
宗	: 通, 合口; 通合一平冬精, 作冬切	tsuəŋ	tsuŋ	tsuŋ
資	: 止, 開口; 止開三平脂精, 卽夷切	tsjei	tsi	tɕi
蓋	: 止, 齊齒; 蟹開四平齊精, 祖稽切	tsiei	tsi	tɕi
沮	: 止, 撮口; 遇開三平魚精, 子魚切	tsjo	tsiu	tɕy
租	: 祝, 合口; 遇合一平模精, 則吾切	tsuo	tsu	tsu
栽	: 蟹, 開口; 蟹開一平哈精, 祖才絕	tsAi	tsai	tsai
堆	: 壘, 合口; 蟹合一平灰精, 臧回切	tsuAi		tsuei
槽	: 効, 開口; 効開一平豪精, 作曹切	tsau	tsau	tsau
焦	: 効, 齊齒; 効開三平宵精, 卽消切	tsjæu	tsiau	tɕiau
	: 果, 合口; 蟹合一平灰精, 臧回切	tsuAi		tsuei
癩	: 拙, 齊齒; 山開四入屑精, 子結切	tsiɛt	tsie	tɕie
嗟	: 拙, 撮口; 假開三平麻精, 子邪切(●)	tsja	tsie	tɕie
津	: 臻, 齊齒; 臻開三平眞精, 將鄰切	tsjen	tsiɛn	tɕin
尊	: 臻, 合口; 臻合一平魂精, 祖昆切	tsuən	tsuən	tsuən
鑑	: 山, 開口; 咸開一平覃精, 作含切	tsAm		tsan
煎	: 山, 齊齒; 山開三平仙精, 子仙切	tsjæn	tsien	tɕian
鑄	: 山, 合口; 山合三平仙精, 子泉切(●)	tsjuən	tsyen	tɕyan
臧	: 宕, 開口; 宕開一平唐精, 則郎切	tsaŋ	tsaŋ	tsaŋ
漿	: 宕, 齊齒; 宕開三平陽精, 卽良切	tsjaŋ	tsiaŋ	tɕiaŋ
諉	: 流, 開口; 流開一平侯精, 子侯切	tsu		tɕou
擎	: 流, 齊齒; 流開三平尤精, 卽由切	tsju	tsiou	tɕiou

<上>瞻	: 通, 開口; 曾開一上等精, 子等切	tsəŋ		tsəŋ
井	: 通, 齊齒; 梗開三上靜精, 子郢切	tsjɛŋ	tsiɛŋ	tɕiŋ
總	: 通, 合口; 通合一上董精, 作孔切	tsuŋ	tsuŋ	tsuŋ
子	: 止, 開口; 止開三上止精, 卽里切	tsi	tsi	tɕi
擠	: 止, 齊齒; 蟹開四上齊精, 子禮切	tsiei	tsi	tɕi
苴	: 止, 撮口; 遇開三上語精, 子與切	tsjo	tɕia	tɕy
祖	: 祝, 合口; 遇合一上姥精, 則古切	tsuo	tsu	tsu
宰	: 蟹, 開口; 蟹開一上海精, 作亥切	tsAi	tsai	tsai
嘴	: 壘, 合口; 止合三上紙精, 卽委切	tsjue	tɕuei	tɕuei
早	: 効, 開口; 効開一上皓精, 子皓切	tsau	tsau	tsau
勦	: 効, 齊齒; 効開三上小精, 子小切	tsjæu		tɕiau

左	: 果, 合口; 果開一上寄精, 臧可切(●)	tsa	tsuo	tsuo
姐	: 拙, 齊齒; 假開三上馬精, 子野切	tsja	tsie	tɕie
怎 ⁶⁵⁾	: 臻, 開口; 深開三上寢精, 子吡切(●)	tsu	tsəm	tsən
儘	: 臻, 齊齒; 臻開三上軫精, 卽忍切	tsjen	tsiən	tɕin
擲	: 臻, 合口; 臻合一上混精, 茲損切	tsuən	tsuən	tsuən
咎	: 山, 開口; 咸開一上感精, 子感切	tsAm		tsan
剪	: 山, 齊齒; 山開三上獮精, 卽淺切	tsjæn	tsien	tɕian
積	: 山, 合口; 山合一上緩精, 作管切	tsuən	tsən	tsuan
駟	: 宕, 開口; 宕開一上蕩精, 子朗切	tsaŋ	tsaŋ	tsaŋ
蔣	: 宕, 齊齒; 宕開三上養精, 卽兩切	tsjaŋ	tsiaŋ	tɕiaŋ
走	: 流, 開口; 流開一上厚精, 子苟切	tsu	tsou	tsou
酒	: 流, 齊齒; 流開三上有精, 子酉切	tsju	tsiou	tɕiou
<去> 粽	: 通, 合口; 通合一去送精, 作弄切	tsuŋ	tsiuŋ	tsuŋ
積 ⁶⁶⁾	: 止, 齊齒; 止開三去寘精, 子智切	tsjek	tsi	tɕi
足 ⁶⁷⁾	: 祝, 合口; 通合三入燭精, 卽玉切	tsjuok	tsiu	tsu
最	: 壘, 合口; 蟹合一去泰精, 祖外切	tsuci	tsuei	tsuei
醮	: 効, 齊齒; 効開三去笑精, 子肖切	tsjæu	tsiau	tɕiau
爵	: 果, 齊齒; 宕開三入藥精, 卽略切	tsjak	tsiau	tɕye/tɕiau
嚙	: 假, 開口; 咸開一入合精, 子荅切	tsAp		tsa
則	: 拙, 開口; 曾開一入德精, 子德切	tsək	tsai	tsɿ/tsei
借	: 拙, 齊齒; 假開三去禡精, 子夜切	tsja	tsie	tɕie
準	: 拙, 撮口; 山合三入薛精, 租悅切	tsjuæt		tɕuo
進	: 臻, 齊齒; 臻開三去震精, 卽刃切	tsjen	tsiən	tɕin
燻	: 臻, 合口; 臻合一去恩精, 祖寸切(●)	tsuən		tsuən
俊	: 臻, 撮口; 臻合三去稕精, 子峻切	tsjuən	tsyən	tɕyn/tɕuən
贊	: 山, 開口; 山開一去翰精, 則吁切	tsan	tsam	tsan
攢	: 山, 合口; 山合一入末精, 子括切(●)	tsuat		tsuo
恡 ⁶⁸⁾	: 山, 撮口; 山合三去線精, 子眷切	tsjuən		tɕuan
葬	: 宕, 開口; 宕開一去宕精, 則浪切	tsaŋ	tsaŋ	tsaŋ

65) 《五音集韻》의 反切

66) 《廣韻反切今音手冊》(李葆嘉, 上海辭書出版社, 1997, 206쪽)에서 “이 字는 又音으로 ji, 원래 資昔切(入聲)에서 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67) 《廣韻》의 子句切과 《集韻》의 遵遇切이 비록 去聲이긴 하나 《合併字學集韻》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68) 《五音集韻》의 反切

醬 : 宕, 齊齒 ; 宕開三去養精, 子亮切 tsjaŋ tsiaŋ tɕiaŋ
 奏 : 流, 開口 ; 流開一去候精, 則候切 tsu tsou tsou

<如>卒 : 祝, 合口 ; 臻合一入沒精, 臧沒切 tsuət tsu tsu

(二) 中古의 從母에서 비롯되는 것

<去>贈 : 通, 開口 ; 曾開一去嶝從, 昨瓦切 dz'əŋ tsəŋ tsəŋ
 淨 : 通, 齊齒 ; 梗開三去勁從, 疾政切 dz'jɛŋ tsjɛŋ tɕjɛŋ
 自 : 止, 開口 ; 止開三去至從, 疾二切 dz'jei tsj tɕj
 聚 : 止, 撮口 ; 遇合三去遇從, 才句切 dz'juo tsiu tɕy
 在 : 蟹, 開口 ; 蟹開一上海從, 昨宰絕 dz'ʌi tsai tsai
 皂 : 効, 開口 ; 効開一上皓從, 昨早切 dz'au tsau tsau
 坐 : 果, 合口 ; 果合一去過從, 徂臥切 dz'ua tsuo tsuo
 踐 : 山, 齊齒 ; 山開三上獮從, 慈演切 dz'jæn tsien tɕian
 就 : 流, 齊齒 ; 流開三去宥從, 疾儗切 dz'ju tsiou tɕiou

<如>集 : 止, 齊齒 ; 深開三入緝從, 秦入切 dz'jep tsi tɕi
 峯 : 止, 撮口 ; 臻合三入術從, 慈邨切 dz'juet tɕy
 嚼 : 果, 齊齒 ; 宕開三入藥從, 在爵切 dz'jak tɕye/tɕiau
 昨 : 果, 合口 ; 宕開一入鐸從, 左各切 dz'ak tsuo/tsau
 雜 : 假, 開口 ; 咸開一入合從, 徂合切 dz'Ap tsa tsa
 蟹 : 拙, 開口 ; 曾開一入德從, 昨則切 dz'ək tsv/tsei
 截 : 拙, 齊齒 ; 山開四入屑從, 昨結切 dz'iet tsie tɕie
 絕 : 拙, 撮口 ; 山合三入薛從, 情雪切 dz'juæt tsye tɕie

▶ 中古의 精母字는 《圖經》에서도 精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癩·足·爵·嚙·則··攢·卒」이 있는데 「足·爵·嚙·則··攢」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癩」字는 平聲에, 「卒」字는 如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從母 仄聲은 《圖經》에서 精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 濁音清化로 인하여 精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3. 中古의 入聲字는 《圖經》에서 精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2) 清母

《圖經》의 清母字는 中古의 清母와 全濁從母 平聲字가 합류된 것이며, 中古의 從母 平聲字는 清母 如聲에 배열되었으며, 이것은 濁音清化 때문이다. 《中原音韻》에서는 /ts'-/ 이다.

(一) 中古의 清母에서 온 것

<平> 飴 : 通, 開口 ; 曾開三平蒸清, 七曾切	ts'jəŋ		ts'əŋ
青 : 通, 齊齒 ; 梗開四平青清, 倉經切	ts'ieŋ	ts'ieŋ	tɕ'ieŋ
聰 : 通, 合口 ; 通合一平東清, 倉紅切	ts'uŋ	ts'uŋ	ts'uŋ
雌 : 止, 開口 ; 止開三平支清, 此移切	ts'je	ts'i	tɕ'i
妻 : 止, 齊齒 ; 蟹開四平齊清, 七稽切	ts'iei	ts'i	tɕ'i
蛆 : 止, 撮口 ; 遇開三平魚清, 七余切	ts'jo	ts'iu	tɕ'y
粗 : 祝, 合口 ; 遇合一平模清, 倉胡切	ts'uo	ts'u	ts'u
猜 : 蟹, 開口 ; 蟹開一平哈清, 倉才切	ts'ai	ts'ai	ts'ai
崔 : 壘, 合口 ; 蟹合一平灰清, 倉回切	ts'uAi	ts'uei	ts'uei
操 : 効, 開口 ; 効開一平豪清, 七刀切	ts'au	ts'au	ts'au
熬 : 効, 齊齒 ; 効開三平宵清, 七遙切	ts'jæu	ts'iau	tɕ'iau
搓 : 果, 合口 ; 果開一平歌清, 七何切	ts'a	ts'uo	ts'uo
？ : 拙, 齊齒 ; 假開三平麻清, 七邪切	ts'ja		tɕ'ie
侵 : 臻, 齊齒 ; 深開三平侵清, 七林切	ts'jem	ts'ioŋ	tɕ'in
村 : 臻, 合口 ; 臻合一平魂清, 此尊切	ts'uən	ts'uən	ts'uən
叅 : 山, 開口 ; 咸開一平覃清, 倉含切	ts'Am	ts'am	ts'an
僉 : 山, 齊齒 ; 咸開三平鹽清, 七廉切	ts'jæm(ts'jen)	ts'iem	tɕ'ian
攢 : 山, 合口 ; 山合一平桓清, 七丸切	ts'uən	ts'on	ts'uən
筌 : 山, 撮口 ; 山合三平仙清, 此緣切	ts'juən	ts'yen	tɕ'yan
倉 : 宕, 開口 ; 宕開一平唐清, 七岡切	ts'aŋ	ts'aŋ	ts'aŋ
鎗 : 宕, 齊齒 ; 宕開三平陽清, 千羊切	ts'jaŋ		tɕ'iaŋ
69) 流 : 開口 ; 流開三平尤清, 七侯切	ts'ju		tɕ'iou

秋	：流，齊齒；流開三平尤清，七由切	ts'ju	ts'jou	tɕ'jou
<上>請	：通，齊齒；梗開三上靜清，七靜切	ts'jɛŋ	ts'jəŋ	tɕ'jɛŋ
欸	：通，合口；通合三上腫清，且勇切	ts'juoŋ		tɕ'juŋ
此	：止，開口；止開三上紙清，雌氏切	ts'je	ts'i	tɕ'i
泚	：止，齊齒；止開三上紙清，雌氏切	ts'je	ts'i	tɕ'i
取	：止，撮口；遇合三上麌清，七庚切	ts'juo	ts'iu	tɕ'y
蘆	：祝，合口；遇合一上姥清，采古切	ts'uo		ts'u
采	：蟹，開口；蟹開一上海清，倉宰切	ts'ai	ts'ai	ts'ai
罐	：壘，合口；蟹合一去賄清，七罪切	ts'uAi		ts'uei
草	：効，開口；効開一上皓清，采老切	ts'au	ts'au	ts'au
悄	：効，齊齒；効開三上小清，親小切	ts'jæu	ts'iau	tɕ'iau
脍	：果，合口；果合一上果清，倉果切	ts'ua	ts'uo	ts'uo
且	：拙，齊齒；假開三上麻清，七也切	ts'ja	ts'ie	tɕ'ie
寢	：臻，齊齒；深開三上寢清，七稔切	ts'jem	ts'jəm	tɕ'in
忖	：臻，合口；臻合一上混清，倉本切	ts'uən	ts'uən	ts'uən
慘	：山，開口；咸開一上感清，七感切	ts'Am	ts'am	ts'an
淺	：山，齊齒；山開三上獮清，七濱切	ts'jəm	ts'jem	tɕ'ian
忝	：山，合口；山合一上緩清，千短切	ts'uan		ts'uan
擻	：宕，開口；			
搶	：宕，齊齒；宕開三上養清，七兩切	ts'jaŋ	ts'jaŋ	tɕ'iaŋ
70) 流	：流，開口；流開一上厚清，千后切	ts'u		ts'ou
<去>躡	：通，開口；曾開一去嶝清，千鄧切	ts'əŋ		ts'əŋ
倩	：通，齊齒；梗開三去勁清，七政切	ts'jæŋ		tɕ'jɛŋ
諗	：通，合口；通合一去送清，千弄切	ts'uŋ		ts'uŋ
次	：止，開口；止開三去至清，七四切	ts'jei	ts'i	tɕ'i
砌	：止，齊齒；蟹開四去霽清，七計切	ts'iei	ts'i	tɕ'i
趣	：止，撮口；遇合三去遇清，七句切	ts'juo	ts'iu	tɕ'y
醋	：祝，合口；遇合一去暮清，倉故切	ts'uo	ts'u	ts'u
蔡	：蟹，開口；蟹開一去泰清，倉大切	ts'ai	ts'ai	ts'ai
翠	：壘，合口；止合三去至清，七醉切	ts'jei	ts'uei	ts'uei
糙	：効，開口；効開一去号清，七到切	ts'au	ts'au	ts'au

69) 《玉篇》의 反切

70) 《玉篇》의 反切

侑	：効，齊齒；効開三去笑清，七肖切	ts'jæu	ts'iau	tɕ'iau
錯	：果，合口；宕開一入鐸清，倉各切	tsak	ts'u	tsuo/tsau
擦	：假，開口；山開一入曷清，七曷切	ts'at		ts'a
搯	：拙，開口；曾開一入德清，七則切	ts'ək		ts'v/ts'ei
妾	：拙，齊齒；咸開三入葉清，七接切	ts'jæp	ts'ie	tɕ'ie
沁	：臻，齊齒；深開三去沁清，七鳩切	ts'jem	ts'iem	tɕ'in
寸	：臻，合口；臻合一去恩清，倉困切	ts'uən	ts'uən	ts'uən
粲	：山，開口；山開一去翰清，蒼案切	ts'an	ts'am	ts'an
茜	：山，齊齒；山開四去霰清，倉甸切	ts'ien	ts'iem	tɕ'ian
竄	：山，合口；山合一去換清，七亂切	ts'uən	ts'on	ts'uən
縑	：山，撮口；山合三去綿清，七絹切	ts'juən		tɕ'yan
滄	：宕，開口；宕開一去宕清，七浪切	ts'aŋ		ts'aŋ
嗶	：宕，齊齒；宕開三平陽清，千羊切	ts'jaŋ		tɕ'iaŋ
輶	：流，開口；流開一去候清，倉奏切	ts'u	ts'ou	ts'ou
	：流，齊齒；流開三去宥清，千繡切	ts'ju		tɕ'iou

(二) 中古의 從母에서 온 것

<如>層	：通，開口；曾開一平登從，昨稜切	ʤ'əŋ	ts'əŋ	ts'əŋ
情	：通，齊齒；梗開三平清從，疾盈切	ʤ'jəŋ	ts'ieŋ	tɕ'ieŋ
從	：通，合口；通合三平鍾從，疾容切	ʤ'juəŋ	ts'iuŋ	tɕ'uŋ
慈	：止，開口；止開三平之從，疾之切	ʤ'i	ts'i	tɕ'i
齊	：止，齊齒；蟹開四平齊從，徂奚切	ʤ'iei	ts'i	tɕ'i
徂	：祝，合口；遇合一平模從，昨胡切	ʤ'uo	ts'u	ts'u
才	：蟹，開口；蟹開一平哈從，昨哉切	ʤ'Ai	ts'ai	ts'ai
摧	：壘，合口；蟹合一平灰從，昨回切	ʤ'uAi	ts'uei	ts'uei
曹	：効，開口；効開一平豪從，昨勞切	ʤ'au	ts'au	ts'au
樵	：効，齊齒；効開三平宵從，昨焦切	ʤ'jæu	ts'iau	tɕ'iau
矧	：果，合口；果合一平戈從，昨禾切	ʤ'ua	ts'uo	ts'uo
查	：拙，齊齒；假開三平麻從，才邪切	ʤ'ja		tɕ'ie
秦	：臻，齊齒；臻開三平眞從，匠鄰切	ʤ'jen	ts'ien	tɕ'in
存	：臻，合口；臻合一平魂從，徂尊切	ʤ'uən	ts'uən	ts'uən
殘	：山，開口；山開一平寒從，昨干切	ʤ'an	ts'an	ts'an
錢	：山，齊齒；山開三平仙從，昨仙切	ʤ'jæn	ts'ien	tɕ'ian
攢	：山，合口；山合一平桓從，徂畔切	ʤ'uan	ts'on	ts'uan
全	：山，撮口；山合三平仙從，疾緣切	ʤ'juæn	ts'yen	tɕ'yan

藏	：宕，開口；宕開一平唐從，昨郎切	dz'aŋ	ts'aŋ	ts'aŋ
墻	：宕，齊齒；宕開三平陽從，在良切	dz'jaŋ	ts'iaŋ	tɕ'iaŋ
剝	：流，開口；流開一平侯從，徂鈞切	dz'u		ts'ou
脣	：流，齊齒；流開三平尤從，自秋切	dz'ju	ts'iou	tɕ'iou

(기타)

<去>雀：果，齊齒；宕開三入藥精，卽略切(▲)tsjak tɕye/tɕiau

▶ 中古의 淸母字는 《圖經》에서도 淸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從母 平聲字는 《圖經》에서 淸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果攝 開口篇 「雀」字는 예외로 中古의 精母 入聲字에 속하는데, 《圖經》에서 淸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3) 心母

《圖經》의 心母字는 中古의 心母와 全濁邪母字가 합류된 것이며, 中古의 邪母는 《圖經》에서 心母 如·去聲에 배열되었으며, 이것은 濁音淸化 때문이다. 《中原音韻》에서는 /s-/ 이다.

(一) 中古의 心母에서 온 것

<平>曾	：通，開口；曾開一平登心，蘇增切	səŋ	səŋ	səŋ
星	：通，齊齒；梗開四平青心，桑徑切	sieŋ	siəŋ	ɕieŋ
松	：通，合口；通合三平鍾心，思恭切	sjuoŋ	siuŋ	suŋ
思	：止，開口；止開三平之心，息茲切	si	sī	ɕi
西	：止，齊齒；蟹開四平齊心，先稽切	siei	si	ɕi
須	：止，撮口；遇合三平虞心，相兪切	sjuo	siu	ɕy
蘇	：祝，合口；遇合一平模心，素姑切	suo	su	su

腮	：蟹，開口；蟹開一平哈心，蘇來切	sAi	sai	sai
雖	：壘，合口；止合三平脂心，息遺切	sjuei	suei	suei
騷	：効，開口；効開一平豪心，蘇遭切	sau	sau	sau
宵	：効，齊齒；効開三平宵心，相邀切	sjæu	siau	çiau
梭	：果，合口；果合一平戈心，蘇禾切	sua	suo	suo
些	：拙，齊齒；假開三平麻心，寫邪切	sja	sie	çie
辛	：臻，齊齒；臻開三平眞心，息鄰切	sjen	siən	çin
孫	：臻，合口；臻合一平魂心，思渾切	suən	suən	suən
三	：山，開口；咸開一平談心，蘇甘切	sam	sam	san
仙	：山，齊齒；山開三平仙心，相然切	sjæn	sien	çian
酸	：山，合口；山合一平桓心，素官切	suən	son	suan
宣	：山，撮口；山合三平仙心，須緣切	sjuən	syen	çyan
桑	：宕，開口；宕開一平唐心，息郎切	saŋ	saŋ	saŋ
襄	：宕，齊齒；宕開三平陽心，息良切	sjɑŋ	siaŋ	çiaŋ
修	：流，齊齒；流開三平尤心，息流切	sju	siou	çiou

<上>醒	：通，齊齒；梗開四上迥心，蘇挺切	sieŋ	siəŋ	çiŋ
竦	：通，合口；通合三上腫心，息拱切	sjuoŋ	siuŋ	çuoŋ
死	：止，開口；止開三上旨心，息姊切	sjei	si	çi
洗	：止，齊齒；蟹開四上齊心，先禮切	siei	si	çi
諤	：止，撮口；遇開三上語心，私呂切	sjɔ		çy
	：祝，合口；			
認	：蟹，開口；止開三上止心，胥里切(●)	si		çi
髓	：壘，合口；止合三上紙心，息委切	sjue	suei	suei
掃	：効，開口；効開一上皓心，蘇老切	sau	sau	sau
小	：効，齊齒；効開三上小心，私兆切	sjæu	siau	çiau
鎖	：果，合口；果合一上果心，蘇果切	sua	suo	suo
寫	：拙，齊齒；假開三上馬心，悉姐切	sja	sie	çie
糝	：臻，齊齒；咸開一上感心，桑感切(●)	sAm		san
損	：臻，合口；臻合一上混心，蘇本切	suən	suən	suən
笋	：臻，撮口；臻合三上準心，思尹切	sjuən		çyn/suən
傘	：山，開口；山開一上旱心，蘇旱切	san	san	san
獮	：山，齊齒；山開三上獮心，息淺切	sjæn	sien	çian
匱	：山，合口；山合一上緩心，蘇管切	suən		suan
選	：山，撮口；山合三上獮心，息兗切	sjuən	syen	çyan
磔	：宕，開口；宕開一上蕩心，蘇朗切	saŋ	saŋ	saŋ

想	：宕，齊齒；宕開三上養心，息兩切	sjɑŋ	siaŋ	ɕiaŋ
叟	：流，開口；流開一上厚心，蘇后切	su	sou	sou
滂	：流，齊齒；流開三上有心，息有切	sju		ɕiou
<去>	：通，開口；曾開一去噫心，思贈切	səŋ		səŋ
性	：通，齊齒；梗開三去勁心，息正切	sjɛŋ	siɛŋ	ɕiŋ
宋	：通，合口；通合一去宋心，蘇統切	sjuoŋ	suŋ	suŋ
四	：止，開口；止開三去至心，息利切	sjei	si	ɕi
細	：止，齊齒；蟹開四去霽心，蘇計切	siei	si	ɕi
素	：祝，合口；遇合一去暮心，桑故切	suo	su	su
賽	：蟹，開口；蟹開一去代心，先代切	sAi	sai	sai
燥	：効，開口；効開一去号心，先到切	sau	sau	sau
笑	：効，齊齒；効開三去笑心，私妙切	sjæu	siau	ɕiau
咎	：果，開口；果開一去箇心，四箇切	sa		suo
削	：果，齊齒；宕開三入藥心，息約切	sjak	siau	ɕye/ɕiau
捺	：果，合口；宕開一入鐸心，蘇各切	sak		suo/sau
鞞	：假，開口；咸開一入合心，蘇合切	sAp	sa	sa
塞	：拙，開口；曾開一入德心，蘇則切	sək	sai	sv/sei
屑	：拙，齊齒；山開四入屑心，先結切	sjɛt	sie	ɕie
雪	：拙，撮口；山合三入薛心，相絕切	sjuæt	syɛ	ɕye
信	：臻，齊齒；臻開三去震心，息晉切	sjɛn	siɛn	ɕin
噤	：臻，合口；臻合一去隱心，蘇困切	suən	syən	suən
峻	：臻，撮口；臻合三去稕心，私潤切	sjuən	syən	ɕyn/suən
散	：山，開口；山開一去翰心，蘇汗切	san	san	san
線	：山，齊齒；山開三去線心，私箭切	sjæn	sien	ɕian
蒜	：山，合口；山合一去換心，蘇貫切	suaŋ	son	suaŋ
喪	：宕，開口；宕開一去宕心，蘇浪切	sɑŋ	saŋ	saŋ
嗽	：流，開口；流開一去候心，蘇秦切	su	sou	sou
秀	：流，齊齒；流開三去宥心，息救切	sju	siou	ɕiou

(二) 中古의 邪母에서 온 것

<去>序	：止，撮口；遇開三上語邪，徐呂切	zjo	siu	ɕy
遂	：壘，合口；止合三去至邪，徐醉切	zjuei	suei	suei
璇	：山，撮口；山合三去線邪，辛戀切	zjuən	syen	ɕyan
象	：宕，齊齒；宕開三上養邪，徐兩切	zjɑŋ	siaŋ	ɕiaŋ

<如>錫	: 通, 齊齒 ; 梗開三平清邪, 徐盈切	ziɛŋ	siəŋ	tɕ'ɪŋ/ciŋ
席	: 止, 齊齒 ; 梗開三入昔邪, 祥易切	zɕei	si	ɕi
徐	: 止, 撮口 ; 遇開三平魚邪, 似魚切	zjo	siu	tɕ'y/ɕy
隨	: 壘, 合口 ; 止合三平支邪, 旬爲切	zjue	suei	tɕ'uei/ɕuei
邪	: 拙, 齊齒 ; 假開三平麻邪, 徐嗟切	zja	sie	tɕ'ie/ɕie
璇	: 拙, 撮口 ; 山合三平仙邪, 旬綠切(●)	zjuæn		tɕ'ye/ɕye
尋	: 臻, 齊齒 ; 深開三平侵邪, 徐林切	zjem	siəm	tɕ'in/cin
旬	: 臻, 撮口 ; 臻合三平諄邪, 祥遵切	zjuen	syən	tɕ'yn/ts'uən/ɕyn/suən
涎	: 山, 齊齒 ; 山開三平仙邪, 夕連切	zjæn	sien	tɕ'ian/cian
旋	: 山, 撮口 ; 山合三平仙邪, 似宣切	zjuæn	syen	tɕ'yan/ɕyan
祥	: 宕, 齊齒 ; 宕開三平陽邪, 似羊切	zjaŋ	siaŋ	tɕ'iaŋ/ciaŋ
囚	: 流, 齊齒 ; 流開三平尤邪, 似由切	zju	siou	tɕ'iou/ciou

(三) 기타

<平>餽 : 流, 開口 ; 流開三平尤生, 所鳩切(▲●) fju sou



- ▶ 中古의 心母字는 《圖經》에서도 心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 中古의 全濁 邪母字는 《圖經》에서 心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 「席」은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流攝 開口篇 「餽」字는 審二 平聲字에 속하는 것이다. 中古의 審二母는 《圖經》에서 審母로 귀납되는데 이 字는 《圖經》에서 心母 平聲에 배열되었다.

5. 舌根塞 · 擦音 및 零聲母

1) 見母

《圖經》의 見母字는 中古의 見母와 全濁 群母 仄聲字가 合류된 것으로, 中古의 群母 仄聲은 《圖經》에서 見母 如·去聲에 배열되었으며, 이것은 濁音清化 때문이다. 《中原音韻》에서는 /k-/ 이다.

(一) 中古의 見母에서 온 것

<平>庚	: 通, 開口 ; 曾開一平登見, 古恆切	kəŋ	kiəŋ	kəŋ
京	: 通, 齊齒 ; 梗開三平庚見, 舉卿切	kəŋ	kiəŋ	tɕiŋ
公	: 通, 合口 ; 通合一平東見, 古紅切	kuŋ	kuŋ	kuŋ
肩	: 通, 撮口 ; 梗合四平青見, 古螢切	kiuəŋ	kyəŋ	tɕyʉŋ/tɕiŋ
雞	: 止, 齊齒 ; 蟹開四平齊見, 古奚切	kiɛi	ki	tɕi
居	: 止, 撮口 ; 遇開三平魚見, 九魚切	kjo	kiu	tɕy
孤	: 祝, 合口 ; 遇合一平模見, 古胡切	kuo	ku	ku
該	: 蟹, 開口 ; 蟹開一平哈見, 古哀切	kAi	kai	kai
皆	: 蟹, 齊齒 ; 蟹開二平皆見, 古諧切	kɛi	kiɛi	tɕiɛ
乖	: 蟹, 合口 ; 蟹合二平皆見, 古懷切	kuɛi	kuɛi	tɕiɛ
歸	: 壘, 合口 ; 止合三平微見, 舉韋切	kjuəi	kuei	kuei
高	: 効, 開口 ; 効開一平豪見, 古勞切	kau	kau	kau
交	: 効, 齊齒 ; 効開二平肴見, 古肴切	kau	kau	tɕiau
哥	: 果, 開口 ; 果開一平歌見, 古俄切	ka	ko	kv
鍋	: 果, 合口 ; 果合一平戈見, 古禾切	kuɑ	kuo	kuo/kv
加	: 假, 齊齒 ; 假開二平麻見, 古牙切	ka	ka	tɕia
瓜	: 假, 合口 ; 假合二平麻見, 古華切	kua	kua	kua
迦	: 拙, 齊齒 ; 假開二平麻見, 古牙切	ka	ka	tɕia
根	: 臻, 開口 ; 臻開一平痕見, 古痕切	kən	kən	kən
巾	: 臻, 齊齒 ; 臻開三平眞見, 居銀切	kjen	k'ien	tɕin
視 ⁷¹⁾	: 臻, 合口 ; 臻合一平魂見, 戶昆切	kuən	kuən	kuən
君	: 臻, 撮口 ; 臻合三平文見, 舉云切	kjuen	kyən	tɕyn
干	: 山, 開口 ; 山開一平寒見, 古寒切	kan	kan	kan
堅	: 山, 齊齒 ; 山開四平先見, 古賢切	kien	kien	tɕian
官	: 山, 合口 ; 山合一平桓見, 古丸切	kuan	kon	kuan

71) 《漢語大字典》(총8권,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88) 을 보면, 《龍龕手鑑》에 昆과 音이 같다고 되어 있다.

涓	：山，撮口；山合四平先見，古玄切	kiuɛn	kyen	tɕyan
岡	：宕，開口；宕開一平唐見，古郎切	kaŋ	kaŋ	kaŋ
江	：宕，齊齒；江開二平江見，古雙切	kɔŋ	kiaŋ	tɕiaŋ
光	：宕，合口；宕合一平唐見，古黃切	kuɑŋ	kuaŋ	kuaŋ
鉤	：流，開口；流開一平侯見，古侯切	ku	kou	kou
鳩	：流，齊齒；流開三平尤見，居求切	kju	kiou	tɕiou

<上>耿	：通，開口；梗開二上耿見，古幸切	kæŋ	kiəŋ	kəŋ/tɕiŋ
景	：通，齊齒；梗開三上梗見，居影切	kjɛŋ	kiəŋ	tɕiŋ
拱	：通，合口；通合三上腫見，居悚切	kjuoŋ	kuŋ	kuŋ/tɕyʊŋ
炯	：通，撮口；梗合四上迥見，古迥切	kiuɛŋ	kyəŋ	tɕyʊŋ/tɕiŋ
紀	：止，開口；止開三上止見，居理切	ki	ki	tɕi
舉	：止，撮口；遇開三上語見，居許切	kjo	kiu	tɕy
古	：祝，合口；遇合一上姥見，公戶切	kuo	ku	ku
改	：蟹，開口；蟹開一上海見，古亥切	kʌi	kai	kai
解	：蟹，齊齒；蟹開二上蟹見，佳買切	kæi	kiai	tɕie
柺	：蟹，合口；蟹合二上蟹見，乖買切	kuæi		kuai
癸	：壘，合口；止合三上旨見，居誅切	kjuei	kuei	kuei
稿	：効，開口；効開一上皓見，古老切	kau		kau
狡	：効，齊齒；効開二上巧見，古巧切	kau	kau	tɕiau
駮	：果，開口；果開一上駮見，古我切	ka	ko	ky
果	：果，合口；果合一上果見，古火切	kua	kuo	kuo/ky
賈	：假，齊齒；假開二上馬見，古疋切	ka	ka	tɕia
寡	：假，合口；假合二上馬見，古瓦切	kua	kua	kua
諛	：臻，開口；臻開一上很見，古很切	kən		kən
謹	：臻，齊齒；臻開三上隱見，居隱切	kjən	kiən	tɕin
滾	：臻，合口；臻合一上混見，古本切	kuən		kuən
敢	：山，開口；咸開一上敢見，古覽切	kaŋ	kaŋ	kaŋ
減	：山，齊齒；咸開二上賺見，古斬切	kɛm	kiam	tɕian
管	：山，合口；山合一上緩見，古滿切	kuɑn	kon	kuan
捲	：山，撮口；山合三上獮見，居轉切	kjuæn	kyen	tɕyan
眈	：宕，開口；宕開一上蕩見，各朗切	kaŋ		kaŋ
講	：宕，齊齒；江開二上講見，古項切	kɔŋ	kiaŋ	tɕiaŋ
廣	：宕，合口；宕合一上蕩見，古晃切	kuɑŋ	kuaŋ	kuaŋ
狗	：流，開口；流開一上厚見，古厚切	ku	kou	kou
九	：流，齊齒；流開三上有見，舉有切	kju	kiou	tɕi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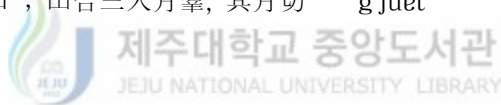
<去>亘	: 通, 開口 ; 曾開一去噉見, 古鄧切	kəŋ	xəŋ	kəŋ
敬	: 通, 齊齒 ; 梗開三去映見, 居慶切	kjəŋ	kiəŋ	tɕiŋ
貢	: 通, 合口 ; 通合一去送見, 古送切	kuŋ	kuŋ	kuŋ
暅	: 通, 撮口 ; 梗合三上梗見, 俱永切(▲)	kiueŋ		tɕyueŋ/tɕiŋ
計	: 止, 齊齒 ; 蟹開四去霽見, 古詣切	kiɛi	ki	tɕi
句	: 止, 撮口 ; 遇合三入遇見, 九遇切	kjo	kiu	tɕy
顧	: 祝, 合口 ; 遇合一去暮見, 古暮切	kuo	ku	ku
蓋	: 蟹, 開口 ; 蟹開一去泰見, 古太切	kai	kai	kai
戒	: 蟹, 齊齒 ; 蟹開二去怪見, 古拜切	kɛi	kiai	tɕiɛ
怪	: 蟹, 合口 ; 蟹合二去怪見, 古壞切	kuɛi	kuai	kuai
貴	: 壘, 合口 ; 止合三去未見, 居胃切	kjuəi	kuei	kuei
告	: 効, 開口 ; 効開一去号見, 古到切	kau	kau	kau
教	: 効, 齊齒 ; 効開二去效見, 古孝切	kau	kau	tɕiau
箇	: 果, 開口 ; 果開一去箇見, 古賀切	ka	ko	ky
角	: 果, 齊齒 ; 江開二入覺見, 古岳切	kək	kau	tɕye/tɕiau
過	: 果, 合口 ; 果合一去過見, 古臥切	kua	kuo	kuo/ky
	: 假, 開口 ;			
架	: 假, 齊齒 ; 假開二去禡見, 古訝切	ka	ka	tɕia
卦	: 假, 合口 ; 蟹合二去卦見, 古賈切	kuɛi	kua	kuai/kuə
革	: 拙, 開口 ; 梗開二入麥見, 古核切	kæk	kai	ky
結	: 拙, 齊齒 ; 山開四入屑見, 古屑切	kiet	kie	tɕiɛ
國	: 拙, 合口 ; 曾合一入德見, 古或切	kuək	kuei	kuo
厥	: 拙, 撮口 ; 山合三入月見, 居月切	kjuət		tɕye
良	: 臻, 開口 ; 臻開一去恨見, 古恨切	kən		kən
棍 ⁷²⁾	: 臻, 合口 ; 臻合一去慁見, 古困切	kuən		kuən
幹	: 山, 開口 ; 山開一去翰見, 古案切	kan	kan	kan
貫	: 山, 合口 ; 山合一去換見, 古玩切	kuən	kon	kuan
眷	: 山, 撮口 ; 山合三去線見, 居倦切	kjuən	kyen	tɕyan
扛	: 宕, 開口 ; 宕開一平唐見, 居郎切(▲)	kaŋ	kaŋ	kaŋ

72) 《廣韻》, 《集韻》, 《洪武正韻》에 모두 胡本切, 臻合一上混匣母字이다. 이것은 《合併字學集韻》에서 이 字가 나타내는 의미와는 다르다. 《正字通》에는 古困切이라 되어 있으며 이것은 《合併字學集韻》에서 이 字가 나타내는 의미와도 통하고 《圖經》의 배열의도에도 부합되므로 이 切을 따른다. 그러므로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國立高雄師範學院國文研究所碩士論文, 民國 77年)에서 匣母로 재구한 것은 잘못이다.

絳 : 宕, 齊齒 ; 江開二去絳見, 古港切	kɔŋ	kiaŋ	tɕiaŋ
誑 : 宕, 合口 ; 宕合三去漾見, 居況切	kjuɑŋ	kuɑŋ	kuɑŋ
夠 : 流, 開口 ; 流開一去候見, 古候切	ku		kou
救 : 流, 齊齒 ; 流開三去宥見, 居祐切	kju	kiou	tɕiou

(二) 中古의 羣母에서 온 것

<上>窘 : 臻, 撮口 ; 臻開三上軫羣, 渠殞切(●)	gʷjɛn	kyən	tɕyn
<去>近 : 臻, 齊齒 ; 臻開三去焮羣, 巨靳切	gʷjən	kiən	tɕin
郡 : 臻, 撮口 ; 臻合三去問羣, 渠運切	gʷjuən	kyən	tɕyn
件 : 山, 齊齒 ; 山開三上彌羣, 其輦切	gʷjæn	kien	tɕian
<如>及 : 止, 開口 ; 深開三入緝羣, 其立切	gʷjɛp	ki	tɕi
局 : 止, 合口 ; 遇合三入濁羣, 渠玉切	gʷjuok	kiu	tɕy
飢 ⁷³⁾ : 果, 齊齒 ; 宕開三入樂羣, 其虐切	gʷjak		tɕye/tɕiau
桀 : 拙, 齊齒 ; 山開三入薛羣, 渠列切	gʷjæt		tɕie
: 拙, 合口 ; 梗合三入麥羣, 求獲切	gʷuæk		tɕi
掘 : 拙, 撮口 ; 山合三入月羣, 其月切	gʷjuet		tɕye



▶ 中古의 見母字는 《圖經》에서도 見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단, 宕攝 開口篇 「扛」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단, 通攝 合口篇 「哽」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革, 結, 國, 厥, 角」이 있는데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群母 仄聲字는 《圖經》에서 見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上聲字는 臻攝 合口篇 「窘」字와 山攝 開口篇 「件」字가 있는데, 「件」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어 全濁 羣母 上聲이 見母 去聲에 배열되는 변화과정과 부합되고 있으며, 「窘」字는 《圖經》에서 上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去聲字는 臻攝 開口篇 「近」字와 臻攝 合口篇 「郡」字가 있는데, 이것은 濁音清化로 見母가 되었으며, 聲調는 그대로 去聲이다.

73)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國立高雄師範學院國文研究所碩士論文, 民國77年)에서는 見母 宕開三入樂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3. 中古의 入聲字는 「及·局·飢·桀· ·拙」이 있는데, 《圖經》에서 모두 見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2) 溪母

《圖經》의 溪母字는 中古의 溪母와 全濁 羣母 平聲字가 합류된 것이다. 中古의 群母 平聲字는 《圖經》에서 溪母 如聲에 배열되었으며, 이것은 濁音清化 때문이다. 《中原音韻》에서는 /k'-/ 이다.

(一) 中古의 溪母에서 온 것

<平>坑	: 通, 開口 ; 梗開二平庚溪, 客庚切	k'ɛŋ	k'iaŋ	k'ɛŋ/tɕ'iaŋ
輕	: 通, 齊齒 ; 梗開三平清溪, 去盈切	k'jɛŋ	k'iaŋ	tɕ'iaŋ
空	: 通, 合口 ; 通合一平東溪, 苦紅切	k'uŋ	k'iuŋ	k'uŋ
穹	: 通, 撮口 ; 通合三平東溪, 去宮切	k'juŋ	k'iuŋ	k'uŋ/tɕ'yuŋ
欺	: 止, 齊齒 ; 止開三平之溪, 去基切	k'i	k'iu	tɕ'i
區	: 止, 撮口 ; 遇合三平虞溪, 豈俱切	k'juo	k'iu	tɕ'y
枯	: 祝, 合口 ; 遇合一平模溪, 苦胡切	k'uo	k'u	k'u
開	: 蟹, 開口 ; 蟹開一平哈溪, 苦哀切	k'ai	k'ai	k'ai
揩	: 蟹, 齊齒 ; 蟹開二平皆溪, 口皆切	k'ɕi	k'iai	k'ai
髡	: 蟹, 合口 ; 蟹合二平佳溪, 苦綱切	k'uæi		k'ua
盔	: 蟹, 合口 ; 蟹合一平灰溪, 苦回切	k'uAi	k'uei	k'uei
尻	: 効, 開口 ; 効開一平豪溪, 苦刀切	k'au	k'au	k'au
敲	: 効, 齊齒 ; 効開二平肴溪, 口交切	k'au	k'au	tɕ'iau
珂	: 果, 開口 ; 果開一平歌溪, 苦何切	k'a	k'o	ky
科	: 果, 合口 ; 果合一平戈溪, 苦禾切	k'ua	k'uo	k'uo/ky
掐	: 假, 齊齒 ; 咸開二入洽溪, 苦洽切	k'ɕp		tɕ'ia
誇	: 假, 合口 ; 假合二平麻溪, 苦瓜切	k'ua	k'ua	k'ua
祛	: 拙, 齊齒 ; 果開三平戈溪, 丘伽切	k'ja		tɕ'ia/tɕ'ie
鞮	: 臻, 開口 ; 臻開一平痕溪, 口恩切	k'an		k'an
欽	: 臻, 齊齒 ; 深開三平侵溪, 去金切	k'jem	k'iam	tɕ'in
坤	: 臻, 合口 ; 臻合一平魂溪, 苦昆切	k'uən	k'uən	k'uən
箇	: 臻, 撮口 ; 臻開三平眞溪, 去倫切	k'jen		tɕ'in
堪	: 山, 開口 ; 咸開一平覃溪, 口含切	k'Am	k'am	k'an

謙	：山，齊齒；咸開四平添溪，苦兼切	k'iem	k'iem	tɕian
寬	：山，合口；山合一平桓溪，苦官切	k'uam	k'on	k'uan
圈	：山，撮口；山合三平仙溪，丘圓切	k'juæn	k'yen	tɕyan
康	：宕，開口；宕開一平唐溪，苦岡切	k'aŋ	k'aŋ	k'aŋ
羌	：宕，齊齒；宕開三平陽溪，去羊切	k'jaŋ	k'iaŋ	tɕiaŋ
匡	：宕，合口；宕合三平陽溪，去王切	k'juaŋ	k'uaŋ	k'uaŋ
樞	：流，開口；流開一平侯溪，恪侯切	k'u	k'ou	k'ou
丘	：流，齊齒；流開三平尤溪，去鳩切	k'ju	k'iou	tɕiou

<上> 啓	：通，開口；梗開二上梗溪，苦杏切	k'ɛŋ		k'əŋ/tɕɛŋ
頃	：通，齊齒；梗合三上精溪，犬穎切	k'jɛŋ	k'yəŋ	tɕɛŋ
孔	：通，合口；通合一上董溪，康董切	k'uŋ	k'uŋ	k'uŋ
起	：止，齊齒；止開三上止溪，墟里切	k'i	k'i	tɕi
詒	：止，撮口；遇開三上語溪，口舉切	k'jo		tɕy
苦	：祝，合口；遇合一上姥溪，康杜切	k'uo	k'u	k'u
愷	：蟹，開口；蟹開一上海溪，苦亥切	k'ʌi		k'ai
夥	：蟹，齊齒；蟹開二上駭溪，苦駭切	k'ɛi		kai
蒯	：蟹，合口；蟹合二去怪溪，苦怪切(▲)	k'ɛi	kuai	k'uai
傀	：壘，合口；蟹合一上賄溪，口猥切	k'uʌi		k'uei
考	：効，開口；効開一上皓溪，苦浩切	k'au	k'au	k'au
巧	：効，齊齒；効開二上巧溪，苦絞切	k'au	k'au	tɕiau
可	：果，開口；果開一上哿溪，枯我切	k'a	k'o	ky
顆	：果，合口；果合一上果溪，苦果切	k'ua	k'uo	k'uo/ky
垮	：假，合口；假合二上馬溪，苦瓦切	k'ua		k'ua
拙	：拙，撮口；			
懇	：臻，開口；臻開一上很溪，康很切	k'an	k'an	k'an
駁	：臻，齊齒；臻合三上準溪，棄忍切	k'juen		tɕyn
捆	：臻，合口；臻合一上混溪，苦本切	k'uən		k'uən
梱	：臻，撮口；臻合一上混溪，苦本切	k'uən		k'uən
坎	：山，開口；咸開一上感溪，苦感切	k'Am	k'am	k'an
遣	：山，齊齒；山開三上獮溪，去演切	k'jæn	k'ien	tɕian
欸	：山，合口；山合一上緩溪，苦管切	k'uən		k'uan
犬	：山，撮口；山合四上銑溪，苦洊切	k'iuən	k'yen	tɕyan
慷	：宕，開口；宕開一上蕩溪，苦朗切	k'aŋ		k'aŋ
硯	：宕，齊齒；宕開三上養溪，丘仰切	k'jaŋ		k'aŋ

爌	：宕，合口；宕合一上蕩溪，丘晃切	k'uaŋ		k'uaŋ
口	：流，開口；流開一上厚溪，苦后切	k'u	k'ou	k'ou
糗	：流，齊齒；流開三上有溪，去久切	k'ju		tɕiou
<去>慶	：通，齊齒；梗開三去映溪，丘敬切	k'jɛŋ	k'iɛŋ	tɕiŋ
控	：通，合口；通合一去送溪，苦貢切	k'uŋ	k'uŋ	k'uŋ
搆	：通，撮口；通合三去送溪，去仲切	k'juŋ		k'uŋ
氣	：止，齊齒；止開三去未溪，去既切	k'i	k'i	tɕi
去	：止，撮口；遇開三去御溪，丘倨切	k'jo	k'iu	tɕy
庫	：祝，合口；遇合一去暮溪，苦故切	k'uo		k'u
慨	：蟹，開口；蟹開一去代溪，苦愛切	k'ai	k'ai	k'ai
咳	：蟹，齊齒；蟹開二去怪溪，苦戒切	k'ei		k'ai
快	：蟹，合口；蟹合二去夫溪，苦夫切	k'ai	k'uai	k'uai/kua
犒	：効，開口；効開一去号溪，苦到切	k'au		k'au
竅	：効，齊齒；効開四去嘯溪，苦弔切	k'ieu	k'iau	tɕiau
渴	：果，開口；山開一入曷溪，苦曷切	k'at	k'o	kv
却	：果，齊齒；宕開三入藥溪，去約切	k'jak		tɕye/tɕiau
課	：果，合口；果合一去過溪，苦臥切	k'ua	k'uo	k'uo/kv
鼓	：假，開口；蟹開一去泰溪，苦蓋切(●)	k'ai		k'ai
恰	：假，齊齒；咸開二入洽溪，苦洽切	k'ɛp	k'a	tɕia
跨	：假，合口；假合二去禡溪，苦化切	k'ua	k'ua	k'ua
刻	：拙，開口；曾開一入德溪，苦得切	k'ɛŋ	k'ai	k'y/k'ei
怯	：拙，齊齒；咸開三入業溪，去劫切	k'jɛp	k'ie	tɕie
礪	：拙，合口；梗合二入麥溪，口穫切	k'uæk		tɕi/tɕy
缺	：拙，撮口；山合四入屑溪，苦穴切	k'iuɛt	k'ye	tɕye
揅	：臻，開口；			
揅	：臻，齊齒；深開三去沁溪，丘禁切	k'jem		tɕ'in
困	：臻，合口；臻合一去恩溪，苦悶切	k'uən	k'uən	k'uən
趨	：臻，撮口；臻合三去問溪，丘運切	k'juən		tɕ'yn
勘	：山，開口；咸開一去勘溪，苦紺切	k'am	k'am	k'an
欠	：山，齊齒；咸開三去釅溪，去劍切	k'jem	k'iem	tɕ'ian
嗽 ⁷⁴⁾	：山，合口；山合一去換溪，口喚切	k'uan		k'uan

74) 《集韻》에 奴玩切, 金款 의 音이라고 되어 있으며, 《五音集韻》에 口喚切로 되어 있다. 《圖經》의 배열의도로 보았을 때 《集韻》의 反切을 따라 泥母로 재구하는 것보다 《五音集韻》의 反切을 따르는 것이 金款 과도 音이 같으며 비교적 합당하다고 보아진다.

勸	：山，撮口；山合三去願溪，去願切	kʃuən	kʻyən	tɕʻyan
炕	：宕，開口；宕開一去宕溪，苦浪切	kʻaŋ	kʻaŋ	kʻaŋ
咲	：宕，齊齒；宕開三去漾溪，丘亮切	kʃaŋ		tɕʻiaŋ
匪 ⁷⁵⁾	：宕，合口；宕合三平陽溪，去王切(▲)	kʃuaŋ	kuɑŋ	kʻuaŋ
叩	：流，開口；流開一去候溪，丘喉切	kʻu		kʻou
黝	：流，齊齒；流開三去宥溪，丘救切	kʃu		tɕʻiou

(二) 中古의 羣母에서 온 것

<如>繁	：通，齊齒；梗開三平庚羣，渠京切	gʃjɛŋ	kiəŋ	tɕʻiŋ
	：通，合口；通合一平東羣，渠公切	gʃjuŋ		kʻuŋ
窮	：通，撮口；通合三平東羣，渠弓切	gʃjuŋ	kʻiuŋ	kʻuŋ/tɕʻyʊŋ
奇	：止，齊齒；止開三平支羣，渠羈切	gʃje	ki	tɕʻi
渠	：止，撮口；遇開三平魚羣，强魚切	gʃjo	kʻiu	tɕʻy
葵	：壘，合口；止合三平脂羣，渠佳切	gʃjuei	kʻuei	kʻuei
喬	：効，齊齒；効開三平宵羣，巨嬌切	gʃjæu	kʻiau	tɕʻiau
翺 ⁷⁶⁾	：果，開口；果開一平歌羣，巨何切	gʃa		kʻy
茄	：拙，齊齒；果開三平戈羣，求迦切	gʃjua		tɕʻia/tɕʻie
癩	：拙，撮口；果合三平戈羣，巨靴切	gʃjua	kʻye	tɕʻye
勤	：臻，齊齒；臻開三平欣羣，巨斤切	gʃjən	kʻiən	tɕʻin
羣	：臻，撮口；臻合三平文羣，渠云切	gʃjuən	kʻyən	tɕʻyn
鉗	：山，齊齒；咸開三平鹽羣，巨淹切	gʃjæm	kʻiem	tɕʻian
彊	：山，合口；山合三平仙羣，巨圓切(●)	gʃjuæn	kʻyən	tɕʻyan
權	：山，撮口；山合三平仙羣，巨員切	gʃjuæn	kʻyən	tɕʻyan
强	：宕，齊齒；宕開三平陽羣，巨良切	gʃjaŋ	kʻiaŋ	tɕʻiaŋ
狂	：宕，合口；宕合三平陽羣，巨王切	gʃjuaŋ	kʻuaŋ	kʻuaŋ
求	：流，齊齒；流開三平尤羣，巨鳩切	gʃju	kʻiou	tɕʻiou

(三) 기타

<平>挾	：拙，撮口；山合四入屑見，古穴切(▲)	kiuɛt		tɕʻye
<上>嘎	：假，齊齒；山開二入黠見，古黠切(▲)	kæt		tɕʻia

75) 《廣韻》에 去王切, 《集韻》《洪武正韻》에 曲王切로 모두 「宕合三平陽溪」字이다.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7年)에는 去聲, 漾韻으로 재구되어 있다.

76) 《玉篇》의 反切

<去> 嘸 : 通, 開口 ; 曾開一去嶝見, 古鄧切(▲) kəŋ kəŋ
 愧 : 壘, 合口 ; 止合三去至見, 俱位切(▲) kjuei kuei kuei

▶ 中古의 溪母字는 《圖經》에서도 溪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단, 宕攝 合口篇 「𤑔」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단, 蟹攝 合口篇 「𠵑」字는 《圖經》에서 上聲에 배열되었다.
4. 中古의 入聲字 중 「渴·却·恰·刻·怯·碣·缺」은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으나, 假攝 開口篇 「招」字는 《圖經》에서 平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羣母 平聲字는 《圖經》에서 溪母 如聲으로 귀납되었다.

단, 「嘸·愧·嘎·挾」字는 中古의 見母字이나 《圖經》에서 溪母로 귀납되었다.

3) 影母



《圖經》의 影母字는 中古의 影·疑·喻三(云)·喻四(以)·微·日母字가 합류한 것이며, 대부분의 日母字는 《圖經》에서 稔母로 귀납되었으나, 「爾·二·而」세 字는 /ə/ 韻이 되었으며 影母로 귀납되었다. 《中原音韻》에서는 /v-/ , /o-/(零聲母)이며 단, 「爾·二·而」는 /3-/이다.

(一) 中古의 影母에서 온 것

<平> 古77): 通, 開口 ; 曾開三平蒸影, 於陵切	ʔəŋ	iŋ
英 : 通, 齊齒 ; 梗開三平庚影, 於驚切	ʔjeŋ	iəŋ iŋ
翁 : 通, 合口 ; 通合一平東影, 烏紅切	ʔuŋ	uŋ
雍 : 通, 撮口 ; 通合三平鍾影, 於容切	ʔjuoŋ	iuŋ uŋ
衣 : 止, 齊齒 ; 止開三平微影, 於希切	ʔjəi	i i
淤 : 止, 撮口 ; 遇開三平魚影, 央居切	ʔjo	y

77) 《五音集韻》의 反切

烏	：祝，合口；遇合一平模影，哀都切	ʔuo	u	u
哀	：蟹，開口；蟹開一平哈影，烏開切	ʔAi	ai	ai
歪	：蟹，合口；蟹合二平皆影，烏乖切	ʔuəi	uai	uai
威	：壘，合口；止合三平微影，於非切	ʔjuəi	uei	uei
爇	：効，開口；効開一平豪影，於力切	ʔau	au	au
妖	：効，齊齒；効開三平宵影，於喬切	ʔjæu	iau	iau
阿	：果，開口；果開一平歌影，烏何切	ʔa	o	ɤ
窩	：果，合口；果合一平戈影，烏禾切	ʔua	uo	uo/ɤ
鴉	：假，齊齒；假開二平麻影，於加切	ʔa	a(ia)	ia
窠	：假，合口；假合二平麻影，烏瓜切	ʔua		ua
恩	：臻，開口；臻開一平痕影，烏痕切	ʔən	ən	ən
因	：臻，齊齒；臻開三平眞影，於眞切	ʔjən	iən	in
溫	：臻，合口；臻合一平魂影，烏渾切	ʔuən	uən	uən
氤	：臻，撮口；臻合三平文影，於云切	ʔjuən	yən	yn
安	：山，開口；山開一平寒影，烏寒切	ʔan	an	an
焉	：山，齊齒；山開三平仙影，於乾切	ʔjæn	ien	ian
彎	：山，合口；山合二平刪影，烏關切	ʔan	uan	uan
淵	：山，撮口；山合四平先影，五玄切	ʔjɛn	yen	yan
腌	：宕，開口；咸開三平嚴影，於嚴切(●)	ʔjɛm	iem	ian
央	：宕，齊齒；宕開三平陽影，於良切	ʔjaŋ	iaŋ	iaŋ
汪	：宕，合口；宕合一平唐影，烏光切	ʔuaŋ	uaŋ	uaŋ
謳	：流，開口；流開一平侯影，烏侯切	ʔu	ou	ou
幽	：流，齊齒；流開三平幽影，於蚪切	ʔjəu	iou	iou

<上> 通，開口；

滄	：通，合口；通合一上董影，烏孔切	ʔuŋ		uŋ
矮	：蟹，開口；蟹開二上蟹影，烏蟹切	ʔæi	iai	ai
駘	：蟹，合口；			
委	：壘，合口；止合三上紙影，於詭切	ʔjuəi	uei	uei
襖	：効，開口；効開一上皓影，烏皓切	ʔau	au	au
矮	：果，合口；果合一上果影，鄔果切	ʔua		ye
穩	：臻，開口；臻開一上很影，安很切	ʔən		ən
穩	：臻，合口；臻合一上混影，烏本切	ʔuən	uən	uən
俺	：山，開口；咸合三去梵影，於劔切(●)	ʔjuɛm	iam	an
垝	：宕，開口；宕開一上蕩影，烏朗切	ʔaŋ		aŋ
嘔	：流，開口；流開一上厚影，烏后切	ʔu	ou	ou

<去>	：通，開口；梗開二去諍影，於迸切	ʔæŋ		əŋ/iŋ
瓮	：通，合口；通合一去送影，烏貢切	ʔuŋ		uŋ
輿	：効，開口；効開一去弓影，烏到切	ʔau	au	au
要	：効，齊齒；効開三去笑影，於笑切	ʔjæu	iau	iau
惡	：果，開口；宕開一入鐸影，烏各切	ʔak	o	ɤ
約	：果，齊齒；宕開三入藥影，於略切	ʔjak	iau	ye/iau
亞	：假，齊齒；假開二去禡影，衣嫁切	ʔa	a(ia)	ia
厄	：拙，開口；梗開二入麥影，於革切	ʔæk	ai	ɤ
	：臻，開口；臻開三去焮影，於斬切(●)	ʔjən		in
印	：臻，齊齒；臻開三去震影，於刃切	ʔən	iən	in
暗	：山，開口；咸開一去勘影，烏紺切	ʔAm	am	an
厭	：山，齊齒；咸開三去豔影，於豔切	ʔjəm(ɛm)	iem	ian
盎	：宕，開口；宕開一去宕影，烏浪切	ʔaŋ	aŋ	aŋ
醞	：流，開口；流開一去候影，烏候切	ʔu		ou

<如>娃：假，合口；蟹開二平佳影，於佳切(▲) ʔæi ai

(二) 中古의 疑母에서 온 것

<上>午	：祝，合口；遇合一上姥疑，疑古切	ŋuo	u	u
咬	：効，齊齒；効開二上巧疑，五巧切	ŋau	kau	iau
我	：果，開口；果開一上駕疑，五可切	ŋa	o	ɤ
雅	：假，齊齒；假開二上馬疑，五下切	ŋa	a(ia)	ia
瓦	：假，合口；假合二上馬疑，五寡切	ŋua	ua	ua
仰	：宕，齊齒；宕開三上養疑，魚兩切	ŋjaŋ	niaŋ	niaŋ

<去>硬	：通，齊齒；梗開二去映疑，五孟切	ŋeŋ	iəŋ	iŋ
義	：止，齊齒；止開三去寘疑，宜寄切	ŋje	i	ni/i
玉	：止，撮口；通合三入燭疑，魚欲切	ŋjuok	iu	y
悟	：祝，合口；遇合一去暮疑，五故切	ŋuo	u	u
艾	：蟹，開口；蟹開一去泰疑，五蓋切	ŋai	ai	ai
暍	：蟹，齊齒；蟹開二去卦疑，五懈切	ŋæi		ai
外	：蟹，合口；蟹合一去泰疑，五會切	ŋai	uai	uei/uai
臥	：果，合口；果合一去過疑，吾貨切	ŋua	uo	uo/ɤ
	：假，合口；假開二去禡疑，吾化切	ŋa		ia

月	: 拙, 撮口 ; 山合三入月疑, 魚厥切	ɲjuet	ye	ye
玩	: 山, 合口 ; 山合一去換疑, 五換切	ɲuan		uan
<如>宜	: 止, 齊齒 ; 止開三平支疑, 魚羈切	ɲje	i	mi/i
魚	: 止, 撮口 ; 遇開三平魚疑, 語居切	ɲjo	iu	y
吾	: 祝, 合口 ; 遇合一平模疑, 五乎切	ɲuo	u	u
崖	: 蟹, 開口 ; 蟹開二平佳疑, 五佳切	ɲæi	iai	ia/ie
	: 蟹, 合口 ; 蟹合二平佳疑, 玉高切	ɲuæi		uai
桅	: 壘, 合口 ; 蟹合一平灰疑, 五灰切	ɲuAi	uei	uei/uai
敖	: 効, 開口 ; 効開一平豪疑, 五勞切	ɲau	au	au
堯	: 効, 齊齒 ; 効開四平蕭疑, 五聊切	ɲiɛu	iau	iau
蛾	: 果, 開口 ; 果開一平歌疑, 五何切	ɲa	o	ɤ
訛	: 果, 合口 ; 果合一平戈疑, 五禾切	ɲua	uo	uo/ɤ
牙	: 假, 齊齒 ; 假開二平麻疑, 五加切	ɲa	a(ia)	ia
垠	: 臻, 開口 ; 臻開三平眞疑, 語巾切	ɲjən	iən	in
言	: 山, 齊齒 ; 山開三平元疑, 語軒切	ɲjɛn	ien	ian
原	: 山, 撮口 ; 山合三平元疑, 愚袁切	ɲjuɛn		yan
昂	: 宕, 開口 ; 宕開一平唐疑, 五剛切	ɲaŋ	aŋ	aŋ
齠	: 流, 開口 ; 流開一平侯疑, 五婁切	ɲu		ou

(三) 中古의 喻三(云)母에서 온 것

<平>曰	: 拙, 撮口 ; 山合三入月云, 王伐切	ɥ(j)juet		ye
<上>永	: 通, 撮口 ; 梗合三上梗云, 于憬切	ɥ(j)jɛŋ	iuŋ	yuŋ/iŋ
遠	: 山, 撮口 ; 山合三上阮云, 雲阮切	ɥ(j)juɛn	yen	yan
往	: 宕, 合口 ; 宕合三上養云, 于兩切	ɥ(j)jɔŋ	uaŋ	uaŋ
有	: 流, 齊齒 ; 流開三上有云, 云久切	ɥ(j)ju	iou	iou
<去>運	: 臻, 撮口 ; 臻合三去問云, 王問切	ɥ(j)juən	yən	yn
院	: 山, 撮口 ; 山合三去線云, 王眷切	ɥ(j)juɛn	yen	yan
又	: 流, 齊齒 ; 流開三去宥云, 于救切	ɥ(j)ju	iou	iou
<如>雲	: 臻, 撮口 ; 臻合三平文云, 王分切	ɥ(j)juən	yən	yn
王	: 宕, 合口 ; 宕合三平陽云, 兩方切	ɥ(j)juɔŋ	uaŋ	uaŋ
尤	: 流, 齊齒 ; 流開三平尤云, 羽求切	ɥ(j)ju	iou	iou

(四) 中古의 喻四(以)母에서 온 것

<上>郢	: 通, 齊齒 ; 梗開三上靜以, 以整切	oɲɛŋ	iəŋ	iŋ
以	: 止, 齊齒 ; 止開三上止以, 羊己切	oi	i	i
與	: 止, 撮口 ; 遇開三上語以, 余呂切	ojo	iu	iu
野	: 拙, 齊齒 ; 假開三上馬以, 羊者切	oja	ie	ie
引	: 臻, 齊齒 ; 臻開三上軫以, 余忍切	oən	iən	in
允	: 臻, 撮口 ; 臻合三上準以, 余準切	ojuen	yn	yn
演	: 山, 齊齒 ; 山開三上獮以, 以淺切	oɲæn	ien	ian

<去>用	: 通, 撮口 ; 通合三去用以, 余頌切	ojuoŋ	iuŋ	yuŋ
夜	: 拙, 齊齒 ; 假開三去禡以, 羊謝切	oja	ie	ie
漾	: 宕, 齊齒 ; 宕開三去漾以, 餘亮切	oɲaŋ	iaŋ	iaŋ

<如>盈	: 通, 齊齒 ; 梗開三平淸以, 以成切	oɲɛŋ	iəŋ	iŋ
容	: 通, 撮口 ; 通合三平鍾以, 餘封切	ojuoŋ	iuŋ	yuŋ
椰	: 蟹, 齊齒 ; 假開三平麻以, 以遮切(●)	oja	ja	ie
耶	: 拙, 齊齒 ; 假開三平麻以, 以遮切	oja	ie	ie
寅	: 臻, 齊齒 ; 臻開三平眞以, 翼眞切	oən	iən	in
陽	: 宕, 齊齒 ; 宕開三平陽以, 與章切	oɲaŋ	iaŋ	iaŋ

(五) 中古의 微母에서 온 것

<上>晚	: 山, 合口 ; 山合三上阮微, 無遠切	ŋjuən	van	yan
<去>味	: 壘, 合口 ; 止合三去未微, 無沸切	ŋjuəi	vei	uei
問	: 臻, 合口 ; 臻合三去問微, 亡運切	ŋjuən	vən	uən
望	: 宕, 合口 ; 宕合三去漾微, 巫放切	ŋjuaŋ	vaŋ	uaŋ

<如>文	: 臻, 合口 ; 臻合三平文微, 無分切	ŋjuən	vən	uən
------	-----------------------	-------	-----	-----

(六) 中古의 日母에서 온 것

<上>爾	: 止, 開口 ; 止開三上紙日, 兒氏切	ŋje	ɟi	ə
<去>二	: 止, 開口 ; 止開三去至日, 而至切	ŋjei	ɟi	ə
<如>而	: 止, 開口 ; 止開三平之日, 如之切	ŋi	ɟi	ə

(기타) 中古의 匣母에서 온 것

<去>嘍	：拙，合口；梗合二入陌匣，胡伯切(▲) ʏ(h)uək	xuo
<如>經	：通，開口；梗開二平耕匣，戶耕切(▲) ʏ(h)æŋ	xəŋ/ciŋ
忤	：山，開口；山開一去翰匣，侯吁切(▲) ʏ(h)an	xan
完	：山，合口；山合一平桓匣，胡官切(▲) ʏ(h)uan	on xuan

▶ 中古의 影母字는 《圖經》에서도 影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단, 假攝 合口篇 「娃」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단, 山攝 開口篇 「俺」字는 《圖經》에서 上聲에 배열되었다.
4. 中古의 入聲字 「惡·約·厄」은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疑母字는 《圖經》에서 影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 「玉·月」은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喻三(云)母字는 《圖經》에서 影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 「曰」은 《圖經》에서 平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喻四(以)母字는 《圖經》에서 影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 中古의 微母字는 《圖經》에서 影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 「文」은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 「晚」은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 「味·問·望」은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 中古의 日母 「而·爾·二」字는 近代에 /a/韻이 되어 《圖經》에서는 影母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 「而」은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 「爾」은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 「二」은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단, 「嘍·脛·忤·完」字는 모두 中古의 匣母字인데 「嘍」字는 《圖經》에서 影母 去聲에, 「脛·忤·完」字는 影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4) 曉母

《圖經》의 曉母字는 中古의 曉母와 全濁 匣母가 합류된 것이다. 中古의 全濁 匣母字는 《圖經》에서 曉母 如聲과 去聲에 배열되었으며, 이것은 濁音清化 때문이다. 《中原音韻》에서는 /x-/ 이다.

(一) 中古의 曉母에서 온 것

<平>亨	: 通, 開口 ; 梗開二平庚曉, 許庚切	x(h)ɛŋ	xəŋ	xəŋ/ɕiŋ
興	: 通, 齊齒 ; 曾開三平蒸曉, 虛陵切	x(h)jəŋ	xiəŋ	ɕiŋ
烘	: 通, 合口 ; 通合一平東曉, 呼東切	x(h)uŋ	xuŋ	xuŋ
兄	: 通, 撮口 ; 梗合三平庚曉, 許榮切	x(h)juɛŋ	xiuŋ	ɕyɛŋ/ɕiŋ
呼	: 祝, 合口 ; 遇合一平模曉, 荒烏切	x(h)uo	xu	xu
哈	: 蟹, 開口 ; 蟹開一平哈曉, 呼來切	x(h)Ai	xai	xai
獠	: 蟹, 齊齒 ; 蟹開二平皆曉, 休皆切	x(h)ɛi		ɕie
拙 ⁷⁸⁾	: 蟹, 合口 ; 蟹合二平皆曉, 呼乖切	x(h)uei		xuai
灰	: 壘, 合口 ; 蟹合一平灰曉, 呼恢切	x(h)uAi	xuei	xuei
蒿	: 効, 開口 ; 効開一平豪曉, 呼毛切	x(h)au	xau	xau
哮	: 効, 齊齒 ; 効開二平肴曉, 許交切	x(h)au	xau	xau
訶	: 果, 開口 ; 果開一平歌曉, 虎何切	x(h)ɑ	xo	xɤ
鰕	: 假, 齊齒 ; 假開二平麻曉, 虛加切	x(h)a		ɕia
花	: 假, 合口 ; 假合二平麻曉, 呼瓜切	x(h)a	xua	xua
靴	: 拙, 撮口 ; 果合三平戈曉, 許戈切	x(h)jua	xye	ɕye
欣	: 臻, 齊齒 ; 臻開三平欣曉, 許斤切	x(h)jən	xiən	ɕin
昏	: 臻, 合口 ; 臻合一平魂曉, 呼昆切	x(h)uən	xuən	xuən
薰	: 臻, 撮口 ; 臻合三平文曉, 許云切	x(h)juən	xyən	ɕyn
掀	: 山, 齊齒 ; 山開三平元曉, 虛言切	x(h)jən	xien	ɕian
歡	: 山, 合口 ; 山合一平桓曉, 呼官切	x(h)uan	xon	xuan
喧	: 山, 撮口 ; 山合三平元曉, 況袁切	x(h)juən	xyen	xuan

78) 《玉篇》의 反切

秀	：宕，開口；江開二平江曉，虛江切	x(h)ɔŋ		ɕiaŋ
香	：宕，齊齒；宕開三平陽曉，許良切	x(h)jaŋ	xiaŋ	ɕiaŋ
荒	：宕，合口；宕合一平唐曉，呼光切	x(h)uaŋ	xuaŋ	xuaŋ
駒	：流，開口；流開一平侯曉，呼侯切	x(h)u	xou	xou
休	：流，齊齒；流開三平尤曉，許尤切	x(h)ju	xiou	ɕiou
<上>諱	：通，開口；梗開二上梗曉，虎梗切	x(h)eŋ		xəŋ/ɕiŋ
擗	：通，齊齒；梗開二上梗曉，呼梗切	x(h)eŋ		xəŋ/ɕiŋ
詢	：通，撮口；通合三上腫曉，許拱切	x(h)juoŋ	xiuŋ	xuŋ/ɕyʉŋ
喜	：止，齊齒；止開三上止曉，虛里切	x(h)i	xi	ɕi
許	：止，撮口；遇開三上語曉，虛呂切	x(h)jo	xiu	ɕy
虎	：祝，合口；遇合一上姥曉，胡古切	x(h)uo	xu	xu
海	：蟹，開口；蟹開一上海曉，呼改切	x(h)Ai	xai	xai
悔	：蟹，合口；蟹合一上賄曉，呼罪切	x(h)uAi	xuei	xuei
好	：効，開口；効開一上皓曉，呼皓切	x(h)au	xau	xau
曉	：効，齊齒；効開四上篠曉，馨晶切	x(h)ieʉ	xiau	ɕiau
叵	：果，開口；果開一上哿曉，虛我切	x(h)a		xv
火	：果，合口；果合一上果曉，呼果切	x(h)ua	xuo	xuo/xv
哈	：假，開口；咸開一入合曉，呼合切(●)	x(h)a		ɕia
閤	：假，齊齒；假開二上馬曉，許下切	x(h)a		ɕia
79) 臻	：臻，齊齒；臻開三上軫曉，許忍切	x(h)jen		ɕin
愜	：臻，合口；臻合一上混曉，虎本切	x(h)uəŋ		xuəŋ
罕	：山，開口；山開一上旱曉，呼旱切	x(h)aŋ	xan	xan
險	：山，齊齒；咸開三上琰曉，虛檢切	x(h)jæŋ(ɐm)	xiem	ɕian
愼	：山，撮口；山合三上阮曉，況晚切	x(h)juəŋ		ɕyan
酣	：宕，開口；宕開一上蕩曉，呼朗切	x(h)aŋ		xəŋ
享	：宕，齊齒；宕開三上養曉，許兩切	x(h)jaŋ	xiaŋ	ɕiaŋ
謊	：宕，合口；宕合一上蕩曉，呼晃切	x(h)uaŋ	xuaŋ	xuaŋ
吼	：流，開口；流開一上厚曉，呼后切	x(h)u	xou	xou
朽	：流，齊齒；流開三上有曉，許久切	x(h)ju	xiou	ɕiou
<去>夔	：通，撮口；梗開三去勁曉，休正切	x(h)jeŋ	xyəŋ	ɕyʉŋ/ɕiŋ
係	：止，齊齒；蟹開四去霽曉，胡計切	x(h)iei	xi	ɕi
旭	：止，撮口；通合三入燭曉，許竹切	x(h)juok		ɕy

79) 《玉篇》의 反切

孝	: 効, 齊齒 ; 効開二去効曉, 呼教切	x(h)ieu	xau	ɕiau
吒	: 果, 齊齒 ; 江開二入覺曉, 許覺切	x(h)ɔk		ɕiaŋ
化	: 假, 合口 ; 假合二去禡曉, 呼霸切	x(h)ua	xua	xua
黑	: 拙, 開口 ; 曾開一入德曉, 呼北切	x(h)ək	xei	xv/xei
歇	: 拙, 齊齒 ; 山開三入月曉, 許竭切	x(h)jət	xye	ɕie
血	: 蟹, 撮口 ; 山合四入屑曉, 呼決切	x(h)iuət	xye	ɕye
衅	: 臻, 齊齒 ; 臻開三去震曉, 許覲切	x(h)jen		ɕin
訓	: 臻, 撮口 ; 臻合三去問曉, 許運切	x(h)juən	xyən	ɕyn
楦	: 山, 撮口 ; 山合三去願曉, 虛願切	x(h)juən		ɕyan
向	: 宕, 齊齒 ; 宕開三去漾曉, 許亮切	x(h)jaŋ	xiaŋ	ɕiaŋ
嗅	: 流, 齊齒 ; 流開三去宥曉, 許救切	x(h)ju	xiou	ɕiou

(二) 中古의 匣母에서 온 것

<平>	蝎	: 拙, 齊齒 ; 山開一入曷匣, 胡葛切	ɣ(f)at	xye	xv
	眼 ⁸⁰⁾	: 臻, 開口 ; 臻開一上很匣, 胡壘切	ɣ(f)ən	k'ən	xən
	酣	: 山, 開口 ; 咸開一平談匣, 胡甘切	ɣ(f)am	xam	xan
<上>	哄	: 通, 合口 ; 通合一去送匣, 胡貢切	ɣ(f)uŋ	xuŋ	xuŋ
	狠 ⁸¹⁾	: 臻, 開口 ; 臻開一上很匣, 下壘切	ɣ(f)ən	xən	xən
	緩	: 山, 合口 ; 山合一上緩匣, 胡管切	ɣ(f)uan	xon	xuan
<去>	蜉	: 通, 開口 ;			
	幸	: 通, 齊齒 ; 梗開二上耿匣, 胡耿切	ɣ(f)æŋ	xiəŋ	xəŋ/ɕiŋ
	汞	: 通, 合口 ; 通合一上董匣, 胡孔切	ɣ(f)uŋ	xuŋ	xuŋ
	戶	: 祝, 合口 ; 遇合一上姥匣, 侯古切	ɣ(f)uo	xu	xu
	亥	: 蟹, 開口 ; 蟹開一上海匣, 胡改切	ɣ(f)Ai	xai	xai
	薤	: 蟹, 齊齒 ; 蟹開二去怪匣, 胡介切	ɣ(f)ei	xiai	xie
	壞	: 蟹, 合口 ; 蟹合二去怪匣, 胡怪切	ɣ(f)ei	xuai	xuei
	會	: 壘, 合口 ; 蟹合一去泰匣, 黃外切	ɣ(f)uai	xuei	xuei/xuai
	皓	: 効, 開口 ; 効開一上皓匣, 胡老切	ɣ(f)au	xau	xau
	賀	: 果, 開口 ; 果開一去箇匣, 胡箇切	ɣ(f)ɑ	xo	xv
	禍	: 果, 合口 ; 果合一上果匣, 胡果切	ɣ(f)ua	xuo	xuo/xv

80) 《漢語大字典》(총8권,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88)에 很과 같다고 되어 있다.

81) 《篇海類編》의 反切

下	：假，齊齒；假開二上馬匣，胡雅切	ɣ(f)a	xa(xia)	xia
或	：拙，合口；曾合一入德匣，胡國切	ɣ(f)uək		xuo
恨	：臻，開口；臻開一去恨匣，胡良切	ɣ(f)ən	xən	xən
混	：臻，合口；臻合一上混匣，胡本切	ɣ(f)uən	xuən	xuən
旱	：山，開口；山開一上旱匣，胡笥切	ɣ(f)an	xan	xan
現	：山，齊齒；山開四上銑匣，胡典切	ɣ(f)iɛn	xien	ɕian
換	：山，合口；山合一去換匣，胡玩切	ɣ(f)uan	xon	xuan
吭	：宕，開口；宕開一上蕩匣，胡朗切	ɣ(f)aŋ		xɑŋ
晃	：宕，合口；宕合一上蕩匣，胡廣切	ɣ(f)uaŋ	xuaŋ	xuaŋ
厚	：流，開口；流開一上厚匣，胡口切	ɣ(f)u	xou	xou
<如>恒	：通，開口；曾開一平登匣，胡登切	ɣ(f)əŋ	xəŋ	xəŋ
行	：通，齊齒；梗開二平庚匣，戶庚切	ɣ(f)ɛŋ	xiəŋ	xəŋ/ɕiŋ
紅	：通，合口；通合一平東匣，戶公切	ɣ(f)uŋ	xuŋ	xuŋ
雄	：通，撮口；通合三平東匣，胡弓切	ɣ(f)juŋ	xiuŋ	ɕyŋ
畦	：止，齊齒；蟹合四平齊匣，戶圭切(●)	ɣ(f)iuɛi	xi	xuei
胡	：祝，合口；遇合一平模匣，戶吳切	ɣ(f)uo	xu	xu
孩	：蟹，開口；蟹開一平哈匣，戶來切	ɣ(f)Ai	xai	xai
諧	：蟹，齊齒；蟹開二平皆匣，戶皆切	ɣ(f)ɛi	xai	xie
槐	：蟹，合口；蟹合二平皆匣，戶乖切	ɣ(f)ɛi	xuai	xuei
回	：壘，合口；蟹合一平灰匣，戶恢切	ɣ(f)uAi	xuei	xuei
豪	：効，開口；効開一平豪匣，胡刀切	ɣ(f)au	xau	xau
肴	：効，齊齒；効開二平肴匣，胡茅切	ɣ(f)au	xau	ɕiau
何	：果，開口；果開一平歌匣，胡歌切	ɣ(f)a	xo	xɤ
學	：果，齊齒；江開二入覺匣，胡覺切	ɣ(f)ək	xau	xɤ/ɕiau
活	：果，合口；山合一入末匣，戶括切	ɣ(f)uat	xuo	xuo
匣	：假，齊齒；咸開二入狎匣，胡甲切	ɣ(f)ap	xa(xia)	ɕia
滑	：假，合口；山合二入黠匣，戶八切	ɣ(f)uæt	xua	xua
効	：拙，開口；曾開一入德匣，胡得切	ɣ(f)ək	xei	xɤ/xei
協	：拙，齊齒；咸開四入帖匣，胡頰切	ɣ(f)iɛp	xie	ɕie
惑	：拙，合口；曾合一入德匣，胡國切	ɣ(f)uək	xuei	xuo
穴	：拙，撮口；山合四入屑匣，胡決切	ɣ(f)iuɛt	xie	ɕɤe
痕	：臻，開口；臻開一平痕匣，戶恩切	ɣ(f)ən	xən	xən
磧	：臻，齊齒；臻開三平眞匣，下珍切	ɣ(f)jen		ɕin
渾	：臻，合口；臻合一平魂匣，戶昆切	ɣ(f)uən	xuən	xuən
寒	：山，開口；山開一平寒匣，胡安切	ɣ(f)an	xan	xan

賢	：山，齊齒；山開四平先匣，胡田切	ɥ(f)ien	xien	ɕian
桓	：山，合口；山合一平桓匣，胡官切	ɥ(f)uan	xon	xuan
玄	：山，撮口；山合四平先匣，胡涓切	ɥ(f)iuɛn	xyen	ɕyan
杭	：宕，開口；宕開一平唐匣，胡郎切	ɥ(f)ɑŋ	xɑŋ	xɑŋ
降	：宕，齊齒；江開二平江匣，下江切	ɥ(f)ɔŋ	xiaŋ	ɕiaŋ
黃	：宕，合口；宕合一平唐匣，胡光切	ɥ(f)uɑŋ	xuaŋ	xuaŋ
侯	：流，開口；流開一平侯匣，戶鉤切	ɥ(f)u	xou	xou

(三) 기타

<如>驕：止，撮口；臻合三入術以，餘律切(▲) ojuet y

▶ 中古의 曉母字는 《圖經》에서도 曉母이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도 平聲이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4. 中古의 入聲字는 「哈·旭·吒·黑·獸·血」字가 있는데, 그 중 「哈」字는 《圖經》에서 上聲에 배열되고 나머지는 去聲에 배열되었다.

▶ 中古의 全濁 匣母字는 《圖經》에서 曉母 如·去聲字로 귀납되었다.

1. 中古의 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단, 「酣」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지 않고 平聲에 배열되었다.
2. 中古의 上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단, 「狠·緩」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3. 中古의 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단, 通攝 合口篇 「哄」字는 《圖經》에서 上聲에 배열되었다.
4. 中古의 入聲字 중 「學·活·匣·滑·劾·協·感·穴」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으나, 拙攝 開口篇 「蝎」字는 《圖經》에서 平聲에, 拙攝 合口篇 「或」字는 去聲에 배열되었다.

단, 止攝 合口篇 「驕」字는 예외자이다.

「驕」字는 中古의 喻四 入聲字에 속하며,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었다.

IV. 韻 母

1. 陽聲韻

1) 通攝

《圖經》의 通攝은 《切韻指南》의 通, 梗, 曾攝에 해당하는 글자들이며, 梗, 曾 두攝에 속하는 中古의 「庚·耕·淸·靑·蒸·登」과 通攝에 속하는 中古의 「東·冬·鍾」韻의 字들이다. 《中原音韻》의 「庚靑」韻과 「東鍾」韻에 해당된다.

(一) 開口篇

여기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梗, 曾 두攝의 開口字에서 온 것이 많다.

1. 「稱·生·征·仍·繩·呈·整·逞·省·秤·扔·勝·正」字 등은 照계 聲母의 권설화로 인하여 開口 3等 細音字가 《圖經》에서는 第2等に 배열되어 開口呼가 된다.
2. 「行·擗·硬·幸」字는 中古의 梗開二等 喉牙音字인데, 그것은 開口가 변해서 齊齒呼가 된 것으로 喉牙音 聲母는 韻母 /-e/ 사이에서 약한 /-i/가 생겨나기 때문에 齊齒呼가 된 것이다.

(二) 合口篇

여기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通攝 「東·冬·鍾」韻과 소수의 梗攝 合口 3·4等字에서 왔다.

1. 通攝合口 3等인 「中·充·蟲·戎·冢·寵·冗·衆·銃·絳」字는 원래 合口 細音인데, 《圖經》에서 第2等に 배열되어 合口呼가 되고 있다. 이것은 照계 聲母의 권설화 때문이다.
2. 第1等に 배열된 「崩·烹·猛·迸·朋· ·孟」字는 中古의 開口 洪音字인데, 《圖經》에서는 合口呼가 되고 있다.
3. 非계인 「封·捧·鳳·馮」字는 모두 中古의 合口 3等 輕脣音이었는데, 《圖經》에서는 그것을 合口篇 第3等인 撮口呼에 배열하고 있다. 이것은 輕脣音 변화과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본 篇의 예외자는 第3等 「隻」字 뿐이다. 「隻」字는 《廣韻》에서 梗開三去勁曉, 休正切로 《圖經》에서 「隻」字는 合口篇 第3等 撮口呼에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開口 細音이 撮口音으로 변한 것이다.

2) 臻攝

《圖經》의 臻攝에 귀납된 字는 開口篇은 中古의 臻攝 開口 1等 「痕·很·恨」, 3等 「眞·軫·震」, 「欣·隱·愀」과 深攝 開口 3等 「侵·寢·沁」韻에서 왔으며, 合口篇은 中古의 臻攝 合口 1等 「魂·混·慁」, 合口 3等 「諄·準·稕」, 「文·吻·問」韻에서 왔다. 《中原音韻》에서는 「眞文」과 「侵尋」韻에 해당된다.

(一) 開口篇

여기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臻攝과 深攝에서 왔다.

1. 臻攝은 /-n/韻이 되고, 深攝은 /-m/韻이 된다. 近代에 /-m/韻은 /-n/韻으로 변화하여 深攝 開口 3等韻은 점차 臻攝 開口 3等韻으로 귀납되었다. 이것은 본 篇이 中古의 臻·深 두 攝의 字를 포함하게 된 과정이다.
2.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礪」字는 《廣韻》에서 咸開四平添透, 他兼切로 《圖經》에서 山攝으로 귀납되어야 한다.
 - (2) 「糝」字는 《廣韻》에서 咸開一上感心, 桑感切로 《圖經》에서 山攝으로 귀납되어야 한다.
 - (3) 「怎」字는 《五音集韻》에서 深開三上寢精, 子吡切로 《圖經》에서 齊齒韻 /-in/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圖經》에서 第1等 /-ən/韻에 배열하여 韻母 변화 과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 (4) 「聘」字는 《廣韻》에서 梗開三去勁滂, 匹正切로 《圖經》에서 通攝에 배열되어야 한다.
 - (5) 「」字는 《廣韻》에서 臻開三去愀影, 於靳切로 《圖經》에서 第3等 齊齒韻 /-in/에 배열되어야 한다.

(二) 合口篇

1. 第3等の 「分·粉·念·汾」字는 中古의 合口 3等 輕脣音字로 원래 본 攝 開口篇 第1等に 배열되어야 하는데, 본 篇 第3等 撮口韻에 배열하고 있다. 이것은 中古의 合口 3等 輕脣音字에 대한 《圖經》에서의 일관된 배열법이다.
2. 第1等 「吩」字는 《集韻》에서 臻開一恨韻滂母, 普問切로 《圖經》에서 본 攝 開口篇 第1等に 배열되어야 하는데, 본 篇 第1等 合口呼에 배열하고 있다. 이것은 中古의 重脣音字에 대한 《圖經》의 일관된 배열법이다.
3. 第1等 「文」은 《廣韻》에서 臻合三文韻微母, 魚分切이고, 「問」은 《廣韻》에서 臻合 三問韻微, 亡運切로 中古의 微母字는 近代에 零聲母字로 많이 변화하였는데

이 字들은 본 篇의 第1等 影母에 배열되어 韻母의 변화 과정에 부합되고 있다.

4.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懣」⁸²⁾字는 《廣韻》에서 臻合一去悤明, 莫困切이다. 이것은 《圖經》에서 본 篇 第1等に 배열되어 변화과정에 잘 부합하고 있으나 聲調는 去聲에 배열되었다.
- (2) 「吞」字는 《廣韻》에서 臻開一上痕透, 吐根切이고, 「燇」字는 《廣韻》에서 臻合一去悤精, 祖寸切로 본 攝의 開口篇 第1等に 배열되어야 한다.
- (3) 「寤」字는 《廣韻》에서 臻合三上軫羣, 渠殞切로, 《圖經》에서 본 攝 開口篇 第3等に 배열되어야 한다.
- (4) 「論」字는 《廣韻》에서 臻合一去悤來, 盧困切로, 《圖經》에서 본 篇 第1等に 배열되어야 한다.

3) 山攝

《圖經》의 山攝에 귀납된 字는 開口篇은 中古의 山·咸攝에서 왔으며, 合口篇은 中古의 山攝 合口韻과 咸攝 「凡」韻에서 왔다. 《中原音韻》에서는 「桓歡」, 「寒山」, 「先天」, 「監咸」, 「廉纖」韻에 해당된다.

(一) 開口篇

여기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山·咸攝에서 왔다. 咸攝의 韻은 원래 /-m/韻尾를 가지고 있으며 近代에 /-m/이 /-n/으로 합류된 이후 그것은 山攝의 韻과 합류되어 함께 《圖經》의 山攝이 되었다.

즉, 咸攝 「覃·談·鹽·添·銜·咸·嚴·凡」은 山攝 「寒·桓·刪·山·先·仙·元」韻으로 귀납되었다. 그리고 中古의 咸攝韻은 거의 開口呼가 되고 「凡」韻만 合口呼이므로, 中古의 咸攝 合口 「凡」韻만 《圖經》의 合口篇에 배열되었다.

(二) 合口篇

여기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山攝 合口에 속하는 韻이며, 咸攝에서 온 것으로는 「凡·范」이 있다.

1. 第1等 「慢」字는 《廣韻》에서 「謨晏切」로 山開一諫韻明母字이다. 《圖經》에서 開口 唇音字는 合口篇 第1等に 배열되는데 이 字도 그 한 예이다.
2. 第3等に 배열된 「番·反·范·凡」字는 《廣韻》에서 모두 山攝 合口 輕唇音이

82) 원래 陰刻字를 작자가 일반 陽刻字로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聲母篇 참고

다. 《圖經》에서 輕唇音은 合口 第3等に 배열하고 있는데, 이 字도 그 한 예이다.
3.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鑄」字는 《廣韻》에서 山合三平仙精, 子泉切이고, 「彊」字는 《廣韻》에서 山合三平仙羣, 巨員切이다. 이 두 字는 본 篇 第3等に 배열되어야 하는데, 第1等に 배열되었다.
- (2) 「攢」字는 《廣韻》에서 山合一入末精, 子括切이다. 中古의 入聲 「末」韻은 《圖經》에서 果攝 合口篇에 배열되어야 한다.

4) 宕攝

《圖經》에서 宕攝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江·宕 두 攝에서 왔는데, 開口篇은 江開 2等 「江·講·絳」, 宕開 1等 「唐·蕩·宕」과 宕開 3等 「陽·養·漾」韻에서 왔으며, 合口篇은 宕開合口 1等 「唐·蕩·宕」과 合口 3等 「陽·養·漾」과 몇몇 江·宕攝 開口韻에서 왔다. 《中原音韻》에서는 「江陽」韻에 해당된다.

(一) 開口篇

여기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江·宕 두 攝에서 왔다. 第3等の 「江·降·講·絳」字는 中古의 江攝 「江·講·絳」韻의 開口 2等 喉牙音字가 中古에서 近代로 오면서 점차 介音 /-i/가 생겨나 開口 洪音이 齊齒呼가 된 것이다.

예외자는 「掩」字가 있는데, 第1等の 「掩」字는 《廣韻》에서 「於嚴切」로 咸開 三嚴韻影母字로 《圖經》에서 山攝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이 字는 宕攝에 배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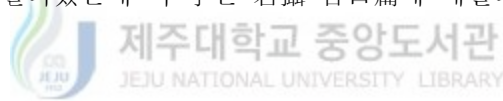
(二) 合口篇

1. 「臆·雙·撞」字는 中古의 江攝 2等 「江·絳」韻에서 온 것으로 知·照계의 字이다. 江攝 2等 知·照계의 字는 본 攝의 合口篇으로 배열되었는데, 반면에 앞에서 보았듯이, 江攝 2等 喉牙音이었던 「江·降·講·絳」字는 開口篇에 배열되었다.
2. 第2等の 「莊·床·爽·創」字는 中古의 宕攝 開口 3等 「陽·養·漾」韻에서 온 것으로 照二系字이다. 照二系는 본 合口篇에 배열되었으며, 반면에 知·照三系字는 開口篇에 배열되었다.
3. 「邦· ·龐」은 中古의 江攝 開口 2等에서 왔고 「忙·榜·莽·滂·謗」은 中古의 宕攝 開口 1等에서 온 것으로 모두 重唇音이다. 《圖經》에서 重唇 開口 洪音은 일반적으로 合口篇에 배열되고 있다.
4. 第3等に 배열된 「方·房·訪·放」字는 모두 中古의 宕攝 合口 3等에서 온 輕

唇音이다. 이것은 원래 第1等に 배열되어야 하는데, 《圖經》은 그것을 第3等に 배열하였다.

5.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瀧」字는 《廣韻》에서 江開二平江來, 呂江切이다. 中古의 江韻은 《圖經》에서 喉牙音은 본 攝의 開口篇에 배열되고, 知·照二계와 唇音은 본 篇에 배열된다. 이 字의 讀音은 현재 이미 /-uŋ/韻이 되어 《圖經》의 音과 다르다. 이 字가 만약 본 篇에 귀납된다면 第1等に 배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第3等は 有音無字이거나, 輕唇音字이기 때문이다.
- (2) 「闕」字는 《廣韻》에서 深開三上沁徹, 丑楚切이다. 中古의 沁韻은 《圖經》에서 臻攝으로 많이 귀납이 되었는데, 이 字는 여기에 배열되었다.
- (3) 「樊」字는 《廣韻》에서 宕開一上蕩從, 徂朗切이다. 中古의 宕韻 精계는 《圖經》에서 본 攝의 開口篇에 많이 귀납이 되었는데, 이 字는 본 篇 第1等に 배열되었다.
- (4) 「胖」字는 《廣韻》에서 山合一去換滂, 普半切이다. 中古의 換韻은 《圖經》에서 山攝에 배열되었는데 이 字는 宕攝 合口篇에 배열되었다.
- (5) 「變」字는 《廣韻》에서 山合二去諫生, 生患切이다. 中古의 諫韻은 《圖經》에서 山攝에 배열되었는데 이 字는 宕攝 合口篇에 배열되었다.



2. 陰聲韻

1) 止攝

《圖經》의 止攝 開口篇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止攝 「支·脂·之·微」韻의 開口 3等과 蟹攝 「皆·齊」韻의 3·4等에서 왔으며, 中古의 入聲 「職·緝·昔·錫·質」韻의 3·4等字에서 왔다. 合口篇은 中古의 遇攝 「魚·語·御」韻 開口 3等과 遇攝 「虞·麌·遇」韻 合口 3等에서 왔으며, 中古의 入聲 「屋·燭·術」韻의 3等字에서 왔다. 그리고 《中原音韻》에서는 「支思」, 「齊微」, 「魚模」韻에 해당된다.

본 攝의 예외자는 「畦」와 「」가 있으며, 「畦」字는 《廣韻》에서 蟹合四平齊匣, 戶圭切이고, 「」字는 《廣韻》에서 蟹開一上海日, 如亥切이다.

2) 祝攝

《圖經》의 祝攝에 귀납된 글자들은 中古의 遇攝 開口 3等 「魚·語·御」韻과 合口 1等 「模·姥·暮」韻, 合口 3等 「虞·麌」韻과 中古의 入聲 「屋·燭·沒」韻에서 왔다. 《中原音韻》에서는 「魚模」韻에 해당된다.

《圖經》에서 祝攝은 유일하게 獨韻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魚·語·御」韻을 제외하면, 다른 韻은 中古에 모두 合口音이었으며 近代에 모두 合口인 /-u/韻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合口韻⁸³⁾이라 할 수 있다. 祝攝에서 「血」字는 《廣韻》에서 通合三入屋娘, 女六切로서, 入聲 屋韻은 近代에 合口呼 /-u/로 변하였기 때문에 《圖經》에서 祝攝 第1·2等に 배열되어야 하는데 이 字만은 第3等に 배열되었다.

3) 蟹攝

《圖經》의 蟹攝에 귀납된 字는 開口篇은 주로 中古의 蟹攝 開口1·2等 「佳·皆·哈」韻과 梗開二等入聲 陌韻에서 왔으며, 合口篇은 中古의 蟹攝 合口1·2等과 止攝合口 3等字에서 왔다. 《中原音韻》에서는 「皆來」韻에 해당된다.

(一) 開口篇

中古의 蟹攝은 《圖經》에서 止·蟹 두 攝으로 귀납되었으며, 蟹攝 3·4等字는 《圖經》의 止攝 開口篇에 많이 귀납되었으며, 蟹攝 開口 1·2等字는 蟹攝에 귀납되었다.

1. 본 篇 제1·2等に 귀납된 字는 董同龢의 《漢語音韻學》의 재구음에 의하면 /-ai/가 되며, 第3等に 귀납된 字 「皆·解·戒·措· ·咳·暍·椰·豨·薤·諧」字는 中古의 蟹開二等 「佳·蟹·卦」, 「皆·駭·怪」韻에 속하며 재구음은 /-iai/로 나중에 /-ie/로 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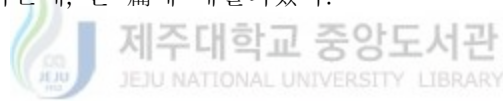
2.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篩」는 《廣韻》에서 止開三平脂生, 疏夷切로 《圖經》에서 止攝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본 篇에 배열되었다.
- (2) 「椰」는 《廣韻》에서 假開三平麻以, 以遮切로 麻韻 3等은, 《圖經》에서 拙攝 開口篇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본 篇에 배열되었다.
- (3) 「認」는 《廣韻》에서 止開三上止心, 胥里切로 止韻은 《圖經》에서 止攝 開口篇에 속해야 하는데, 본 篇에 귀납되었다.

(二) 合口篇

83) 《等韻原流》(趙憇之, 臺北: 文史哲出版社, 中華民國 74年, 218쪽)에 《圖經》 祝攝의 音은 /-u/로 재구되었다.

1. 여기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蟹攝 合口 1·2等에서 왔으며, 제1등의 「 ·擺 ·買 ·賣 ·牌 ·埋」 字는 中古의 蟹攝 開口 2等 「佳 ·蟹 ·卦」 韻 唇音字로서, 開口篇에 배열되지 않고 合口篇에 배열되어 《圖經》의 開口 唇音字에 대한 배열의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擘」 字는 《廣韻》에서 梗開二入麥幫, 傅厄切로 《圖經》에서 果攝 第1等이어야 하는데 본 篇에 배열되었다.
 - (2) 「𪗇」 字는 《廣韻》에서 止合三上紙初, 初委切로 《圖經》에서 壘攝 合口篇으로 배열되어야 하는데 본 篇에 배열되었다.
 - (3) 「衰」 字는 《廣韻》에서 止合三平脂生, 所追切로 《圖經》에서 止攝 開口篇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본 篇에 배열되었다.
 - (4) 「攄」 字는 《廣韻》에서 止開三上紙章, 諸氏切이고, 「揣」 字는 止合三上紙初, 初委切로 《圖經》에서 止攝 開口篇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본 篇에 배열되었다.
 - (5) 「𪗇」 字는 《廣韻》에서 山合三上獮昌, 尺兗切로 《圖經》에서 山攝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본 篇에 배열되었다.
 - (6) 「帥」 字는 《廣韻》에서 止合三去至生, 所類切로 《圖經》에서 壘攝 合口篇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본 篇에 배열되었다.



4) 壘攝

《圖經》의 壘攝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蟹攝 合口 1等과 止攝 合口 3等에서 왔으며 《中原音韻》에서는 「齊微」 韻에 해당된다.

(一) 開口篇

1. 여기에는 重唇音인 幫계와 泥 · 來母에만 해당자가 있다. 中古의 重唇音인 경우 《圖經》에서는 合口篇 第1等に 일관적으로 배열하고 있으나 이 攝은 예외적으로 開口篇에 배열하고 있다.
2.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丕」 字는 中古의 止開三平脂滂, 敷悲切로 《圖經》에서 止攝 開口篇에 배열되어야 한다.
 - (2) 「北」 字는 中古의 曾開一入德幫, 博黑切로 韻母의 변화과정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 (3) 「啡」 字는 中古의 蟹開一上海滂, 匹愷切로 《圖經》에서 蟹攝 開口篇 第1等に 배열되어야 한다.

- (4) 「貝」字는 中古의 蟹開一去泰幫, 博蓋切로 《圖經》에서 蟹攝 開口篇에 배열 되어야 한다.

(二) 合口篇

1. 본 篇은 開口篇처럼 모두 中古의 蟹攝 合口 1等과 止攝 3等과 같은 韻들이 변해서 온 것으로 두 篇의 차이로는 開口篇은 重脣音과 泥·來 두 母가 위주가 되고 合口篇은 見·端·精·照·影계와 같은 合口 洪音이 위주가 된다는 데에 있다.
2. 第3等に 배열된 輕脣音 「飛·匪·沸·肥」는 《圖經》에서 본 篇 第1等に 배열 되어야 하는데, 第3等に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時音에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圖經》에서 合口 3等 輕脣音의 일관된 배열법이다.
3.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諉」字는 《廣韻》에서 止合三去寘娘, 女恚切로 《圖經》에서 止攝 혹은 蟹攝 開口篇에 배열되어야 한다.
 - (2) 「蚤」字는 《集韻》에서 蟹合一平灰泥, 奴回切로, 近代音에서 泥母는 合口音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灰韻 泥母字는 《圖經》에서 壘攝 開口篇 第1等に 배열 되어야 한다.



5) 効攝

中古의 効攝韻은 모두 開口에 속하며, 合口音이 없다. 그러므로 《圖經》의 効攝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効攝 開口音 「豪·肴·宵·蕭」에서 왔으며, 《中原音韻》에서는 「蕭豪」韻에 해당된다.

(一) 開口篇

《圖經》의 「交·敲·哮·肴·狡·巧·咬·孝」字는 中古 開口 2等 喉牙音이 齊齒呼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韻母의 변화과정 중 介音 /-i/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齊齒韻 /-iau/가 되었으며 《圖經》에서는 第3等に 배열하고 있다.

(二) 合口篇

1. 여기에 귀납된 字는 모두 脣音字이다. 「包·胞·袍·毛·保·飴·卯·報·貌」字는 모두 中古의 効攝 1·2等字로 韻母 변화의 과정에 의하면, 그것은 《圖經》에서 効攝 開口篇에 배열되어 /-au/韻이 되어야 하는데 合口篇에 배열되어 /-uau/가 되고 있다. 이것은 《圖經》에서의 일관된 배열방법이다.
2. 예외자로는 「泡」字가 있다. 「泡」字는 《廣韻》에서 効開二平肴滂, 匹交切로

平聲이 아닌 去聲에 배열되어 聲調가 이미 中古와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6) 果攝

《圖經》의 果攝에 귀납된 字는 中古 果攝 開口 1等 「歌·哿·箇」와 入聲 「藥·覺·鐸·曷」韻에서 왔으며, 合口篇은 中古 果攝 開口 1等 「歌·戈」, 合口 1等 「戈·果·過」와 入聲 「覺·鐸·末」韻에서 왔다. 《中原音韻》에서는 「歌戈」韻에 해당된다.

(一) 開口篇

여기에 귀납된 字의 第1·2等은 /-o/이고, 第3等은 /-io/이다. 中古의 開口 1等 「歌·哿·箇·鐸·曷」의 韻은 모두 변화를 거쳐 /-o/韻이 되었기 때문에 《圖經》에서는 그 韻의 字를 第1等 /-o/韻에 배열하고 있으며, 第2等に 배열된 「灼·杓·酌·綽·若·爍」字는 聲母가 권설화로 /-o/가 되었다. 그리고 第3等に 배열된 字들은 그대로 齊齒呼 /-io/韻이 되고 있다.

이외에 中古 開口 2等 覺韻 「學·角·吒」 세 字는 원래 中古의 開口 洪音이었는데 《圖經》에서는 第3等 齊齒呼에 배열하여 /-io/가 되었다. 이것은 中古 開口 2等 喉牙音字는 변화과정 중에 聲母와 韻母간에 쉽게 하나의 介音 /-i/가 생기기 때문에 開口 洪音이 변해서 齊齒呼가 된 것이다.

(二) 合口篇

1. 여기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果合 1等 「戈·果·過」韻과 入聲 「鐸·末·覺」韻의 字이다. 第2等に 배열된 舌齒唇音 「濁·卓·戮·朔」字는 入聲 「覺」韻에서 왔으며, 같은 「覺」韻 喉牙音 「學·角·吒」字는 開口篇에 배열되었다. 第3等에는 「轉·佛」字가 있다.
2.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所」字는 《廣韻》에서 遇開三上語生, 疎舉切이다. 遇攝 開口 3等字는 《圖經》에서 止攝에 배열되어야 한다.
 - (2) 「左」字는 《廣韻》에서 果開一上哿精, 臧可切이다. 果攝 開口字는 近代에도 開口呼이므로 開口篇 第1等に 배열되어야 한다.

7) 假攝

中古의 假攝은 麻韻뿐인데, 麻韻 2等은 假攝으로 귀납이 되고 麻韻 3等은 拙攝으로 귀납이 되었다.

《圖經》의 假攝에 귀납된 字는 開口篇은 中古의 假攝 開口 2等 「麻·馬·禡」韻 외에 또 入聲 「洽·狎·黠·鏃·合·盍·曷·乏」韻에서 왔으며, 合口篇은 中古의 假攝 合口 2等 「麻·馬·禡」韻 이외에 또 入聲 「黠·鏃·乏」韻에서 왔다. 《中原音韻》에서는 「家麻」韻에 해당한다.

(一) 開口篇

1. 第1·2等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麻·馬·禡·合·盍·曷·押·黠」韻의 開口 1·2等에서 왔으며 이것은 開口 洪音이 近代에 開口呼가 된 것이며, 第3等の 「加·招·牙·匣·賈·嘎」字는 中古의 開口 2等韻 喉牙音字이기 때문에 변화과정 중에 쉽게 聲母와 韻母 간에 介音 /-i/가 생겨 開口 洪音이 齊齒呼가 된 것이다.
2.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他」字는 《廣韻》에서 果開一平歌透, 託何切이다. 《圖經》에서 果攝 開口 1等은 果攝 開口篇 第1等に 배열되어야 한다.⁸⁴⁾
 - (2) 「哈」字는 《集韻》에서 咸開一入合曉, 呼合切이다. 이 「哈」字는 開口 喉音이므로 《圖經》에서 果攝 /-o/韻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哈」韻 舌齒音처럼 본 篇에 배열되었다.
 - (3) 「打」字는 《廣韻》에서 梗開二上梗端, 德冷切이다. 이것은 원래 陽聲韻인 「梗」韻이었는데 近代에 陰聲韻이 되었다.
 - (4) 「鼓」字는 《廣韻》에서 蟹開一去泰溪, 苦蓋切이다. 中古의 蟹攝 開口 1等은 《圖經》에서 蟹攝 開口篇에 배열되어야 한다.
 - (5) 「荔」字는 《廣韻》에서 假開二上馬來, 盧下切이고, 「粒」字는 《廣韻》에서 咸開二入洽來, 力洽切이다. 이 두 字는 모두 開口 2等韻 舌音 「來」母로, 非喉牙音字인데도 開口 2等 喉牙音字처럼 齊齒音으로 변하여 第3等に 배열되었다.

(二) 合口篇

1. 第1等に 귀납된 「卦」字는 中古의 蟹合二卦韻字로 假攝 合口 2等韻이 아니지만 /-ua/音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본 篇에 배열되었다.
2. 第3等に 배열된 「法·乏」字는 《圖經》에서 假攝 開口篇 第1等に 배열되지 않고 合口篇 第3等 撮口呼에 배열되어 《圖經》에서의 일관된 輕脣音 배열법을

84)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7年)에서 《漢語史稿》147쪽 現代漢語 /-o/의 來源에서 「他」字는 中古에 /tɑ/로 읽혔는데 어떤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다른 同韻字처럼 /-ɑ/가 /-o/로 변하지 않고 漢語에서 /-ɑ/와 /-a/의 구별이 없을 때 /-a/와 합류되었다고 되어 있다.

보여주고 있다.

3. 第1等 重唇音에 배열된 「巴·葩·把·葩·馬·霸·怕·罵·拔·杷·麻」 등의 字는 「拔」字만 中古의 入聲 點韻 開口2等字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中古의 假攝 開口 2等 「麻·馬·禡」韻의 字로 開口篇 第1等に 배열되어야 하는데, 《圖經》은 그것을 일관적으로 合口篇에 배열하고 있다.
4. 본 篇의 예외자는 「」字뿐이다.
이 字는 《集韻》에서 假合二上馬初, 楚瓦切로 본 篇 第2等に 배열되기는 하였으나, 上聲에서 如聲⁸⁵⁾으로 聲調의 변화가 있다.

8) 拙攝

《圖經》의 拙攝에 귀납된 字는 開口篇은 中古의 假攝 開口 3等 「麻·馬·禡」, 果攝 開口 3等 「戈」韻과 入聲 「德·葉·帖·業·月·屑·薛」韻에서 왔으며, 合口篇은 中古의 果攝 合口 3等 「戈」韻과 入聲 「月·屑·薛·德·陌·麥」韻에서 왔다. 《中原音韻》에서는 「車遮」韻에 해당된다.

(一) 開口篇

中古의 假攝 麻韻 開口 2等은 《圖經》에서 假攝으로 귀납되고, 中古의 假攝 麻韻 開口 3等은 《圖經》에서 拙攝에 귀납되었다. 中古의 果攝도 第1等은 《圖經》에서 果攝으로 귀납되고, 第3等은 《圖經》에서 拙攝으로 귀납되었다. 단, 中古의 第3等字는 《圖經》에서 開口篇은 「迦·茄」두 字만 있고, 合口篇은 「癩·臙」두 字만 있다.

漢語에서 /-ə/韻이 생겨난 것은 매우 나중의 일이라 적어도 《圖經》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ə/韻은 《圖經》중 果·拙 두 攝으로 나뉘어 존재하며, 果攝은 /-o/, /-uo/이고, 拙攝은 /-ɛ/, /-uɛ/가 된다.

(二) 合口篇

1. 여기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入聲字에서 온 것이 많으며 「靴·癩·臙」세 字만이 平聲 「戈」韻 合口字이다. 그리고 「白·百·拍·墨」字는 《圖經》에서의 重唇音에 대한 일관적인 배열방식이다.
2.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掇」字는 《廣韻》에서 假開三平麻日, 儒邪切이고 「嗟」字는 《廣韻》에서

85)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7年)에서는 去聲이 되었다고 했는데, 착오로 보인다.

假開三平麻精, 子邪切로서 「掇」는 본攝 開口篇 第2等에, 「嗟」는 본攝 開口篇 第3等に 배열되어야 한다.

- (2) 「璇」字는 《五音集韻》에서 山合三平仙邪, 旬緣切이다. 이것은 《圖經》에서 山攝에 배열되어야 한다.
- (3) 「白·百·拍·嘯」네 字는 모두 中古의 入聲 陌韻이다. 唇音 「白·百·拍」은 《圖經》에서 果攝 第1等 /-o/韻에 배열되어야 하고, 喉音 「嘯」字는 果攝 혹은 拙攝 開口篇에 배열되어야 한다.

9) 流攝

《圖經》의 流攝 開·合 두 篇에 귀납된 字는 모두 中古의 流攝 「尤·侯·幽」韻에서 왔으며, 合口篇은 尤·侯韻의 唇音字만 있다. 《中原音韻》에서는 「尤侯」韻에 해당된다.

(一) 開口篇

1. 여기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流攝 開口 1等 「侯·厚·候」와 3等 「尤·有·宥」, 「幽·幼」韻에서 왔다. 中古의 流攝 開口 1等 「侯·厚·候」韻에서 온 것은 《圖經》에서 第1等に 배열되고 있으며, 中古의 流攝 開口 3等 「尤·有·宥」韻에서 온 것은 《圖經》에서 第3等に 배열되고 있다. 단, 知·照三계는 近代에 와서 聲母가 권설화되었기 때문에 開口呼가 되므로 「尤·有·宥」韻에서 왔지만, 《圖經》에서 第2等に 배열되고 있다.
2.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 (1) 「餽」字는 《廣韻》에서 流開三平尤生, 所鳩切로 中古의 尤韻이면서 知照계의 字이므로 第2等に 배열되어야 하는데, 이 字는 第1等に 배열되었다.
 - (2) 「熟·肉」字는 《廣韻》에서 모두 屋韻의 字로 《圖經》에서 祝攝에 귀납되어야 한다.

(二) 合口篇

1. 여기에 귀납된 字는 中古의 流攝 開口 1等 重唇音字와 流攝 開口 3等 輕唇音字이다. 中古의 流攝은 流攝 開口篇에만 배열되어야 하는데, 《圖經》에서는 中古의 開口 洪音 重唇音을 合口篇 第1等に, 第3等 輕唇音을 合口篇 第3等に 배열하고 있다.
2. 예외자는 「謨」字가 있다.

「謨」字는 《廣韻》에서 「莫浮切」로 流攝三等尤韻明母字로 開口篇 第3等に 배

열리어야 하는데, 이 字는 第3等字이면서 다른 重唇音처럼 合口篇 第1等に 배열되었다.

- ◆ 다음은 陸志韋의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⁸⁶⁾에서 추정하고 있는 音을 정리 소개한다. 단, 순서는 《圖經》에서 나타내고 있는 攝과 字母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1. 通攝

<開口呼> əŋ

平(登韻) : 庚/k-/ , 坑/k'-/ , 登/t-/ , 瞪/t'-/ , 增/ts-/ , 訇/ts'-/ , 僧/s-/ , 征/tʂ-/ , 稱/tʂ'-/ , 生/s-/ , /o-/ , 亨/x-/

上(等韻) : 耿/k-/ , 𪔐/k'-/ , 等/t-/ , 噤/n-/ , 贈/ts-/ , 整/tʂ-/ , 逞/tʂ'-/ , 拯/z-/ , 省/s-/ , /o-/ , 諍/x-/ , 冷/l-/

去(贈韻) : 亘/k-/ , 峴/k'-/ , 鄧/t-/ , 輜/t'-/ , /n-/ , 贈/tʂ-/ , 贈/tʂ'-/ , /s-/ , 正/tʂ-/ , 秤/tʂ'-/ , 扔/z-/ , 勝/s-/ , /o-/ , 蚌/x-/ , /l-/

如(能韻) : 滕/t'-/ , 能/n-/ , 層/ts'-/ , 呈/tʂ'-/ , 仍/z-/ , 繩/s-/ , 經/o-/ , 恒/x-/ , 楞/l-/

<齊齒呼> iŋ

平(登韻) : 京/k-/ , 輕/k'-/ , 丁/t-/ , 聽/t'-/ , 兵/p-/ , 砰/p'-/ , 旌/ts-/ , 青/ts'-/ , 星/s-/ , 英/o-/ , 興/x-/

上(等韻) : 景/k-/ , 頃/k'-/ , 頂/t-/ , 挺/t'-/ , 寧/n-/ , 丙/p-/ , 滂/p'-/ , 茗/m-/ , 井/ts-/ , 請/ts'-/ , 醒/s-/ , 郢/o-/ , 擗/x-/ , 領/l-/

去(贈韻) : 敬/k-/ , 慶/k'-/ , 定/t-/ , 聽/t'-/ , 甯/n-/ , 並/p-/ , 砵/p'-/ , 命/m-/ , 淨/ts-/ , 倩/ts'-/ , 性/s-/ , 硬/o-/ , 幸/x-/ , 令/l-/

如(能韻) : 檠/k'-/ , 亨/t'-/ , 寧/n-/ , 平/p'-/ , 名/m-/ , 情/ts-/ , 錫/s-/ , 盈/o-/ , 行/x-/ , 伶/l-/

<合口呼> uŋ

平(東韻) : 公/k-/ , 空/k'-/ , 東/t-/ , 通/t'-/ , 崩/p-/ , 烹/p'-/ , 宗/ts-/ , 聰/ts'-/ , 松/s-/ , 中/tʂ-/ , 充/tʂ'-/ , 翁/o-/ , 烘/x-/

上(董韻) : 拱/k-/ , 孔/k'-/ , 董/t-/ , 統/t'-/ , 隴/n-/ , /p-/ , 龔/p'-/ , 猛/m-/ , 總/ts-/ , 臆/ts'-/ , 竦/s-/ , 豕/tʂ-/ , 寵/tʂ'-/ , 冗/z-/ , 滷/o-/ , 哄/x-/ , 攏/l-/

86) 陸志韋,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燕京學報 第32期

去(動韻) : 貢/k-/ , 控/k'-/ , 動/t-/ , 痛/t'-/ , 濃/n-/ , 迸/p-/ , /p'-/ , 孟/m-/ , 粽/ts-/ , 聰/ts'-/ , 宋/s-/ , 衆/ts-/ , 銃/ts'-/ , 掇/z-/ , 瓮/o-/ , 汞/x-/ , 弄/l-/

如(同韻) : 頃/k'-/ , 同/t'-/ , 農/n-/ , 朋/p'-/ , 蒙/m-/ , 從/ts'-/ , 蟲/ts'-/ , 戎/z-/ , 峴/o-/ , 紅/x-/ , 籠/l-/

<撮口呼> **iuŋ**

平(東韻) : 肩/k-/ , 穹/k'-/ , 封/f-/ , 雍/o-/ , 兄/x-/

上(董韻) : 炯/k-/ , 獠/t-/ , 捧/f-/ , 永/o-/ , 詢/x-/ , 隴/l-/

去(動韻) : 叟/k-/ , 擗/k'-/ , 鳳/f-/ , 用/o-/ , 叟/x-/ , /l-/

如(同韻) : 窮/k'-/ , 馮/f-/ , 容/o-/ , 雄/x-/ , 龍/l-/

2. 止攝

<開口呼> **ɿ, ʅ, əɹ**

平(資韻) : 資/tsɿ/ , 雌/tsʅ/ , 思/sɿ/ , 支/tʂʅ/ , 蚩/tʂʅ/ , 詩/sʅ/

上(子韻) : 子/tsɿ/ , 此/tsʅ/ , 死/sɿ/ , 止/tʂʅ/ , 齒/tʂʅ/ , /zʅ/ , 史/sʅ/ , 爾/əɹ/

去(次韻) : 自/tsɿ/ , 次/tsʅ/ , 四/sɿ/ , 至/tʂʅ/ , 尺/tʂʅ/ , 日/zʅ/ , 世/sʅ/ , 二/əɹ/

如(慈韻) : 慈/tsʅ/ , 直/tʂʅ/ , 池/tʂʅ/ , 蒹/zʅ/ , 時/sʅ/ , 而/əɹ/

<齊齒呼> **i**

平(資韻) : 雞/k-/⁸⁷⁾ , 欺/k'-/ , 低/t-/ , 梯/t'-/ , 筵/p-/ , 批/p'-/ , /ts-/ , 妻/ts'-/ , 西/s-/ , 衣/o-/ , 希/x-/

上(子韻) : 紀/k-/ , 起/k'-/ , 底/t-/ , 躄/t'-/ , 你/n-/ , 比/p-/ , 痞/p'-/ , 米/m-/ , 擠/ts-/ , 泚/ts'-/ , 洗/s-/ , 以/o-/ , 喜/x-/ , 李/l-/

去(次韻) : 計/k-/ , 氣/k'-/ , 的/t-/ , 替/t'-/ , 匿/n-/ , 必/p-/ , 譬/p'-/ , 密/m-/ , 積/ts-/ , 砌/ts'-/ , 細/s-/ , 義/o-/ , 係/x-/ , 利/l-/

如(慈韻) : 及/k-/ , 奇/k'-/ , 狄/t-/ , 提/t'-/ , 泥/n-/ , 鼻/p-/ , 皮/p'-/ , 迷/m-/ , 集/ts-/ , 齊/ts'-/ , 席/s-/ , 宜/o-/ , 畦/x-/ , 梨/l-/

<合口呼> **u**

平(居韻) : 珠/tʂ-/ , 擗/tʂ'-/ , 書/s-/

上(舉韻) : 主/tʂ-/ , 楮/tʂ'-/ , 乳/z-/ , 暑/s-/

87) 이 방언의 /ki/ 등은 모두 아직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 방언은 /tɕ-/ , /tɕ'-/ , /ɕ-/가 없으며 실제로 19母만이 있게 되는 것이다. -陸志韋의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81쪽 참조

去(句韻)：住/ts-/，出/ts'-/，褥/z-/，庶/s-/
如(局韻)：逐/ts-/，除/ts'-/，如/z-/，術/s-/

<撮口呼> **iu**

平(居韻)：居/k-/，區/k'-/，沮/ts-/，蛆/ts'-/，須/s-/，淤/o-/，虛/x-/
上(舉韻)：舉/k-/，詿/k'-/，女/n-/，苴/ts-/，取/ts-/，謂/s-/，與/o-/，許/x-/，呂/l-/
去(句韻)：句/k-/，去/k'-/， /n-/，聚/ts'-/，趣/ts-/，序/s-/，玉/o-/，旭/x-/，律/l-/
如(局韻)：局/k-/，渠/k'-/，裯/n-/，峯/ts'-/，徐/s-/，魚/o-/，驕/x-/，閭/l-/

3. 祝攝

<合口呼> **u**

平(都韻)：孤/k-/，枯/k'-/，都/t-/，禿/t'-/，逋/p-/，鋪/p'-/，夫/f-/，租/ts-/，粗/ts'-/，
蘇/s-/，菹/ts-/，初/ts'-/，梳/s-/，烏/o-/，呼/x-/
上(覩韻)：古/k-/，苦/k'-/，覩/t-/，土/t'-/，努/n-/，補/p-/，普/p'-/，母/m-/，府/f-/，
祖/ts-/，蘆/ts'-/， /s-/，阻/ts-/，楚/ts'-/，嘯/s-/，午/o-/，虎/x-/，魯/l-/
去(杜韻)：顧/k-/，庫/k'-/，杜/t-/，兔/t'-/，怒/n-/，布/p-/，撲/p'-/，暮/m-/，福/f-/，
足/ts-/，酷/ts'-/，素/s-/，祝/ts-/，畜/ts'-/，辱/z-/，疏/s-/，悟/o-/，戶/x-/，
祿/l-/
如(獨韻)：獨/t-/，徒/t'-/，奴/n-/，餽/p-/，蒲/p'-/，模/m-/，扶/f-/，卒/ts-/，徂/ts'-/，
軸/ts-/，鉏/ts'-/，蜀/s-/，吾/o-/，胡/x-/，盧/l-/

<撮口呼> **iu**

去(杜韻)：劬/n-/

4. 蟹攝

<開口呼> **ai**

平(哈韻)：該/k-/，開/k'-/，猷/t-/，胎/t'-/，栽/ts-/，齋/ts-/，猜/ts'-/，釵/ts'-/，腮/s-/，
篩/s-/，哀/o-/，哈/x-/
上(海韻)：改/k-/，愷/k'-/，歹/t-/，噯/t'-/，乃/n-/，宰/ts-/，窄/ts-/，采/ts'-/，躡/ts'-/，
認/s-/，汎/s-/，矮/o-/，海/x-/
去(亥韻)：蓋/k-/，慨/k'-/，帶/t-/，泰/t'-/，柰/n-/，在/ts-/，蔡/ts'-/，賽/s-/，債/ts-/，
瘥/ts'-/，曬/s-/，亥/x-/
如(孩韻)：臺/t'-/，蟹/n-/，翟/ts-/，才/ts'-/，紫/ts'-/，崖/o-/，孩/x-/，來/l-/

<齊齒呼> **iai**

平(哈韻) : 皆/k-/ , 揩/k'-/ , 豬/x-/
上(海韻) : 解/k-/ , /k'-/
去(亥韻) : 戒/k-/ , 咳/k'-/ , 暍/o-/ , 薤/x-/
如(孩韻) : 椰/o-/ , 諧/x-/

<合口呼> **uai**

平(乖韻) : 乖/k-/ , 髒/k'-/ , 擘/p-/ , /p'-/ , 毘/ts-/ , 穢/ts'-/ , 衰/s-/ , 歪/o-/ , 犛/x-/
上(拐韻) : 拐/k-/ , 蒯/k'-/ , 擺/p-/ , /p'-/ , 買/m-/ , 挾/ts-/ , 揣/ts'-/ , 踉/o-/
去(怪韻) : 怪/k-/ , 快/k'-/ , 拜/p-/ , 派/p'-/ , 賣/m-/ , /ts-/ , 揣/ts'-/ , 師/s-/ , 外/o-/ ,
壞/x-/
如(槐韻) : 牌/p'-/ , 埋/m-/ , 隴/ts'-/ , /o-/ , 槐/x-/ , 牒/l-/

※ 脣音撮口, p^wai 등이 된다.

5. 壘攝



<開口呼> **ei**

平(盃韻) : 盃/p-/ , 丕/p'-/
上(壘韻) : 餒/n-/ , 北/p-/ , 啡/p'-/ , 每/m-/ , 壘/l-/
去(類韻) : 內/n-/ , 貝/p-/ , 配/p'-/ , 味/m-/ , 類/l-/
如(雷韻) : 陪/p'-/ , 梅/m-/ , 雷/l-/

<合口呼> **uei**

平(灰韻) : 歸/k-/ , 盔/k'-/ , 堆/t-/ , 推/t'-/ , 飛/fei/ , 摧/ts-/ , 崔/ts'-/ , 雖/s-/ , 追/ts-/ ,
吹/ts'-/ , 威/o-/ , 灰/x-/
上(悔韻) : 癸/k-/ , 傀/k'-/ , /t-/ , 腿/t'-/ , 匪/fei/ , 嘴/ts-/ , 誰/ts'-/ , 髓/s-/ , 捶/ts-/ ,
/ts'-/ , 蕤/z-/ , 水/s-/ , 委/o-/ , 悔/x-/
去(會韻) : 貴/k-/ , 愧/k'-/ , 對/t-/ , 退/t'-/ , 諉/n-/ , 沸/fei/ , 最/ts-/ , 翠/ts'-/ , 遂/s-/ ,
墜/ts-/ , 炊/ts'-/ , 芮/z-/ , 瑞/s-/ , 味/o-/ , 會/x-/
如(回韻) : 葵/k'-/ , 頹/t'-/ , 垂/n-/ , 肥/fei/ , 摧/ts'-/ , 隨/s-/ , 垂/ts'-/ , 蕤/z-/ , 誰/s-/ ,
桅/o-/ , 回/x-/

6. 効攝

<開口呼> **ou**

平(蒿韻) : 高/k-/ , 尻/k'-/ , 刀/t-/ , 滔/t'-/ , 槽/ts-/ , 操/ts'-/ , 騷/s-/ , 昭/tʂ-/ , 抄/tʂ'-/ ,
稍/ʂ-/ , 爇/o-/ , 蒿/x-/

上(好韻) : 稿/k-/ , 考/k'-/ , 島/t-/ , 討/t'-/ , 璫/n-/ , 早/ts-/ , 草/ts'-/ , 掃/s-/ , 沼/tʂ-/ ,
炒/tʂ'-/ , 擾/z-/ , 少/ʂ-/ , 襖/o-/ , 好/x-/ , 老/l-/

去(皓韻) : 告/k-/ , 犒/k'-/ , 到/t-/ , 套/t'-/ , 鬧/n-/ , 皂/ts-/ , 糙/ts'-/ , 燥/s-/ , 兆/tʂ-/ ,
鈔/tʂ'-/ , 穉/z-/ , 邵/ʂ-/ , 奧/o-/ , 皓/x-/ , 潦/l-/

如(豪韻) : 陶/t'-/ , 撓/n-/ , 曹/ts'-/ , 晁/tʂ'-/ , 饒/z-/ , 韶/ʂ-/ , 敖/o-/ , 豪/x-/ , 勞/l-/

<齊齒呼> **ieu**

平(蒿韻) : 交/k-/ , 敲/k'-/ , 貂/t-/ , 剽/t'-/ , 標/p-/ , 漂/p'-/ , 焦/ts-/ , /ts'-/ , 宵/s-/ ,
妖/o-/ , 哮/x-/

上(好韻) : 狡/k-/ , 巧/k'-/ , /t-/ , 挑/t'-/ , 鳥/n-/ , 表/p-/ , 瞽/p'-/ , 眇/m-/ , 勦/ts-/ ,
悄/ts'-/ , 小/s-/ , 咬/o-/ , 嘯/x-/ , 了/l-/

去(皓韻) : 教/k-/ , 窈/k'-/ , 吊/t-/ , /t'-/ , 尿/n-/ , 佻/p-/ , 票/p'-/ , 妙/m-/ , 醮/ts-/ ,
俏/ts'-/ , 笑/s-/ , 要/o-/ , 孝/x-/ , 料/l-/

如(豪韻) : 喬/k'-/ , 條/t'-/ , 媯/n-/ , 瓢/p'-/ , 苗/m-/ , 樵/ts'-/ , 堯/o-/ , 肴/x-/ , 僚/l-/

<合口呼> **ou⁸⁸⁾**

平(包韻) : 包/p-/ , 胞/p'-/

上(保韻) : 保/p-/ , 翻/p'-/ , 卯/m-/

去(泡韻) : 報/p-/ , 泡/p'-/ , 貌/m-/

如(袍韻) : 袍/p'-/ , 毛/m-/

7. 果攝

88) 効攝의 合口篇은 실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며, 韻母에 대한 재구음이 陰刻字말고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유명기의 <《合併字學集韻》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를 참조로 唇音 合口呼의 開口化를 적용하여 /-ou/로 한다.

<開口呼> ɔ

平(訶韻) : 哥/k-/ , 珂/k'-/ , 阿/o-/ , 訶/x-/

上(叵韻) : 哿/k-/ , 可/k'-/ , 癸/t-/ , 我/o-/ , 叵/x-/ , 榘/l-/

去(賀韻) : 箇/k-/ , 渴/k'-/ , 鞞/t-/ , 諾/n-/ , 昔/s-/ , 酌/ts-/ , 綽/ts'-/ , 若/z-/ , 爍/s-/ , 惡/o-/ , 賀/x-/ , 絡/l-/

如(何韻) : 翹/k'-/ , 灼/ts-/ , 杓/s-/ , 蛾/o-/ , 何/x-/

<齊齒呼> io

去(賀韻) : 角/k-/ , 却/k'-/ , 遒/n-/ , 爵/ts-/ , 雀/ts'-/ , 削/s-/ , 約/o-/ , 吒/x-/ , 畧/l-/

如(何韻) : 飢/k-/ , 嚙/ts-/ , 學/x-/

<合口呼> uo

平(多韻) : 鍋/k-/ , 科/k'-/ , 多/t-/ , 拖/t'-/ , 波/p-/ , 坡/p'-/ , /ts-/ , 搓/ts'-/ , 梭/s-/ , 窩/o-/

上(朵韻) : 果/k-/ , 顆/k'-/ , 朶/t-/ , 妥/t'-/ , 娜/n-/ , 跛/p-/ , 頗/p'-/ , 抹/m-/ , 左/ts-/ , 陞/ts'-/ , 鎖/s-/ , 所/s-/ , 媿/o-/ , 火/x-/ , 裸/l-/

去(惰韻) : 過/k-/ , 課/k'-/ , 惰/t-/ , 脫/t'-/ , 懦/n-/ , 博/p-/ , 破/p'-/ , 莫/m-/ , 坐/ts-/ , 錯/ts'-/ , 捺/s-/ , 卓/ts-/ , 戳/ts'-/ , 朔/s-/ , 臥/o-/ , 禍/x-/ , 摞/l-/

如(奪韻) : 奪/t-/ , 陀/t'-/ , 那/n-/ , 箔/p-/ , 婆/p'-/ , 魔/m-/ , 昨/ts-/ , 矧/ts'-/ , 濁/ts-/ , 訛/o-/ , 活/x-/ , 羅/l-/

<撮口呼> ɔ⁸⁹⁾

去(惰韻) : 鞞/f-/

如(奪韻) : 佛/f-/

89) 陸志韋는 撮口呼의 唇音字에 대해 당연히 開口篇에 있어야 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 : 假撮 合口篇에서) 이것을 적용하면 비록 果撮에서는 설명이 없지만 開口呼로 재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8. 假攝

<開口呼> a

平(他韻)：他/t'-/, 楂/ts'-/, 叉/ts'-/, 沙/s'-/

上(打韻)：打/t'-/, 搭/t'-/, /n-, 鮐/ts'-/, 躡/ts'-/, 廈/s'-/, 哈/x-, 喇/l-/

去(納韻)： /k-, 豉/k'-/, 苔/t'-/, 榻/t'-/, 納/n-, 乍/ts'-/, 察/ts'-/, 殺/s'-/, 嚙/ts'-/,
擦/ts'-/, 鞞/s-, 辣/l-/

如(拿韻)：達/t'-/, 拿/n-, 雜/ts-, 闌/ts'-/, 茶/ts'-/

<齊齒呼> ia

平(他韻)：加/k-, 招/k'-/, 鴉/o-, 鰕/x-/

上(打韻)：賈/k-, 嘎/k'-/, 雅/o-, 閏/x-, 藟/l-/

去(納韻)：架/k-, 恰/k'-/, 亞/o-, 下/x-, 粒/l-/

如(拿韻)：牙/o-, 匣/x-/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合口呼> ua

平(誇韻)：瓜/k-, 誇/k'-/, 巴/p-, 葩/p'-/, 搗/ts'-/, 窰/o-, 花/x-/

上(把韻)：寡/k-, 誇/k'-/, 把/p-, 杷/p'-/, 馬/m-, 坐/ts'-/, /ts'-/, 耍/s'-/, 瓦/o-/

去(罵韻)：卦/k-, 跨/k'-/, 霸/p-, 怕/p'-/, 罵/m-, 茁/ts'-/, /ts'-/, 刷/s'-/, /o-,
化/x-/

如(麻韻)：拔/p-, 杷/p'-/, 麻/m-, /ts'-/, 娃/o-, 滑/x-/

<撮口呼> a

去(罵韻)：法/f-/

如(麻韻)：乏/f-/

9. 拙攝

<開口呼> **ɛ**

平(遮韻)：遮/ts-/，車/tsʰ-/，奢/s-/

上(者韻)：者/ts-/，扯/tsʰ-/，惹/z-/，捨/s-/

去(哲韻)：革/k-/，刻/kʰ-/，德/t-/，忒/tʰ-/， /n-/，則/ts-/，搥 /tsʰ-/，塞/s-/，哲/tsʰ-/，
冊/tsʰ-/，熱/z-/，色/s-/，厄/o-/，黑/x-/，勒/l-/

如(宅韻)：特/tʰ-/，蟹/ts-/，宅/ts-/，偌/z-/，舌/s-/，劾/x-/

<齊齒呼> **iɛ**

平(遮韻)：迦/k-/，呿/kʰ-/，爹/t-/，癩/ts-/， /tsʰ-/，些/s-/，蝸/x-/

上(者韻)：哆/t-/，乜/m-/，姐/ts-/，且/tsʰ-/，寫/s-/，野/o-/，跬/l-/

去(哲韻)：結/k-/，怯/kʰ-/，喋/t-/，帖/tʰ-/，捏/n-/，繫/p-/， /pʰ-/，滅/m-/，借/ts-/，
妾/tsʰ-/，屑/s-/，夜/o-/，歇/x-/，列/l-/

如(宅韻)：桀/k-/，茄/kʰ-/，牒/t-/，呆/n-/，別/p-/，毗/m-/，截/ts-/， /tsʰ-/，邪/s-/，耶
/o-/，協/x-/，羅/l-/



<合口呼> **uɛ**

去(厥韻)：國/k-/，礪/kʰ-/，百/pɛ-/，拍/pʰɛ-/，墨/mɛ-/，拙/tsʰ-/，噤/tsʰ-/，蕪/z-/，說/s-/，
嘎/o-/，或/x-/

如(掘韻)： /k-/，白/pɛ-/， /tsʰ-/，倭/z-/，惑/x-/

<撮口呼> **iuɛ, (yɛ)**

平(靴韻)：抉/kʰ-/，嗟/ts-/，臼/o-/，靴/x-/

上(拙韻)：拙/kʰ-/

去(厥韻)：厥/k-/，缺/kʰ-/， /ts-/，雪/s-/，月/o-/，血/x-/，劣/l-/

如(掘韻)：掘/k-/，癩/kʰ-/，絕/ts-/，袞/s-/，穴/x-/，羅/l-/

10. 臻攝

<開口呼> **ən**

平(根韻)：根/k-/，鞞/k'-/，眞/ts-/，嘖/ts'-/，申/s-/，恩/o-/，眼/x-/，

上(諛韻)：諛/k-/，懇/k'-/，恠/t'-/，怎/ts-/，軫/ts-/，磳/ts'-/，忍/z-/，矧/s-/，穠/o-/，
狠/x-/

去(恨韻)：良/k-/，捐/k'-/，振/ts-/，趁/ts'-/，刃/z-/，慎/s-/， /o-/，恨/x-/

如(痕韻)：陳/ts'-/，人/z-/，神/s-/，垠/o-/，痕/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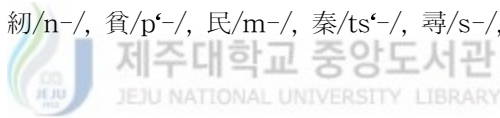
<齊齒呼> in

平(根韻)：巾/k-/，欽/k'-/，醴/t'-/，賓/p-/，別/p'-/，津/ts-/，侵/ts'-/，辛/s-/，因/o-/，
欣/x-/

上(諛韻)：謹/k-/， /k'-/，您/n-/，脣/p-/，品/p'-/，敏/m-/，儘/ts-/，寢/ts'-/，糝/s-/，
引/o-/， /x-/，凜/l-/

去(恨韻)：近/k-/，揜/k'-/，賃/n-/，擯/p-/，聘/p'-/，愍/m-/，進/ts-/，沁/ts'-/，信/s-/，
印/o-/，血/x-/，吝/l-/

如(痕韻)：勤/k'-/，紉/n-/，貧/p'-/，民/m-/，秦/ts'-/，尋/s-/，寘/o-/，磧/x-/，林/l-/



<合口呼> u(ə)n

平(昏韻)：裊/k-/，坤/k'-/，敦/t-/，吞/t'-/，奔/p-/，噴/p'-/，漚/m-/，尊/ts-/，村/ts'-/，
孫/s-/，迍/ts-/，春/ts'-/，溫/o-/，昏/x-/

上(昏韻)：滾/k-/，捆/k'-/，盹/t-/， /t'-/，炳/n-/，本/p-/，裊/p'-/，悞/m-/，樽/ts-/，
村/ts'-/，損/s-/，準/ts-/，蠢/ts'-/，悞/z-/，窳/s-/，穩/o-/，昏/x-/，稔/l-/

去(混韻)：棍/k-/，困/k'-/，囤/t-/，褪/t'-/，嫩/n-/，仝/p-/，吩/p'-/，悶/m-/，樽/ts-/，
寸/ts'-/，嘍/s-/，稔/ts-/，閏/z-/，順/s-/，問/o-/，混/x-/，圃/l-/

如(渾韻)：屯/t'-/，澳/n-/，盆/p'-/，門/m-/，存/ts'-/，脣/ts'-/，稔/z-/，純/s-/，文/o-/，
渾/x-/，崙/l-/

<撮口呼> iun, (yn)

平(昏韻)：君/k-/，箇/k'-/，分/f-/，氳/o-/，薰/x-/

上(昏韻)：窘/k-/，糶/k'-/，粉/f-/，笋/s-/，允/o-/，論/liun/

去(混韻)：郡/k-/， /k'-/，忿/f-/，俊/ts-/，峻/s-/，運/o-/，訓/x-/，論/liun/

如(渾韻)：羣/k'-/, 汾/f'-/, 旬/s'-/, 雲/o'-/, 倫/liun/

11. 山攝

<開口呼> an

平(干韻)：干/k'-/, 堪/k'-/, 丹/t'-/, 貪/t'-/, 鑑/ts'-/, 參/ts'-/, 三/s'-/, 占/tɕ'-/, 詒/tɕ'-/,
山/ɕ'-/, 安/o'-/, 酣/x'-/

上(敢韻)：敢/k'-/, 坎/k'-/, 攄/t'-/, 毯/t'-/, 喃/n'-/, 咎/ts'-/, 慘/ts'-/, 傘/s'-/, 展/tɕ'-/,
產/tɕ'-/, 冉/z'-/, 閃/ɕ'-/, 俺/o'-/, 罕/x'-/, 覽/l'-/

去(炭韻)：幹/k'-/, 勘/k'-/, 但/t'-/, 炭/t'-/, 謫/n'-/, 贊/ts'-/, 餐/ts'-/, 散/s'-/, 湛/tɕ'-/,
懺/tɕ'-/, 誦/z'-/, 扇/ɕ'-/, 暗/o'-/, 旱/x'-/, 濫/l'-/

如(談韻)：談/t'-/, 南/n'-/, 殘/ts'-/, 蟬/tɕ'-/, 然/z'-/, /ɕ'-/, 忤/o'-/, 寒/x'-/, 藍/l'-/

<齊齒呼> iɛn

平(干韻)：堅/k'-/, 謙/k'-/, 拮/t'-/, 天/t'-/, 邊/p'-/, 偏/p'-/, 煎/ts'-/, 僉/ts'-/, 仙/s'-/,
焉/o'-/, 掀/x'-/

上(敢韻)：減/k'-/, 遣/k'-/, 典/t'-/, 忝/t'-/, 碾/n'-/, 扁/p'-/, 諛/p'-/, 免/m'-/, 剪/ts'-/,
淺/ts'-/, 獮/s'-/, 演/o'-/, 險/x'-/, 斂/l'-/

去(炭韻)：件/k'-/, 欠/k'-/, 店/t'-/, 忝/t'-/, 念/n'-/, 變/p'-/, 片/p'-/, 面/m'-/, 踐/ts'-/,
茜/ts'-/, 線/s'-/, 厭/o'-/, 現/x'-/, 煉/l'-/

如(談韻)：鉗/k'-/, 田/t'-/, 年/n'-/, 胼/p'-/, 綿/m'-/, 錢/ts'-/, 涎/s'-/, 言/o'-/, 賢/x'-/,
連/l'-/

<合口呼> uan

平(湍韻)：官/k'-/, 寬/k'-/, 崑/t'-/, 湍/t'-/, 班/pan/, 潘/p'an/, 鑄/ts'-/, 攬/ts'-/, 酸/s'-/,
專/tɕ'-/, 川/tɕ'-/, 拴/ɕ'-/, 彎/o'-/, 歡/x'-/

上(腫韻)：管/k'-/, 欸/k'-/, 短/t'-/, 腫/t'-/, 暖/n'-/, 板/pan/, 販/p'an/, 滿/man/, 殯
/ts'-/, /ts'-/, 匱/s'-/, 轉/tɕ'-/, 喘/tɕ'-/, 軟/z'-/, 晚/o'-/, 緩/x'-/, 卵/l'-/

去(豕韻)：貫/k'-/, 榷/k'-/, 斷/t'-/, 豕/t'-/, 便/n'-/, 半/pan/, 判/p'an/, 慢/man/, 擻

/ts-/，竄/ts'-/，蒜/s-/，撰/tʂ-/，釧/tʂ'-/，嬖 /z-/，瀾/ʂ-/，玩/o-/，換/x-/，
亂/l-/

如(團韻)：孳/k'-/，團/t'-/，媼/n-/，盤/p'an/，蠻/man/，攢/ts'-/，船/tʂ'-/，埂/z-/，諱
/ʂ-/，完/o-/，桓/x-/，欒/l-/

<撮口呼> iuen, (yɛn)

平(端韻)：涓/k-/，圈/k'-/，權 /t-/，番/fan/，筌/ts'-/，宣/s-/，淵/o-/，喧/x-/

上(腫韻)：捲/k-/，犬/k'-/，賧/n-/，反/fan/，選/s-/，遠/o-/，愼/x-/，戀/l-/

去(象韻)：眷/k-/，勸/k'-/，范/fan/，怪/ts-/，縲/ts'-/，鏃/s-/，院/o-/，愼/x-/，戀/l-/

如(團韻)：權/k'-/，凡/fan/，全/ts'-/，旋/s-/，原/o-/，玄/x-/，攣/l-/

12. 宕攝

<開口呼> aŋ

平(當韻)：岡/k-/，康/k'-/，當/t-/，湯/t'-/，臧/ts-/，倉/ts'-/，桑/s-/，章/tʂ-/，昌/tʂ'-/，
商/ʂ-/，庵/o-/，夯/x-/

上(党韻)：吭/k-/，慷/k'-/，党/t-/，倘/t'-/，曩/n-/，駟/ts-/， /ts'-/，穰/s-/，掌/tʂ-/，
廠/tʂ'-/，曩/z-/，賞/ʂ-/，塊/o-/，盦/x-/，朗/l-/

去(揚韻)：扛/k-/，炕/k'-/，宕/t-/，揚/t'-/，曩/n-/，葬/ts-/， /ts'-/，喪/s-/，丈/tʂ-/，
唱/tʂ'-/，讓/z-/，上/ʂ-/，盎/o-/，吭/x-/，浪/l-/

如(唐韻)：唐/t'-/，囊/n-/，藏/ts'-/，腸/tʂ'-/，穰/z-/，裳/ʂ-/，昂/o-/，杭/x-/，郎/l-/

<齊齒呼> iaŋ

平(當韻)：江/k-/，羌/k'-/，漿/ts-/，鎗/ts'-/，襄/s-/，央/o-/，香/x-/

上(党韻)：講/k-/，硯/k'-/， /n-/，蔣/ts-/，搶/ts'-/，想/s-/，仰/o-/，亨/x-/，兩/l-/

去(揚韻)：絳/k-/，哢/k'-/，釀/n-/，醬/ts-/，嗆/ts'-/，象/s-/，漾/o-/，向/x-/，亮/l-/

如(唐韻)：強/k'-/，孃/n-/，墻/ts'-/，祥/s-/，陽/o-/，降/x-/，良/l-/

<合口呼> uaŋ

平(光韻)：光/k-/，匡/k’-/，邦/paŋ/, /p’aŋ/, 莊/ts-/，臆/ts’-/，雙/s-/，汪/o-/，荒/x-/
 上(廣韻)：廣/k-/，爇/k’-/，榜/paŋ/, 𠵼 /p’aŋ/, 莽/maŋ/, 𦉳/ts-/，闖/ts’-/，爽/s-/，往
 /o-/，謊/x-/
 去(晃韻)：誑/k-/，匡/k’-/，謗/paŋ/, 𦉳/p’aŋ/, 溱/m-/，撞/ts-/，創/ts’-/， /s-/，望
 /o-/，晃/x-/
 如(黃韻)：狂/k’-/，猥 /n-/，龐/p’aŋ/, 忙/maŋ/, 床/ts’-/，王/o-/，黃/x-/

<撮口呼> aŋ, iuaŋ

平(光韻)：方/faŋ/
 上(廣韻)：訪/faŋ/
 去(晃韻)：放/faŋ/
 如(黃韻)：房/faŋ/, 瀧/liuaŋ/

13. 流攝



<開口呼> əu

平(麴韻)：鈎/k-/，摳/k’-/，兜/t-/，偷/t’-/，謔/ts-/， /ts’-/，餽/s-/，鄒/ts-/，抽/ts’-/，
 收/s-/，謳/o-/，麴/x-/
 上(吼韻)：狗/k-/，口/k’-/，斗/t-/，𦉳/t’-/，吼/n-/，走/ts-/， /ts’-/，叟/s-/，肘/ts’-/，
 丑/ts’-/，肉/z-/，手/s-/，嘔/o-/，吼/x-/，篋/l-/
 去(厚韻)：夠 /k-/，叩/k’-/，豆/t-/，透/t’-/，耨/n-/，奏/ts-/，輓/ts’-/，嗽/s-/，紂/ts’-/，
 臭/ts’-/，肉/z-/，受/s-/，謳/o-/，厚/x-/，陋/l-/
 如(侯韻)：頭/t’-/，𦉳/n-/，剝/ts’-/，紂/ts’-/，柔/z-/，熟/s-/，𦉳/o-/，侯/x-/，樓/l-/

<齊齒呼> iəu

平(麴韻)：鳩/k-/，丘/k’-/，丟/t-/，彪/p-/，摯/ts-/，秋/ts’-/，修/s-/，幽/o-/，休/x-/
 上(吼韻)：九/k-/，糗/k’-/，扭/n-/，酒/ts-/，滸/s-/，有/o-/，朽/x-/，柳/l-/
 去(厚韻)：救/k-/，齧/k’-/，粗/n-/，謬/m-/，就/ts-/， /ts’-/，秀/s-/，又/o-/，嗅/x-/，
 齧/l-/

如(侯韻)：求/k'-/, 牛/n-/, 滂/p'-/, 繆/m-/, 酋/ts'-/, 囚/s-/, 尤/o-/, 流/l-/

<合口呼> **əu**

平(桴韻)：桴/p'-/

上(剖韻)：桴/p-/, 剖/p'-/, 謀/m-/

去(韻)： /p-/, /p'-/, 茅/m-/

如(衰韻)：衰/p'-/, 謨/m-/

<撮口呼> **əu**

平(桴韻)：桴/f-/

上(剖韻)：否/f-/

去(韻)：島/f-/

如(衰韻)：桴/f-/



V. 聲 調

1) 平 聲

《圖經》의 平聲에 귀납된 字의 내원은 다음과 같다.

▶ 《圖經》의 平聲字는 대부분 中古의 全清·次清平聲字에서 왔다.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1. 蟹攝 開口篇 「𩇛」字는 中古의 蟹開一平哈疑, 五來切로 次濁平聲字이다. 次濁平聲字는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는데 이 字는 平聲에 배열되었다.
2. 蟹攝 合口篇 「𩇛」字는 中古의 全清上聲字인데 《圖經》에서 照母 平聲에 배열되었다.
3. 假攝 開口篇 「楂」는 中古의 假開二平麻崇, 鉏加切로 全濁平聲字이다. 이 字는 《圖經》에서 穿母 如聲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照母 平聲에 배열되었다.
4. 臻攝 開口篇 「𩇛」90字는 中古의 臻開一上很匣, 胡壘切로 全濁匣母上聲字이다. 中古의 全濁上聲은 近代에 去聲에 배열되는데 이 字는 《圖經》에서 曉母 平聲에 배열되었다.
5. 臻攝 合口篇 「𩇛」91字는 中古의 臻合一去恩明, 莫困切로 次濁明母上聲字인데, 《圖經》에서는 明母 平聲에 배열되었다.
6. 山攝 開口篇 「𩇛」字는 中古의 咸開一平談匣, 胡甘切로, 全濁匣母平聲字에 속한다. 中古의 匣母平聲字는 《圖經》에서 曉母 如聲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이 字는 《圖經》에서 曉母 平聲에 배열되었다.

▶ 《圖經》의 平聲字는 中古의 入聲에서 온 것이 있다.

1. 中古의 清入聲에서 온 것으로, 「禿·擘·招·癩·扶」등의 字가 있다.
2. 中古의 全濁入聲에서 온 것으로 拙攝合口篇 「𩇛」字가 있다.
3. 中古의 次濁入聲에서 온 것으로 拙攝合口篇 「𩇛」字가 있다.

90) 《漢語大字典》(총8권,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88)과 《中文大辭典》(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文化大學出版部, 中華民國七十四年)에 很과 같다고 했으므로 很과 同字로 간주한다.

91) 臻合一上混明, 模本切 / 臻合一去恩明, 莫困切

陸志韋의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燕京學報 第32期)와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國立高雄師範學院國文研究所碩士論文, 民國 77年)에서는 陰刻字이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으로 본다. 陰刻字가 맞다면 예외자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2) 上 聲

《圖經》의 上聲에 귀납된 字의 내원은 다음과 같다.

- ▶ 中古의 全清·次清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 ▶ 中古의 次濁上聲字는 《圖經》에서도 上聲이다.
- ▶ 中古의 全濁上聲字는 《圖經》에서 清去聲에 배열되었다.
- ▶ 《圖經》의 上聲字는 中古의 入聲에서 온 것이 있다.
 1. 中古의 清入聲에서 온 것으로 「北·嘎·搭·哈·窄」 등의 字가 있다.
 2. 中古의 次濁入聲에서 온 것으로 「擷·抹·喇·撻⁹²⁾」 등의 字가 있다.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1. 「挺·挑⁹³⁾·廈·狠·窘·緩·痞·熒⁹⁴⁾」字는 中古의 全濁上聲字인데,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지 않고, 濁音清化때문에 그대로 上聲에 배열되었다.
2. 「嘸·諱⁹⁵⁾·磅」字는 中古의 濁平聲字인데, 《圖經》에서 如聲에 배열되지 않고 上聲에 배열되었다.
3. 「哄·蒯·朮·俺·闖·訪·噉·催」字는 中古의 去聲字들인데, 《圖經》에서 去聲이 아닌 上聲에 배열되었다.
4. 「窰」은 中古의 臻合三平諄知, 陟倫切로 全清平聲字인데, 《圖經》에서 平聲이 아닌 上聲에 배열되었다.

3) 去 聲

《圖經》의 去聲에 귀납된 字의 내원은 다음과 같다.

92) 《字彙補》의 反切

93) 「挑」는 《廣韻》, 《集韻》, 《五音集韻》에서는 모두 「徒了切」로 定母上聲字에 속하는데, 《洪武正韻》에서는 「土了切」로 透母上聲字에 속한다. 이 字는 《圖經》에서 透母上聲에 배열되었으므로 만약 《洪武正韻》을 따른다면, 次清字에 속하므로 예외자가 아니다.

94) 「熒」은 《廣韻》에서 宕開一上蕩從, 徂朗切로 中古의 從母上聲字는 近代에는 精母去聲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이 字는 《圖經》에서 照母上聲에 배열되어 全濁上聲字이면서 清去聲字에 배열이 되지 않은 예외자이다. 그러나, 《集韻》《韻會》《正韻》의 才浪切을 따른다면 漾韻 去聲이 되어 中古의 全濁上聲字가 《圖經》에서 全清照母上聲이 된 예가 된다.

95) 《廣韻》의 山開三平仙並, 房連切을 따랐다.

‘諱’은 劉英璉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7年, 注 10)을 참조하면, 《廣韻》에서 「符善·符蹇」두 切로 모두 奉母上聲字에 속하나, 《集韻》에서는 幫·並 두 母의 上聲字가 되어 《廣韻》에서 수록한 音이 唇音類隔切語가 되어 이것이 《集韻》의 切語가 된 이유라고 하고 있다.

- ▶ 《圖經》의 去聲字는 대부분 中古의 全清·次清·次濁去聲字에서 왔다.
- ▶ 中古의 次濁去聲字는 《圖經》에서도 去聲이다.
- ▶ 中古의 全濁去聲字는 《圖經》에서 濁音清化 후에도 그대로 去聲이다.
- ▶ 中古의 全濁上聲字는 《圖經》에서 역시 去聲에 배열되었다.
- ▶ 中古의 清入聲字와 次濁入聲字는 《圖經》에서 去聲에 많이 배열되었다.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1. 「砵」字는 中古의 曾開三平蒸滂, 披冰切이고 「匪」字는 中古의 宕合三平陽溪, 去王切로 모두 次清平聲字이나,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2. 「圖」字는 中古의 臻合三平諄來, 龍春切이고, 「誦」字는 中古의 咸開三平鹽日, 汝鹽切로 次濁平聲字이나,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3. 「媿」字는 中古의 山合三上獮日, 乳兗切로 次濁上聲字이나,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4. 「嗆」字는 中古의 宕開三平陽清, 千羊切이고 「扛」字는 宕開一平唐見, 居郎切로 모두 清平聲字이나,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5. 「熨」字는 中古의 梗合三上梗見, 俱永切로 全清上聲字이나,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6. 「膾」字는 中古의 山合三上獮昌, 尺兗切로 次清上聲字이나, 《圖經》에서 去聲에 배열되었다.

4) 如 聲

中古의 平聲字는 近代에 聲母의 清濁에 의하여 陰平聲과 陽平聲으로 나뉘었다. 中古의 清平聲은 近代에 陰平聲으로, 濁平聲은 近代에 陽平聲으로 변화하였는데, 《圖經》의 如聲字는 中古의 濁平聲에서 온 것이 많으며, 그 내원은 다음과 같다.

- ▶ 《圖經》의 如聲字는 中古의 全濁·次濁 平聲字에서 왔다.
- ▶ 中古의 全濁入聲字는 《圖經》에서 거의 如聲에 배열되었다.
- ▶ 中古의 清入聲字에서 온 것으로, 「卒·灼· ·聞」字가 있다.
- ▶ 中古의 次濁入聲字에서 온 것으로 「驕」字가 있다.

예외자는 다음과 같다.

1. 「鼻」字는 中古의 止開三去至並, 毗至切로 並母 去聲字에 속한다. 中古의 並母 去聲字는 近代에는 幫母 去聲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이 字는 《圖經》에서 幫母 如

聲에 배열되었다.

2. 「𠂔」字는 中古의 假合二上馬初, 楚瓦切로 穿二 上聲字에 속한다. 中古의 穿二 上聲字는 近代에도 穿母 上聲에 배열되는데 이 字는 《圖經》에서 穿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3. 「𠂔」字는 中古의 假開三去禡日, 人夜切로 日母 去聲字에 속한다. 中古의 日母 去聲字는 近代에도 日母 去聲에 배열되는데, 이 字는 《圖經》에서 稔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4. 「𠂔」字는 中古의 山開一去翰匣, 侯盱切로 全濁 匣母 去聲字인데 《圖經》에서 影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VI. 결 론

《圖經》은 17세기초의 실제 北京音의 체계를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들보다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그 차례 면에서도 매우 독창적인 韻圖이다. 비록 韻圖의 이름에 ‘司馬溫公’이라 되어 있긴 하지만, 《合併篇韻字學便覽引證》부분을 보면 사실 《切韻指南》에 더 많이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切韻指掌圖》가 사실 ‘司馬溫公’이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작자가 오랫동안 ‘司馬溫公’이라 알려져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韻圖의 이름에 집어 넣었거나, 아니면 당시 韻圖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실수라고 여겨진다.

《圖經》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聲·韻·調의 차례면에서 다른 韻圖와 비교해 여러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語音 면에서도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들보다 近代北方音系에 비교적 접근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위의 章에서 살펴본 聲母와 韻母, 聲調의 특징을 정리해 본 것이다.

《圖經》의 聲母는,

첫째, 全濁聲母가 이미 淸化되었다.

(一) 全濁聲母가 塞音 혹은 塞擦音인 並·奉·定·群·從·澄·牀二·牀三母인 경우

1. 全濁平聲은 발음 부위가 같은 次淸聲母로 귀납되었다. 예를 들어 通攝 開口篇 「平」字는 中古의 並母 平聲字인데 《圖經》에서 滂母 如聲에 배열되었고, 通攝 開口篇 「滕」字는 中古의 定母 平聲字인데 《圖經》에서 透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2. 全濁仄聲은 발음 부위가 같은 全淸聲母로 귀납되었다. 즉,

(1) 全濁上聲은 去聲에 배열되었다. 예를 들어 通攝 開口篇 「並」字는 中古의 並母 上聲字인데 《圖經》에서 幫母 去聲에 배열되었고, 通攝 合口篇 「動」字는 中古의 定母 上聲字인데 《圖經》에서 端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2) 全濁去聲은 去聲에 배열되었다. 예를 들어 臻攝 合口篇 「盆」字는 中古의 並母 去聲字인데 《圖經》에서 幫母 去聲에 배열되었고, 通攝 開口篇 「鄧」字는 中古의 定母 去聲字인데 《圖經》에서 端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3) 全濁入聲은 如聲에 배열되었다. 예를 들어 祝攝 「餽」字는 中古의 並母 入聲字인데 《圖經》에서 幫母 如聲에 배열되었고, 止攝 開口篇 「狄」字는 中古의 定母 入聲字인데 《圖經》에서 端母 如聲에 배열되었다.

(二) 全濁聲母가 擦音인 邪·禪·匣母는 淸聲母 心·審·曉母로 귀납되었다.

1. 邪母 平·入聲字는 《圖經》에서 心母 如聲에 배열되었고, 邪母 上·去聲字는 《圖經》에서 心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예를 들어 通攝 開口篇 「錫」字는

中古의 邪母 平聲字이고, 止攝 開口篇 「席」字는 中古의 邪母 入聲字인데 모두 《圖經》에서 心母 如聲에 배열되었으며, 또 止攝 合口篇 「序」字는 中古의 邪母 上聲字이고, 壘攝 合口篇 「遂」字는 中古의 邪母 去聲字인데 모두 《圖經》에서 心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2. 禪母 平·入聲字는 《圖經》에서 審母 如聲에 배열되었고, 禪母 上·去聲字는 《圖經》에서 審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예를 들어 止攝 開口篇 「時」字는 中古의 禪母 平聲字이고, 祝攝 「蜀」字는 中古의 禪母 入聲字인데 모두 《圖經》에서 審母 如聲에 배열되었으며, 또 宕攝 開口篇 「上」字는 中古의 禪母 上聲字이고, 壘攝 合口篇 「瑞」字는 中古의 禪母 去聲字인데 모두 《圖經》에서 審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3. 匣母 平·入聲字는 《圖經》에서 曉母 如聲에 배열되었고, 匣母 上·去聲字는 《圖經》에서 曉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예를 들어 通攝 開口篇 「恒」字는 中古의 匣母 平聲字이고, 果攝 開口篇 「學」字는 中古의 匣母 入聲字인데 모두 《圖經》에서 曉母 如聲에 배열되었으며, 또 通攝 開口篇 「幸」字는 中古의 匣母 上聲字이고, 蟹攝 開口篇 「蕘」字는 中古의 匣母 去聲字인데 모두 《圖經》에서 曉母 去聲에 배열되었다.

둘째, 非·敷母가 합류되어 非母가 되었다.

《圖經》의 字母에는 輕唇音에 非·敷·微 세 母가 있지만, 이 중 非母에만 실제적으로 字가 배열되어 있고 敷·微 두 母에는 陰刻字 혹은 有音無字인 ‘○’형태로만 되어 있을 뿐이다. 《圖經》에서 中古의 非·敷母 합류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圖經》의 非母 平聲字는 中古의 非·敷母의 平聲字에서 왔다.
2. 《圖經》의 非母 上聲字는 中古의 非·敷母의 上聲字에서 왔다.
3. 《圖經》의 非母 去聲字는 中古의 非母 去·入聲, 敷母의 去聲, 奉母의 上·去聲字에서 왔다.
4. 《圖經》의 非母 如聲字는 中古의 全濁奉母인 平·入聲字에서 왔다.

셋째, 微母는 零聲母인 影母로 귀납되었다.⁹⁶⁾ 中古의 微母字는 《圖經》에서 「晚·味·問·望·文」등 다섯 字가 있으며 《圖經》에서 影母로 귀납되었다.

넷째, 知·照系는 照系로 합류되었으며, 聲母는 捲舌化가 되었다.

96) 《合併篇韻字學便覽引證》에,

其吳, 無, 椀, 晚, 玩, 萬, 悟, 勿之類母, 雖居二三音, 實爲一味, 不當分別而分別也.……可考其三等仍立微母無形, 以存輕唇之音.

(그 吳, 無, 椀, 晚, 玩, 萬, 悟, 勿과 같은 것의 聲母는 비록 두세 가지의 音으로 배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이며 구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그 3等에 微母를 세우고 있지만 形은 없으며 이것으로 輕唇音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微母의 소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圖經》의 「照·穿·審」 세 母는 모두 2等에만 배열하고 있어 이미 中古의 洪細의 구별이 없어지고 聲母는 권설화가 되었다. 《圖經》의 照母字는 中古의 「知·照二·照三·澄·牀二·牀三」 母의 字가 합류된 것이며, 《圖經》의 穿母字는 中古의 「徹·穿二·穿三·澄·牀二·牀三」 母의 字가 합류된 것이고, 《圖經》의 審母字는 中古의 「審二·審三·禪」 母의 字가 합류된 것이다.

다섯째, 아직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1. 見·精 두 母의 細音字는 現代漢語에서 이미 구개음화되어 /tɕ-/가 되었으나, 《圖經》에서는 이 두 母의 字가 구분되고 있다. 예를 들어, 通攝 開口篇 見母인 「京·景·敬」 과 精母인 「旌·井·淨」 은 현재 이미 同音이 되었으나, 《圖經》에서는 서로 다른 두 母에 속한다.
2. 溪·淸 두 母의 細音字는 現代漢語에서 이미 구개음화되어 /tɕʰ-/가 되었으나, 《圖經》에서는 이 두 母의 字가 구분되고 있다. 예를 들어, 通攝 開口篇 溪母인 「輕·頃·慶·繫」 과 淸母인 「靑·請·倩·情」 은 현재 이미 同音이 되었으나, 《圖經》에서는 서로 다른 두 母에 속한다.
3. 心·曉 두 母의 細音字는 現代漢語에서 이미 구개음화되어 /ç-/가 되었으나, 《圖經》에서는 이 두 母의 字가 구분되고 있다. 예를 들어 通攝 開口篇 心母인 「星·醒·性·錫」 과 曉母인 「興·擗·幸·行」 은 현재 이미 同音이 되었으나, 《圖經》에서는 서로 다른 두 母에 속한다.

《圖經》의 韻母는,

첫째, 四呼가 이미 생겨났다. 《圖經》의 체례는 이전 韻圖의 四等에서 三等의 체례로 바뀌었다.⁹⁷⁾ 그러나 실제 第2等に 배열된 照계도 이미 권설화가 되었기 때문에 1等과 같은 洪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攝의 開口圖 第1·2等은 開口呼가 되고, 第3等은 齊齒呼가 되며, 合口圖 第1·2等은 合口呼가 되고, 第3等은 撮口呼가 되어 四呼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둘째, 舌尖元音 /-ɿ/와 /ɚ/韻이 생겨났다. 《圖經》의 止攝 開口篇 第1·2等은 精·照系에 귀납된 字들인데, 第1等에는 精系인 「資·子·自·雌·此·次·慈·思·死·四」 字가 귀납되어 있고, 第2等에는 照系인 「支·止·至·齒·詩·史·時」 字가 귀납되어 있다. 精계의 聲母 /ts-/ , /tsʰ-/ , /s-/는 韻母 /-ɿ/와 결합하고, 照계의 권설성모 /tʂ-/ , /tʂʰ-/ , /ʂ-/ , /z/는 韻母 /-ɿ/와 결합한다.

그리고 《圖經》의 止攝 開口篇 第1等에는 「爾·二·而」 字가 귀납되어 있다. 中古의 日母字는 近代에 이미 권설화가 되어 《圖經》에서는 모두 「稔」 母로 귀납되었는데, 「爾·二·而」 字는 《廣韻》에서 모두 日母에 속하였으나 《圖經》에서는

97) 앞에서 밝힌 것처럼 四等이란 네 개의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漢자로 숫자를 표기한 것은 그것의 개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된 것은 바로 해당하는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단, 이것은 等, 呼, 聲에 한한다.

第2等 稔母에 배열되지 않고 오히려 第1等 零聲母인 影母로 귀납되었다. 이것은 「爾·二·而」字가 이미 早期의 聲母 /ŋz-/과 /ʒ-/에서 零聲母인 /ə/韻으로 변환 것이다.

셋째, 《圖經》중에 구개음 聲母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中古의 開口 2等 喉牙音字에 속하는 것이 모두 開口篇 第3等に 배열됨으로써 介音 /-i/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구개음 聲母의 前兆라고 할 수 있다.

넷째, /-m/운미의 소실이다. 이것은 《圖經》의 臻·山 두 攝에 귀납된 字가 中古의 /-m/·/-n/ 韻尾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圖經》의 臻攝은 中古의 深攝 「侵」韻과 臻攝 「眞·諄·文·欣·魂·痕」韻의 字가 합류되었으며, 《圖經》의 山攝은 中古의 咸攝 「覃·談·鹽·添·銜·咸·嚴·凡」韻과 山攝 「寒·桓·刪·山·先·仙·元」韻의 字가 합류되어 《圖經》에서는 이미 /-m/운미가 소실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中古의 開口 洪音 重脣音이 壘攝을 제외하고서는 《圖經》에서는 모두 合口篇 第1等に 배열되었다. 예를 들면 通攝 合口篇 第1等인 「崩·烹·猛·迸·朋·孟」는 開口 洪音字이며 現代에도 開口韻인 /-əŋ/이 되었는데, 《圖經》에서는 合口呼에 배열되었다.

여섯째, 舊等韻의 영향으로 中古의 合口 3等 輕脣音이 《圖經》에서 일률적으로 合口篇 第3等に 배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通攝 合口篇의 第3等 「封·捧·鳳·馮」字는 中古에 모두 合口 3等 輕脣音인데, 近代에 撮口呼가 아닌데도 《圖經》에서는 그것을 合口篇 第3等 撮口呼에 귀납하고 있다. 이것은 輕脣音 변화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圖經》의 聲調는,

첫째, 「平·上·去·如」의 四聲으로 나누는데, 如聲은 《圖經》의 凡例에 「設如聲者, 如平聲也」라 되어 있으며 지금의 陽平聲에 해당된다. 《圖經》의 如聲은 中古의 全濁·次濁 平聲字와 全濁 入聲, 소수의 次濁 入聲, 淸入聲에서 왔다.

둘째, 全濁上聲이 去聲으로 변화였다. 예를 들어, 通攝 開口篇의 「並·幸」字는 中古의 全濁 上聲인데 《圖經》에서는 모두 去聲으로 귀납되었다.

셋째, 入聲의 소실이다. 이것은 《中原音韻》의 入聲의 분포 모습과 차이를 보이는데, 《中原音韻》에서는 《漢語史稿》에 의하면, 全濁은 陽平으로, 次濁은 去聲으로, 淸音은 上聲으로 귀납되었다. 《圖經》에서는 淸入聲과 次濁入聲은 대부분 去聲으로 귀납되고, 全濁入聲은 如聲으로 대부분 귀납되어 淸入聲이 去聲으로 대부분 귀납된 점은 《中原音韻》에서 上聲으로 많이 귀납되는 점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으로 《圖經》에 반영된 語音의 변화는 《中原音韻》에 비해서 近代語音에 더 많이 가까워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舊等韻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못하였으나, 現代漢語에 이미 많이 접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圖經》에서만 특이하게 볼 수 있는 陰刻字에 대한 부분은 凡例에서 밝히고 있는 方言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고찰과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參考文獻

<資料本>

- 明, 徐孝 著, 張元先 校刊,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明, 徐孝 著, 張元先 校刊, 《合併字學集韻》, 서울대학교 홍문관, 1606, 10卷 5冊
宋, 丁度 等, 《集韻》, 臺北, 臺灣中華書局, 民國 69年 8月
李葆嘉, 《廣韻反切今音手冊》,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7. 12
余廼永, 《新校互註宋本廣韻》,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0. 7
廣文編譯所, 《國音中古音對照表》, 臺北, 廣文書局, 民國 71年 10月
藝文印書館, 《等韻五種》, 臺北, 藝文印書館, 民國 87年 3月
周德清 原著, 許世瑛 校訂, 劉德智 注音 《音注中原音韻》, 臺北, 廣文書局, 民國 70年
臺灣五十年來聲韻學暨漢語方音學術論著目錄初稿 1945-199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 74年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총8권,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88. 5

<單行本>

- 趙憇之, 《等韻源流》,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74年 7月
陳新雄, 《等韻術要》, 臺北, 藝文印書館, 民國 86年 8月
董同龢, 《漢語音韻學》,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9
謝雲飛, 《中國聲韻學大綱》, 臺北, 學生書局, 1987
龍宇純, 《韻鏡校注》, 臺北, 藝文印書館, 1979
唐作藩, 《音韻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4
文璇奎, 《漢語音韻論集》, 新雅社, 1994
潘文國, 《韻圖考》,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7. 9
汪壽明, 潘文國, 《漢語音韻學引論》,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2. 8
文璇奎, 《中國古代音韻學》, 서울, 민음사, 1990
竺家寧, 《近代音論集》, 臺北, 臺灣學生書局, 民國 83年 8月
王 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4
王 力 著, 李鍾振·李鴻鎮 共譯, 《中國語言學史》,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7
王 力, 《漢語音韻》, 北京, 中華書局, 文史知識文庫, 1991
李新魁, 《音韻學論集》, 汕頭大學出版社, 1999, 11

- 李新魁, 《漢語等韻學》, 北京, 中華書局, 1983. 11
- 李新魁 著, 朴萬圭 譯, 《中國聲韻學概論》, 大光文化社, 1990
- 趙振鐸, 《中國語音學史》, 河北, 河北教育出版社, 1998. 6
- 楊劍橋, 《漢語現代音韻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 12
- 崔瑛愛, 《中國語音韻學》, 서울, 통나무, 2000. 10
-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 北京, 語文出版社, 1992
- 張世祿, 《中國音韻學史》上·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71年 7月
- B. karlgren 著, 李敦柱 譯注, 《中國音韻學》, 1985
- 李在敦, 《中國語音韻學》, 살림中國文化叢書① 1994
- 陸志韋, 《近代漢語音韻論集》, 北京, 商務印書館, 1988
- 顧義生·楊亦鳴 著, 韓鐘鎬 譯, 《漢語音韻學入門》, 서울, 學古房, 1999
- 周祖謨, 《中原音韻新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1
- 李敦柱, 《漢字學總論》, 서울, 傳英社, 1997

<논문류>

- 應裕康, 〈清代等韻之研究〉, 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研究所 高級研究生論文, 民國 61年 6月
- 林平和, 〈明代等韻之研究〉, 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民國 64年 5月
- 李在敦, 〈中國 近世官話의 音韻 演變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8
- 유영기, 〈《合併字學集韻》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6
- 劉英璉,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 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7年
- 薛鳳生(美), 〈徐孝의 《重訂韻圖》〉, 第十四屆國際漢藏語言學會論文, 俞真 譯
- 陸志韋, 〈記徐孝《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 燕京學報 第32期, 1947
- 董同龢, 「切韻指掌圖中的幾個問題」史語所集刊十七本
- 董同龢, 「等韻門法通釋」, 董同龢先生語言學論文選集
- 姚榮松, 〈切韻指掌圖研究〉,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 碩士論文, 1973
- 崔炳權, 〈切韻指掌圖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韓鐘鎬, 〈韻圖의 起源과 唐代 韻圖의 再構〉,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0. 2
- 趙紀貞, 〈等韻圖考〉,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曹喜武, 〈元/-P/入聲字 聲調變化狀考〉-中原音韻以後 變化狀考-,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張在雄, 〈『韻鏡』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6

— 中文概要 —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

濟州大學校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洪 鏡 子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是明萬曆34年由徐孝執筆編纂，由張元先校刊后出版的韻圖。這個書名雖然被稱作‘司馬溫公’韻圖，實際上，從《合併篇韻字學便覽引證》上來看，并不是以《切韻指掌圖》而是以《切韻指南》為基礎編寫而成的。《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比其他文獻更加真實地反映了17世紀初北京音，在體例上也是非常具有獨創性的韻圖。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在聲·韻·調的體例上和其他韻圖作比較，會發現它具有各種不同于其他韻圖的特征。在語音方面，它與其他同時期文獻不同的是比較接近近代北方音系。首先，《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把過去的16攝減少到13攝，同時把字母由36字母減少為22字母。除了 [心]·敷·微母以外實際上只有19字母。《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全文共由25圖構成，各个攝的開合由2圖構成，只有祝攝是獨韻。

其次，以前以四等變為三等。《圖經》的三等也可以稱為“二等”。因為二等只歸納了照系字。照系字在《圖經》中已經變成捲舌音，捲舌音的特征是只與洪音結合，不與細音結合。因此，實際上把第二等照

系字歸納爲第一等。

《圖經》的聲調分爲“平·上·去·如”四聲，如聲在《圖經》的凡例中被稱作“設如聲者，如平聲也”，相當于現在的陽平聲。

在《圖經》中反映的語音比《中原音韻》更接近近代語音，部分雖然沒有完全擺脫舊等韻的影響，但是已經比較接近現代漢語了。

對只有在《圖經》中能夠見到的特殊陰刻字，僅有部分在凡例中作了說明，和方言相關的進一步研究還有待深入。

